

사람들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아브라함이 그런 여인에게 끌렸음에 놀라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서처럼 더 고귀하고 높은 주제(主題)의 금실(金絲)이 아브라함 같이 유명하고 경건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의 결혼이라는 거친 천으로 짜여 들어갑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이 보증한 모형 이론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히브리서 8:13),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 넣었듯이 사라는 “늙어서 사라졌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장면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라가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행위와 배타적 구원의 언약은 지나가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그 장면을 채웁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에서 명시하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일에서 단지 괄호 안에 삽입되는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직 끝내지 않으시고 천 년의 통치 아래 번성하고 복된 장소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두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번 모든 인류에게 복의 통로가 될 미래의 이스라엘을 예표(豫表)합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은 새로운 천 년 동안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민족들을 대표합니다.

2. 아브라함의 후손들(25:2-4)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일곱 명의 손자와 세 명의 증손자를 두었고, 성령에 의해 그들의 모든 이름이

으로 살았다. 뒷받침해줄 증언은 아무것도 없지만, 셈과 멜기세덱이 동일 인물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만약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정말로 장수한 셈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이 컸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적혀 있는 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왕성한 대적이 되었고, 스바와 드단은 향후에 곡과 마곡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편에 섭니다. 그 외에 이곳에 기록된 열아홉 명 각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름들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 이름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할 때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최소한 그들의 이름이 암시하는 진리의 노선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먼저 시므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노래” 또는 “노래 부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활기 있는 기질을 보여주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행복한 친구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은 욱산으로 그의 이름은 “어렵다”, “괘씸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는 다루기 까다롭고 형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괘씸하다”라는 함축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그는 부모의 권위에 전적으로 저항하고 무법의 삶에 빠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므단과 미디안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 다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 이 두 아들 모두 반항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박이라는 이름은 “버려진”, “빈”, “버림받은”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도 실패와 실망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이것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25:6). 그 이름에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막내아들은 수아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은 “구덩이”, “울다”, “수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름들이 암시하는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

선, 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해서 그의 자식들도 경건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의 가정에서 순종할 것을 강조했겠지만 경건함을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영성, 건전한 상식,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두라는 행복과 찬양하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명의 아들 중에 오직 한 명만 조금이나마 영적 기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구약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화해할 수 없는 증오를 나타내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중의 한 명은 욥의 가장 신랄한 비판자 중의 하나였던 빌다드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듯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며, 아브라함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굴 없는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과거로부터 우리를 쳐다보면서 말 못하는, 생명 없는 입술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이름은 몇 세기의 공간을 넘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있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두라가 교회시대의 간주곡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특권의 자리로 회복됨을 상징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 역시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천 년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이 등장한 순서로 보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관계를 갖는 이방 민족들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¹⁴

B.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25:5-6)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자,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언약의 계승

과 이삭의 안위를 확실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일은 재산의 양도입니다. “And Abraham gave all that he had unto Isaac—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25:5). 이삭은 그의 상속자로 선정되고 그의 모든 방대한 재산의 공동관리자(coregent)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의문이나 분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상속자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을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히브리서 1:2)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All mine are thine, and thine are mine—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요한복음 17:10)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시며, 우주만물

14. 시므란은 “노래하는 자” 또는 “노래”를 의미한다. 이것은 새천년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할 것이다. Isaac Watts의 찬송가는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양(Lamb)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육산은 “어렵다”, “까다롭다”, “평판이 나쁘다”는 의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새천년을 맞은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무질서하고 병, 죽음, 전쟁, 경제적 불평등으로 파괴된 세계를 알 턱이 없다. 그들은 새천년에서 이 땅의 풍요와 구세주의 통치 아래의 평화와 번영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오늘날 태어난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식들이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복음에 냉담한 자들로 자라듯이 그들도 영광에 냉담한 자들로 자랄 것이다. 그 시대에도 나쁜 평판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므단과 미디안은 모두 심판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철퇴로 그 황금시대

을 하나님과 공동으로 지배하십니다. 풀 한 포기, 우주의 먼지 한 티끌, 도랑의 물 한 방울도 그분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우리가 읽는 것은 가족의 분산입니다. “But unto the sons of the concubines, which Abraham had, Abraham gave gifts, and sent them away from Isaac his son, while he yet lived, eastward, unto the east country—그러나 그가 낳은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떼 내어 보내어 동쪽으로 곧 동방(東邦)으로 가게 하였더라” (25:6). 이것은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아무도 향후 이삭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를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즉시, 공평하게, 그러나 가차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새천년 기간 중의 죽음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고 예외적인 일이 될 것이나 만약 죽음이 온다면 대부분은 심판의 결과일 것이다.

이스박은 “빈”, “버려진”, “버림받음”을 의미한다. 천년시대가 끝나가면서 불평이 증가할 것이다. 은밀하게 반역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일 것이다. 음부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와 이 버려진 자들의 끊어오르는 반역을 표출할 수 있는 집결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스박”이라는 이름은 그 내포한 의미가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때 키쳐들었던 사탄의 기치 아래로 모여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스아는 “구덩이”, “울다”, “부끄러움”을 의미한다. 바로 사탄이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나오지 않는가! 그 거듭나지 않은 무리들이 마침내 미워하는 왕에게 대항하여 자신들을 이끌 챔피언을 찾았을 때, 격앙된 외침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지구의 폭발로 사라지고 즉시 위대한 흰 보좌로 불려나갈 때의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보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분의 권리주장에 대항하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생 가운데 그리스도께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돌보아 오셨습니다.(빌립보서 2:9-11)

선견지명이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미래의 일을 돌본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권과 확고한 의지는 이와 같이 미래에 있을 문제들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C. 완전한 인간(25:7-11)

하나님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맺는 데 매우 아쉬운 듯이 보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인정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저주받은 지구 어디에서 친구로 삼은 적이 전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지체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친구이신 분”이 계신 고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되풀이해서 다루십니다.

1. 아브라함의 날들의 분량(25:7)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years of Abraham’s life which he lived, an hundred threescore and fifteen years—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백칠십오 년이라”(25:7). 그 당시 이삭은 칠십오 세였으며, 야곱은 십오 세, 에서가 십오 세, 셈의 손자 에벨이 사백육십 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가 죽은 지 겨우 이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보다 거의 오십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칠십오 세에 순례자로서의 길

을 견도록 부름 받았으며, 백여 년 동안 끈고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These are the days of the years of Abraham’s life which he lived, an hundred threescore and fifteen years—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들이 이러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생이란 하루하루(days)가 이어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셈법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만 삼천여 날들을 살았고, 그 중 삼만 육천여 날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 번에 하루를 사는 일이고, 매일 하나님과 짧은 장부계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복을 구해야 하고, 그분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분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날들 계수하셨고, 그의 날들의 분량을 헤아리셨습니다.

2. 아브라함의 죽음의 방식(25:8)

“Then Abraham gave up the ghost, and died in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그 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 충분히 늙은 나이의 노인이 되어, 연수가 차서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25:8). 충분히 늙은 나이에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목사 친구 한 명은 언젠가 악마에게는 행복하게 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논리를 실험해 보기로 하고 만나는 노인들마다 행복하냐고 묻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한 노인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은 행복한 노인이십니

까?” 하고 물었다가 잔뜩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행복한 노인을 한 명 찾았습니다. 그분은 늙고 눈먼 노인이었는데, 길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행복한 노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악마에게는 행복한 노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큰 도둑입니다. 세상은 젊음과 건강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천진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어떠신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렌, 죽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사는 게 중요하지. 잘 살면 죽기도 잘 죽는 거란다.” 발람은 의롭게 죽고 싶었지만,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바라는 죽음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늙은 나이는 좋은 청소년기와 좋은 성년부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는 나이가 다 차서 죽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가 “full of years—나이가 많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이가 다 차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족해서, 아니 넘치도록 만족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천수를 다하였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풍요한 복뿐 아니라 삶 자체로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만찬 자리에서 마침내 “배부르다!” 하면서 음식을 물립니다. 빵 부스러기조차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배불렀습니다. 삶에 배부르고 만족하며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주께서 “자, 내 친구여, 이리 올라와 보게. 너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여주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야, 영원무궁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아브라함의 소망(25:9-11)

경이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을 세 가지 거대한 소망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바라는 일이 있었습니다(25:9). “And his sons Isaac and Ishmael buried him—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하였으니.” 훌륭하고 천수를 다 누린 노인이 이것 말고 또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 수십 년 전 내보내야 했던 사랑하는 녀석이 늙은 아비를 장사지내려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에 대해 한때 품었을 미움도 이제 모두 덮었습니다. 이 둘은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완전히 화합하여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25:9-10). 그들은 “buried him in the cave of Machpelah, in the field of Ephron the son of Zohar the Hittite, which is before Mamre; The field which Abraham purchased of the sons of Heth: there was Abraham buried, and Sarah his wife—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자손에게서 산 것이니,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묻히니라.” 만약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한 가지 개인적 바람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라 옆에 묻혀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도 들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족장으로로서 바람이 있었습니다(25:11).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 death of Abraham, that God blessed his son Isaac; and Isaac dwelt by the well Lahai-roi—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해로 이 우물근처에 거하였더라.” 족장으로로서의 아브라함의 바람, 즉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죽어가는 그분의 친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D. 하찮은 인간(25:12-18)

모세는 자신의 전형적인 역사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25장에서 메시아의 계통에 눈을 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계보를 다루는 데에 그는 일관되게 방계를 정리하고 나서 관심대상인 중심 계통을 쫓아갑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삭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이스마엘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핵심 주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스마엘의 죽음과 삶의 방식을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 역시 복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함으로써 영적인 문제들을 알보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속의 복은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번성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부유함에 관해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하며 눈 먼,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거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배다른 조카 야곱처럼, 이스마엘은 열두 부족을 세웠습니다. 이 부족들에서 아랍 민족이 나왔고, 이들은 세계의 문화와 세계의 잔혹함에 상당히, 아니 극도로 기여하였습니다. 잔혹한 아프리카 노예무역은 대부분 아랍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슬람의 깊은 영적 어두움 역시 아랍이 세상의 고통에 또 다른 기여(寄與)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지독한 원수는 이스마엘의 종족입니다.

1. 이스마엘의 계보(25:12-15)

이스마엘의 가계와 자손이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께서는 이스마엘의 주목할 만한 탄생을 기록함으로써 시작합니다. “Now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Ishmael, Abraham’s son, whom Hagar the Egyptian, Sarah’s handmaid, bare unto Abraham—이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25:12). 사라,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은 두 번씩이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고귀하고 혼치 않는 특권을 가진 가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과 미신으로 둘러싸였던 수천의 무수한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순종했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마엘에게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고 감히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두 여인과 관련하여 통탄스러운 고함과 분규와 소소한 심술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경건하고 늙은 아브라함은 그 소년을 사랑했으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복을 그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탄생과 그 탄생이 미래에 의미하는 모든 것에 분개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오로지 혼자 받아 왔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삭이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하여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목적을 이스마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연인의 완전한 무지로 영적 진리에 대해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 측면, 잘못, 실수, 불완전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반항적 소년으로 자랐고, 말하자면 영적 일들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통해서만 오게 될 복에 참여하기

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한 만큼 이스마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반항적인 젊은이에 대하여 동정심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풀이해서 그의 이름을 집어 들어 성경에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슬프신 듯이 다시 제자리에 도로 놓으십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출생과 교육에서 오는 모든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메시야가 오시는 데에 아무 역할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삭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삭을 조롱했고, 완강하게 오늘날의 그의 후손들처럼 “유대인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냉혹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갈을 어머니로 두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모두 이교도로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나먼 바빌론의 번창하던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애급 국경근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갈은 아브라함만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고 아브라함의 우리의 보호 속에 가능한 한 오래 거하려고 되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사라에 대해 충분히 분개해 할 수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의 증언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주목할 만한 탄생으로 복을 받았지만, 성장하여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머리를 숙였다거나 언제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암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의 탄생 배경이나 그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불가피하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수많은 아들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These are the names of the sons of Ishmael, by their names, according to their generations—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에 따라 이와 같으니”(25:13-15). 그리고는 그들 12명 모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여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예를 들어, 왜 성령께서는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가졌다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정도에서 그만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들에 대한 실제 역사 대부분은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에 이미 희미해졌습니다. 사실 학자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정착한 중동 지역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때때로 중요하고 예언적이기까지 함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에서(예를 들면 므두셀라, 야곱, 마헬살랄하스바스) 한 이름 속에 모든 미래의 역사, 개인의 미래 뿐 아니라 그 종족 전체의 미래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특별한 순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탄생의 순서일 수 있으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일곱 명의 이름은 복수접속사(polysyndeton)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기 위해 종종 사용하시는 문어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이름을 들어 그런 방식으로 다시 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세 이름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연결하지 않고 마칩니다. 이런 구조형태에는 분명 무슨 까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이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영감으로 쓰인 것을 믿는다면, 그 이름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하나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 있고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거나 필요에 따른 연결고리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독특한 관계는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 이상 추구하는 것은 주제를 빗겨가는 것이지만,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갖는 예언적 의미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인간사(人間事)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된 것은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궁극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슬람 종교는 일신론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백성 가운데 유대적이고 기독교적인 증거 모두에 대하여 오만한 감정을 지닌 백성을 통해서 떠오르리라고 기대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멸하면서, 왜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고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부터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돌보신 것만큼 이스마엘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여 배열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슬람에 대한 숨겨진 경고를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의미심장한 것처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예언을 형성하며, 함께 이슬람의 이야기, 즉 이슬람의 위대한 영적인 비극, 위대한 사회적 승리, 그리고 위대한 세속적인 집요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이스마엘의 다섯 가지 승리(25:16)

이름! 부락! 권력! 군주! 민족!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 또렷이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이스마엘 족속이 주의를 끄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은 고대 세계에서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랍의 이름들은 모하메드가 아라비아 사막의 황야에서 광신적인 유

목민의 무리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 서구세력을 무너뜨리고 북아프리카를 휩쓸며 스페인의 심장을 강타했을 때에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랍의 이름들, 아랍 학자들의 이름들은 유럽이 중세 암흑기의 문화적, 과학적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랍 이름들은 오늘날에도 무시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장소가 주의를 끕니다. 무슬림의 유목민의 무리가 문명세계를 유린하자, 이슬람의 수도들은 세상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몇 세기 동안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카이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그런 도시들은 한때 정책이 입안되고 예술과 과학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힘이 주의를 끕니다. 아랍인들은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칼을 꽂고 인적 자원을 약탈했던 족속입니다. 아랍인들은 오늘날에도 세계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력한 산업 국가들, 일본, 심지어 강대국 미국도 아랍의 세계 석유자원에 대한 실질적 독점권 때문에 모두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랍의 오일머니는 아랍인들을 거대한 경제적 세력의 위치로 높이 올려놓아 조그만 아랍국가라도 거대한 산업 세력들(예컨대 일본)을 협박할 수 있고 석유판매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국제문제에서 친 아랍의 입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랍의 석유수출금지과 가격급등은 끝없는 물가상승으로 모든 산업국가와 세계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오일머니는 자금지원으로 검은 아프리카대륙 깊이 이슬람의 세력을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무슬림의 무리가 처음 중동, 터키,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세력을 말살한 이래로 그 존재에 관한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십 년 전에는 아무도 이와 같은 아랍세력의 재기(再起)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지도자들이 주의를 끕니다. 아랍의 정복 전성기

에는 아랍세계의 족장들과 왕들이 인류의 국제적인 문제들을 좌우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기독교를 봉쇄했고 서구세력이 팽창하려고 하는 모든 길에 양다리를 벌리고 서서 막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아랍세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중요한 행동도 취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랍 국가들의 대통령들과 족장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국제적 거물이 되었고, 세계 모든 수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회합을 살핍니다.

이스마엘 족속의 소유가 주목을 끄니다. 특히 아랍 족속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국가들이 주목을 끄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부유한 국가들을 지배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제국은 아랍지역을 지배함으로써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 세계적 영향력은 아랍세계에 대한 영향력의 상실과 비례하여 쇠퇴하였습니다. 영국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아덴, 아라비아 만의 부족들의 영토에서 철수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강대국으로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아랍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세계 지배의 관건(關鍵)으로써 그들을 탐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주요 자산은 아랍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그 적개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떤 대가(代價)도 지불하고 어떤 모험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스마엘의 다섯 가지 승리입니다. 그 승리들은 모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역사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스마엘의 승리들을 가능한 한 간결한 형태로 적으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으시고, 전혀 공을 들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에

특별하게 감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장(章)별로 이어가면서 야곱의 방황에 관한 이야기에 열중하시고 창세기의 사분의 일이 요셉에 관해 이야기이지만, 이스마엘의 모든 승리는 12명의 이름과 그 정도 되는 몇 자로 처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쯤 해두자. 그는 충분히 받았느니라. 영원이란 관점에서 그것들은 재고할 가치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이스마엘의 최후의 비극(25:17-18)

하나님의 영계서는 이스마엘에 대해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이스마엘의 죽음의 가없는 성격에 주의를 끌게 하십니다. “And these are the years of the life of Ishmael, an hundred and thirty and seven years: and he gave up the ghost and died; and was gathered unto his people—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햇수가 이러하니, 즉 백삼십칠년이요, 숨을 거두어 죽으니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25:17). 거기에는 그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간단한 기록뿐입니다. 황량하고 장식도 없는 마지막입니다. 그의 날들(days)에 대한 회고도 없고, 햇수를 기록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의 죽음과 매장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매장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은 그의 임종의 자리에서(창세기 49장) 그의 열두 아들을 주위에 모아 놓고,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영적인 노선에 따라 쏟아냈습니다. 각각에게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들들에게 한 말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던 그대로, 영적 파탄의 상태로 죽었으며,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원한 가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죽음의 가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욕망의 세속적인 본성이 주의를 끕니다. “And they dwelt from Havilah unto Shur, that is before Egypt, as thou

goest toward Assyria: and he died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그리고 그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수르에 이르기까지 거하였으니, 수르는 애굽 앞에 있는 곳으로 사람이 아시리아로 향할 때 거치는 곳이니라.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으니라”(25:18). 애굽. 아시리아. 이 두 국가는 고대의 세계적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그 약삭빠름으로 이 세상을, 아시리아는 그 잔인함으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애굽에서도 아시리아에서도 살지 않았지만, 그의 욕망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그들 가까이 살았으며, 그의 삶을 그들의 모습대로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문입니다.

“And he died!—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말은 “쓰러지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제들 앞에서 “그의 운명이 내던져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그가 사랑했고 삶의 목적이었으며 그토록 갈망했던 세계는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코 원하지도 않았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제6장
순례자 : 이삭
(25:19~27:46)

I. 이삭과 그의 아들들(25:19-34)

- A. 태 안에 있는 쌍둥이 형제(25:19-26)
 - 1. 불임의 아내(25:19-21)
 - 2. 은밀한 전쟁(25:22-26)
- B. 세상에 나온 쌍둥이 형제들(25:27-34)
 - 1. 커져가는 갈등(25:27-28)
 - 2. 대 결전(25:29-34)

II. 이삭과 그의 행동(26:1-35)

- A. 이삭의 행보(26:1-5)
- B. 이삭의 아내(26:6-11)
 - 1. 거짓말을 준비하다(26:6-7)
 - 2. 거짓말이 폭로되다(26:8-11)
- C. 이삭의 재산(26:12-16)
- D. 이삭의 우물(26:17-22)
 - 1. 이삭이 회복한 것(26:17-18)
 - 2. 이삭이 깨달은 것(26:19-22)
- E. 이삭의 예배(26:23-25)
 - 1. 중요한 계시(26:23-24)
 - 2. 즉각적인 반응(26:25)
- F. 이삭이 받은 증거(26: 26-33)
- G. 이삭의 근심(26:34-35)

III. 이삭과 그의 복(27:1-46)

- A. 영적이지 못한 아버지(27:1-4)
- B. 복종하지 않는 아내(27:5-10)
- C. 몰염치한 형제(27:11-33)
 - 1. 야곱의 의심받을 만한 행동(27:11-27)
 - 2. 야곱이 훔친 복(27:28-33)
- D. 구원받지 못한 아들(27:34-46)

제6장 순례자 : 이삭

1. 이삭과 그의 아들들(25:19-34)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또는 야곱의 이야기에 이런 저런 방법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삭과 그 자신만의 개인적인 경험에는 오직 한 장만이 창세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찰을 위해서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과 그의 형제(25:12-18), 둘째는 이삭과 그의 아들들(25:19-34), 셋째는 이삭과 그의 행위(26:1-35), 넷째는 이삭과 그의 복(27:1-46)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사건들에서 이삭의 사건들로 끊어지지 않고 넘어갑니다. 의미심장한 접속사반복법이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로써 적절하게 계속됩니다. “*And these are the years of the life of Ishmael...and he gave up the ghost and died; and was gathered unto his people. And they dwelt from Havilah...and he died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And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Isaac...And Isaac was forty years old when he took Rebekah to wife—그리고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햇수가 이러하니라...그리고 숨을 거두어 죽으니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하빌라에서부터...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으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그리고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

님의 계시의 주류(主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헬과 갈보리와 하늘 넘어 있는 나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되돌아오면서, 이스마엘과 그와 관련된 일들을 영원히 결말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리듬에 끊김이 없다 할지라도, 또 중단 없이 서두르지 않고 동일하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리지 않는 안도의 한숨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만큼 했으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바라봅시다! 이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로 갔던 사람을 새롭게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부분의 이야기는 이삭의 아들들의 탄생에 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쌍둥이의 탄생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대하게 됩니다. 이들 쌍둥이는 생김새나 취향에서 똑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존재했던 차이에서 보이는 대조보다 더 큰 대조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나고, 같은 장소에서 났으며, 같은 부모 밑에서, 그리고 동일한 특혜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두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시작부터 그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스스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넘어지고, 또 하나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은 천국의 비전에 의해 지배되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 지배됩니다.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모두 에서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But of God!—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것은 모두 야곱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요한복음 1:13)

25장에서 우리는 두 형제를 처음에는 태 안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봅니다. 그 둘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여

우리는 이들 쌍둥이의 탄생과 격렬한 가정 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기록 이상의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실 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For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and these are contrary the one to the other: so that ye cannot do the things that ye would—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망을 채우고자 하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니, 이 둘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17). 우리는 에서와 야곱간의 투쟁에서 육신과 성령간의 투쟁이 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A. 태 안에 있는 쌍둥이 형제(25:19-26)

1. 불임의 아내(25:19-21)

그 싸움은 아들들의 출생을 넘어서 리브가 그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불임(不妊)인 아내의 문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And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Isaac, Abraham’s son: Abraham begat Isaac and Isaac was forty years old when he took Rebekah to wife, the daughter of Bethuel the Syrian of Padan-aram, the sister to Laban the Syrian—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아람의 시리아 사람 베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우리의 관심은 즉시 리브가의 족보(25:19-20)에 쏠립니다. 그녀의 족보는 이삭의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족보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족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삭과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도, 또한 그와 같은 두드러진 특권을 보유한 상속자나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교도의 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친가 중에서 유명하다 싶은 수준에 오른 사람은 그녀의 오라비가 유일하였는데, 그는 도의 없는 무뢰한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족보는 우리의 자연적 출생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없음을 알려줍니다. 리브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그녀의 자연적 출생의 족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리브가의 문제를 주목합니다. “And Isaac entreated the LORD for his wife, because she was barren: and the LORD was entreated of him, and Rebekah his wife conceived—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니라” (15:21). 성령께서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자연적 사건들에 영적 진리를 엮어 넣으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결정하고 선택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연결되고, 그를 전적으로 의뢰한 리브가는 믿는 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줍니다. 그녀는 가장 친밀하고 거룩한 관계로 사랑하는 자와 결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성과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리브가가 자신을 이삭에게 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열매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고, 진실로 주 예수와 구원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불임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위한 지속적인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임상태입니다.

그 불임의 상태는 이삭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인 불임상태의 문제를 그 근본까지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문제가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리브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육신은 육신 이외의 어떤 것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알고 리브가를 위해 개입함으로써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And Isaac intreated the LORD for his wife, because she was barren—그리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니라.” 이삭은 리브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허물은 그녀에게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잘못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 안에 죽음을 이어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을 따라 불임의 상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개입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no more can ye…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e bear much fruit—가지가 스스로 열

매를 맺을 수 없듯이…너희도 그러하리라…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이라”(요한복음 15:4, 8).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2. 은밀한 전쟁(25:22-26)

이야기는 이제 불임의 아내로부터 은밀한 전쟁으로 방향을 돌립니다(25:22-26). 리브가가 잉태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증거가 보이자마자 그녀는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태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두 본성이 있으며, 그 두 본성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상태에서는 그러한 싸움은 없었으나, 열매를 맺기 시작한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안의 대립되는 본성간의 투쟁을 가장 잘 인식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 두 본성의 존재를 우선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는 설명되며, 그런 다음에 밝혀집니다. 리브가가 직접 겪는 육체적 경험은 한 단계씩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리브가의 경험은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로마서 7장의 한 유형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 두 본성간의 싸움, 비밀스러운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25:22). “And the children struggled together within her; and she said, If it be so, why am I thus? And she went to enquire of the LORD—그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말하기를, 그러니 내가 왜 이런가? 그래서 그녀가 가서 주께 여쭙니라.” 태 안에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에 직면하여 리브가는 매우 분별 있게 일을 처리합니

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주께 여쭙어봅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경험한 것을 모두 경험해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해 하는 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열매 맺도록 이끄는 조건들에 맞추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즉시 싸움은 시작됩니다. 새로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일종의 황홀한 경험, 즉 어떤 아주 특별하게 경건한 침례(baptism of superholiness)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과 연관된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옛 본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거되지도 않으며, 열매를 맺기 위해 그분께 순종할 때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옛 본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원수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도 격렬하게 대적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는 성령님의 모든 노력에 즉각적으로 대항합니다. 육신은 근절되기는커녕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어떠한 신호에도 힘차게 그리고 살인적인 행동으로 자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은밀한 전쟁이 설명됩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her, Two nations are in thy womb, and two manner of people shall be separated from thy bowels (being); and the one people sha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people; and the elder shall serve the younger—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 안에 있느니라.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배로부터 나뉘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시니라” (25:23). 근본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과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미래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 안에 있는 두 본성간의 관계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본성은 먼저 있었다는 단순한 이

유로 형이 됩니다. 그리고 새 본성은 새롭게 탄생하기까지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새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새 본성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지배권 싸움에서 새 본성을 지지할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새 본성은 패할 수 없습니다. 새 본성은 영원히 승리할 것이며, 반면에 믿는 자 안에 있는 옛 본성은 무덤 외에는 어떤 미래도 없고, 죽음의 원칙은 현세의 삶에서조차 옛 본성이 갖는 힘을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두 본성이 밝혀집니다. “And when her days to be delivered were fulfilled, behold, there were twins in her womb. And the first came out red, all over like an hairy garment; and they called his name Esau. And after that came his brother out, and his hand took hold on Esau’s heel; and his name was called Jacob—그리고 해산해야 할 날들이 찬즉,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아기는 붉고, 온통 털옷으로 덮은 것 같아,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그의 손으로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25:24-26). 드디어 그 두 본성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에서는 붉었는데, 그는 아담의 본성을 전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아담”이란 이름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아담의 본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온통 털로 덮여있어서 마치 동물새끼같이 보였습니다. 털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자연적 힘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에서의 바로 그 모습에서 보다 저급한 성향을 보게 되자, 리브가는 에서에 대한 혐오감으로 야곱에게 애정을 주었습니다.

태 안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그 씨(the Seed)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수차례의 공격, 즉 갈보리에서 절정에 다다랐던 그 공격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깁니다. 야곱은 에서의 뒤통치를 잡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궁극적으로 해결된 그곳인 갈보리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물론, 상징적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거 보세요, 내가 그를 이겼어요.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멋진 승리를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승리로 나도 승리했어요.” 물론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막 태어난 형처럼 목청껏 울고 있는 갓 난 아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상징성은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 곧장 갈보리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Knowing this—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at our old man is crucified with him [Christ],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estroyed, that henceforth we should not serve sin—곧 우리 옛 사람이 그분(그리스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게 되어, 이후로는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로마서 6:6). 타고난 본성에 의한 모든 것을 누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처리되고 그 장소, 즉 죽음의 장소에 놓이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태 안에 있는 쌍둥이 형제가 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안에서의 싸움이 밖으로 나와 드러났을 때, 그 싸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B. 세상에 나온 쌍둥이 형제들(25:27-34)

이 두 쌍둥이 형제들은 지금까지 서로 대적하는 원칙들을 대표하다가, 단지 이제 그 원칙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그 갈등과 그 문제점이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내면의 투쟁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데에서 밖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에서 예시 되는 원칙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야곱에서 예시되는 원칙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1. 커져가는 갈등(25:27-28)

시간은 이들 형제들 사이를 화해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나 감에 따라 그들 사이의 경쟁도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간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그 투쟁은 계속되어 야곱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끌어오고 에서가 헤롯을 세상에 이끌어 올 때에 그 정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제 세상에 태어난 이 두 소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And the boys grew: and Esau was a cunning hunter, a man of the field; and Jacob was a plain man, dwelling in tents—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숙달된 사냥꾼으로 들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니” (25:27).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었으며 야곱은 우리(fold)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가인이 좋아할 종류의 삶을 선택했으며, 야곱은 아벨이 기뻐하는 종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에서의 열정은 죽이는 데 있었고, 야곱의 열정은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허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본능과 관심은 양치고, 보호하며, 생산적인 것인 데 반하여 에서의 본능과 관심은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두 소년의 본성은 완전히 서로 대조적이었으며, 그들의 본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삶속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임, 불순한 문학, 세속적

인 욕망을 위한 감각을 기르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과 믿는 자들과의 교제와 구령을 위한 감각을 개발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주목합니다. “And Isaac loved Esau, because he did eat of his venison: but Rebekah loved Jacob—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니, 그가 그의 사냥한 고기를 먹기 때문이었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25:28). 에서는 이삭의 식욕에 영합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애정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야곱은 그저 자신의 모습으로 리브가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에서는 사실상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요리한 것을 드릴 터이니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욕망을 만족시켜 드리고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며 아버지의 욕구를 원하는 대로 채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로마서 14:17). 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삭의 식욕에 영합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분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요한복음 21:15)

그래서 갈등은 커져갑니다. 두 원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급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마적인 것에 영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기심이 없고 순수한 것입니다.

2. 대 결전(25:29-34)

그 갈등은 곧바로 대 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만간 그 상반되는 원칙들은 공개적으로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영원한 문제들은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야 했습니다. 이 두 소년은 전혀 다른 가치체계를 대표했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며, 야콥은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하고 있는 원칙들에는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25:29-34). 그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의 취향이 작은 일로 여겨지는 한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영적 가치 관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But the natural man receiveth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unto him: neither can he know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그 일은 너무나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몇 마디 성급하게 내뱉은 말들로 인해 영적 특권의 문은 에서 뒤에서 영원히 광 닫혔습니다. 몇 마디 성급한 말들이었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 결국 그 몇 마디 성급한 말들은 에서의 혼이 완전한 어둠임을 드러내었습니다. 몇 마디 성급한 말들이지만, 그것들은 문제의 뿌리가 전혀 그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둬나지 않았고, 경건치 않았으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식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 “육신”에 대해 말할 때에 의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야콥의 행동은 칭

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에서만큼이나 나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나 야곱이 무엇을 원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욕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바랐습니다. 야곱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밖으로 나가 사냥을 했고, 길고 열정적인 추적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진정한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그로 하여금 사냥감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창과 활을 질질 끌면서 언덕을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었으며, 자기 장화라도 꿰여 먹고 싶을 정도로 뼈 속까지 지치고 배고팠었습니다. 그는 낙담한 상태였지만 집에 거의 다 왔었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에서가 본 것을 하나님의 영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And Jacob sod pottage: and Esau came from the field, and he was faint—그리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몹시 지쳐서”(25:29). 에서는 아우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는 냄비에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의 향기는 에서의 머릿속의 다른 모든 생각들을 몰아냈습니다. 맛있게 보글거리는 냄비를 보고 야곱이 만들고 있는 음식 냄새가 확 코로 들어오는 순간, 에서의 눈은 반짝거리고 입에는 침이 고이며 식욕이 그를 덮쳤습니다. 마침내 육신적인 욕구가 저항의 여지도 주지 않고 요동칠 때의 그 강렬한 능력을 에서에게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And Esau said to Jacob, Feed me, I pray thee, with that same red pottage; for I am faint: therefore was his name called Edom. And

Jacob said, Sell me this day thy birthright. And Esau said, Behold, I am at the point to die: and what profit shall this birthright do to me?—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쳤으니 원컨대, 그 붉은 죽과 같은 것을 내게 먹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형의 장자(長者權)을 오늘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니라”(25:30-32). 무슨 유익이라니! 에서는 지금 그 영원한 것을 팔려고 하는데,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장자권은 살아서보다 죽어서 그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뿐 아니라 영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육신은 이런 것에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은 지금 이곳을 위해 삽니다.

마침내 에서가 무엇을 팔았는지 듣게 됩니다(25:33-34). 그것은 의도적이고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And Jacob said, Swear to me this day; and he sware unto him: and he sold his birthright unto Jacob. Then Jacob gave Esau bread and pottage of lentiles; and he did eat and drink, and rose up, and went his way: thus Esau despised his birthright—그리고 야곱이 이르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그러자 야곱이 빵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의 길을 갔으니, 이와 같이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장자권은(만약 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 안에 왕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Let nations bow down to thee—민족들이 네게 절하며”(창세기 27:29). 에서는 이것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에서의 행동에 대한 성령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성경은 그를 “불경스런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허세부리고,

다정하고, 너그럽고, 충동적이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가족의 맏아들이었으며, 메시아와 제사장직뿐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의 권리에 직접 연계되는 일순위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즉 그는 거룩하지 못했고, 성화되지 못했고,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저속하였습니다.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라고 킹 제임스 성경은 경멸적으로 표현합니다. “For one morsel of meat Esau despised his birthright—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업신여겼으니”(히브리서 12:16). 먹을 것 한 조각! 이 세상의 욕정적인 열망들이 이 한 구절에서 일목요연해집니다. 현재의 욕망과 영원한 영광을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값 싼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접속사반복법의 사용은 그 거래가 의도적이고 경멸적이고 몹시 불쾌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옆으로 던져버린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Then Jacob gave Esau bread *and* pottage *and* drink, *and* rose up, *and* went his way: thus Esau despised his birthright—그러자 야곱이 빵 그리고 팔죽을 에서에게 주니라. 그리고 마시니라. 그리고 일어나니라. 그리고 그의 길을 갔으니, 이와 같이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에서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25:31-34). 야곱은 그의 모든 허물과 실패, 그리고 그 허물과 실패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늘 위의 것들에 애정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 장자권이 갖는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에는 가족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따라왔습니다(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두 배로 상속받을 권리). 그것에는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권리도 따라왔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직접 이어지는 가문의 조상으로서의 권리가 따라왔습니다. 에서는 제사장직이

나 조상으로서 갖는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현세의 것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를 열정적으로 원했습니다.

육신과 성령간의 대 결전에서, 에서는 육신으로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영원히 패했습니다. 야곱은 영원에 대한 열정으로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lest any man [among you] fail of the grace of God…lest there be any fornicator, or profane person, as Esau, who for one morsel of meat sold his birthright—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하고…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불경스런 자가 없도록 하라”(히브리서 12:15-16)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어떤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II. 이삭과 그의 행동(26:1-35)

이삭은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대부분을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져 있거나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유명한 아들 야곱의 그늘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게만 할애되어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이 장은 이삭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홀로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수십 년 전에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영성에서 이미 절정에 다다랐던 한 인간이 여기저기에서 넘어지면서, 그럭저럭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줍니다.

A. 이삭의 행보(26:1-5)

이 장의 바로 첫 절에서 영적 침체가 벌써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정도의 수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주변 환경들을 장악하고 그에게 복종하도록 강하게 몰아가기 보다는 그것들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은 이삭이 직면하게 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An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And Isaac went unto Abimelech king of the Philistines unto Gerar—그리고 기근(饑饉)이 그 땅에 들었으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라” (26:1). 믿는 자라고 해서 인류에 덮치는 일반적인 재앙들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지리적으로 단층선상에 집을 지었다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옆집의 무신론자의 집과 똑같이 그의 집도 흔들려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종종 보호하시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로마서 8:28). 그 당시 이삭도 가나안에서 경건치 않은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던 동일한 기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내면에도 압력을 형성합니다. 기근은 외부의 압력이었고, 육신은 내부의 압력으로, 이 두 가지가 연합된 압력을 형성하여 그로 하여금 성급하고 육신적인 결정을 하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는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애급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백 년 전에 그의 아버지도 똑같이 행했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삭은 그에 대해 알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물려받은 진리의 유산의 일부분이었고, 세대를 이어가며 전수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애급으로 그의 진로를 잡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삭은 상황에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금지가 따릅니다. “And the LORD appeared unto him, and said, Go not down into Egypt—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26:2a).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삭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불순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공언하신 원수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호적으로 세상이 내민 손은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실제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금지의 명령에 이어 확고한 약속이 뒤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2b-5). 이삭은 약속의 땅에 남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일곱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주장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의 반복이면서 이제야 이삭에게 이를 직접 확인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적절하면서도 새롭게 말씀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의 확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가 깨달았던, 그릇된 길로 나가도록 했던 상황으로부터 관심을 돌이켜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항상, 특히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삭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 여행하면서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압력에 직면해서, 이삭은 그의 행보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했습니다.

B. 이삭의 아내(26:6-11)

우리는 “Isaac dwelt in Gerar—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니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지, 그랄에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지각이 더 있었어야 했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을 막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도 그랄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잘못을 반복하는 대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갔던 그 잘못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은 애굽으로, 또 한 번은 그랄로 감으로써, 두 번 넘어졌었습니다. 이삭은 이 두 실수에 대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처럼 행함으로써, 실제로 세상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했던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미적지근하게 순종함으로써 뜨거운 곤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주변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1. 거짓말을 준비하다(26:6-7)

이삭은 그랄에 정착하자마자 거짓말에 의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잘못된 곳에 있었음이 증명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경이로운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의 피난을 거짓말로 꾸몄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궁지에 몰렸을 때,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 본성의 끈질김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짓되고 몹시 사악하다는 사실 앞에

당황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And the men of the place asked him of his wife; and he said, She is my sister: for he feared to say, She is my wife—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니라.” 그는 물론 편의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가 사실대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녀를 취해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러한 피신처들을 모두 찾아내서 파괴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2. 거짓말이 폭로되다(26:8-11)

하나님께서 이삭이 스스로 거짓말을 포기할 것인지를 보시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동안, 그 거짓말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이삭은 거짓말하며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거짓말이 즉시 탄로 날 정도로 행동에 주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짓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이 지속되려면 인생 전체가 그 거짓말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이삭

-
1. Mark Twain은 거짓말에 대해 재미있는 글을 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처음 거짓말 한 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가 내가 태어난 지 9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기저귀 편이 나를 짜름을 알고는 평소대로 그런 상황을 나타내자, 사랑스럽게 토닥여주고 얼러주고 아주 마음에 들게 안쓰러워해주면서 끼니 사이에 간식까지 주었다. 이런 호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은 자신도 잊고서 꼬리가 잡혀, 그가 속이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이 덮쳤습니다.

우리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기만은 우리의 존재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¹ 그렇지만 새로운 태어남은 혼에 진리를 심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이시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시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4:17).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짓말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삭의 거짓말을 맹공격하고, 그 거짓말로 그를 휘갈겼는데, 그렇게 함은 마땅했습니다. 그는 “Your lie was *unfair*—너의 거짓말은 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26:10). “당신 아내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당신은 우리 모두를 유혹에 노출시켰소. 당신의 거짓말은 당신을 보호하겠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요.” 거짓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탄이야말로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거짓은 그의 언어의 기본적인 표현양식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자신의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거짓말도 다 사악하며 하나님의 성령께는 슬픔입니다.

“너의 거짓말은 부당하다”라고 분노한 왕은 말했습니다. “Moreover it was *unnecessary*—더욱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소”

인간의 본성이고, 나는 그것에 빠져들었다. 나는 편이 나를 찌르지 않아도 편에 찢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도 그랬고, 누구든 그랬을 것이다. 나는 이 유혹에 굴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를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조지(George)까지도 그렇다” Mark Twain, *The Three R's* (New York: Bobbs-Merrill, 1973), p. 211.

(26:11).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He that toucheth this man or his wif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삭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상한 존재입니까. 이삭은 이교도 왕의 말에 의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은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믿음으로 무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C. 이삭의 재산(26:12-16)

이야기는 이제 좀더 즐거운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삭이 부자였음을 설명해 줍니다(26:12-14a).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번창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로 비옥한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백 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백 배라 하면 투자한 것의 일만 퍼센트가 됩니다. 소를 키웠습니까? 그의 가축 떼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he man waxed great, and went forward, and grew until he became very great—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그가 자신의 거짓된 상황을 포기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이 뚜렷하고 풍성한 방법으로 그에게 임하여 그의 재산이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And the Philistines envied him. For all the wells which his father’s servants had digged in the days of Abraham his father, the Philistines had stopped them [filled them with earth], and filled them with earth. And Abimelech said unto Isaac, Go from us; for thou art much mightier than we—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니, 그의 아비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

을 블레셋인들이 틀어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하니라.”

구약성경의 예표론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계통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 땅을 소유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에 의한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들어왔고, 그들이 속해있지 않는 곳에 정착했으며, 거기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의 대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공언하는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거기에서 자유주의자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에 반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골칫거리로 남아있었으며, 결국 다윗 때에 와서야 그들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을 선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막아버린 우물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우물들은 생명과 원기회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우물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인간의 혼을 위해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의 우물에 있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osoever drinketh of this water shall thirst again: but whosoever drinketh of…the water that I shall give him [it] shall b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into everlasting life—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 안

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내는 우물이 되어 영원히 살도록 하리라”(요한복음 4:13-14). 아브라함은 그의 우물을 파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악의를 갖고, 고의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그 물을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이 물을 갖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슬며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시기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 상징되는 모든 것에 반대하고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목마른 땅에 우물을 제공하는 그들의 너그러운 사역에서 그들의 원수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삭의 영향력과 세력에 분개하면서 그에게 그 땅에서 아예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D. 이삭의 우물(26:17-22)

1. 이삭이 회복한 것(26:17-18)

시선은 이제 이삭 자신이 그 가물고 목마른 땅에서 파놓은 우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먼저 이삭이 회복한 것을 주목합니다. “And Isaac digged again the wells of water, which they had digged in the days of Abraham his father;…and he called their names after the names by which his father had called them—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26:18). 성경 시대의 동방의 땅에서는 모든 광야의 땅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그 땅을 개간하고 관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우물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공인된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관 우물을 막고 파괴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이었으며, 물이 귀한 땅에서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토권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행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배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일찍이 그 땅에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창세기 21:22-34). 그렇다고 그러한 협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서약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위 “하나님의 땅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영적 경험으로 설명하면, 이삭의 행동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 한때 교회가 누렸지만 전통,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로 슬며시 들어온 자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 묻혀버린 그 진실의 재발견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한때 누렸지만 거짓된 가르침으로 오랫동안 묻혀버렸거나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잊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재발견함으로써 즐거워하듯이, 이삭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관 우물들을 다시 발견하는 데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2. 이삭이 깨달은 것(26:19-22)

그는 더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팔 수 있는 우물이 더 많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뿐만 아니라 더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진리를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령께서 진리를 직접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밝히시게 함은 더 값진 일입니다. 이삭은 대단한 전투를 치르지 않았고, 굳건한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고, 웅장한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의 인생의 바로 그 단계에서, 달리 말하면,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의 자취를 뒤에 남겼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야기의 바로 이 부분에서 것처럼 애뜻하게 오래 머무르시는 것으로 보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의 4천 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가나안 땅 한 구석에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우물 세 개를 판 것이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기록하시고 또 그 이름들을 영원히 기록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영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판 세 개의 우물들은 그 이름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우물들의 이름은 영적 진실을 내포하고 있기에 중요하지만, 또한 이삭의 작업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진정으로 믿는 자의 노력에 대한 구원 받지 못한 교회의 구성원들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섹이라고 불렀는데, 언쟁을 상징합니다. “And Isaac’s servants digged in the valley, and found there a well of springing water. And the herdmen of Gerar did strive with Isaac’s herdmen, saying, The water is ours: and he called the name of the well Esek; because they strove with him—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말하기를,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니라”

(26:19-20). 이삭은 다툼을 싫어했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평화신봉자라도 싫든 좋든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때를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핵심적인 진리는 교회 안의 “블레셋” 계층에 의해 맹렬하게 공격받아 왔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옛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자유주의자, 실존주의자, 의식주의자, 광신자(cultist), 교회제도권의 지도자 계층(ecclesiastical establishment)이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삭들의 것이며, 세속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물은 시나입니다. 에섹이 언쟁을 대표한다면, 이 우물은 경멸을 나타냅니다. “And they digged another well, and strove for that also: and he called the name of it Sitnah—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로 인하여 또한 다투었음으로, 그가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더라”(26:21). 그 단어는 “증오”를 의미하며, “상대 적수가 되어 숨어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도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person)과 일과 관련된 진리에 대한 모든 반대의 궁극적 원천은 사탄 자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것들을 향한 경멸과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하시는 모든 것에 격렬한 질투심, 적대감, 그리고 분노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르호봇입니다. “And he removed from thence, and digged another well; and for that they strove not: and he called the name of it Rehoboth; and he said, For now the LORD hath made room for us, and we shall be fruitful in the land—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동하여 다른 우물을 팠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터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니라”(26:22). 그 우물의 이름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의 기본적인 무관심을 상징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이삭을 무시하였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작자, 계속 파라고 해! 어차피 얼마 있으면 우리가 그의 우물을 빼앗을 텐데.” 그들의 태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만족케 하는 또 다른 원천, 즉 다른 우물의 물을 찾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 냉소적으로 어깨를 으쓱거리듯이 그의 면전에서 하품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 대다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E. 이삭의 예배(26:23-25)

1. 중요한 계시(26:23-24)

이삭의 우물 파는 것과 관련한 일은 자연스럽게 경배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은 무엇이든(any occupation with Christ)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이 그와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삭에게 중요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과의 거래와 연관된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맹세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아브라함과 상관하지 않기로 아브라함과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갖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다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곳에 자리 잡았으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인격(person)에 대해(“나는 네 아버지

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보호(protection)에 대해(“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재(presence)에 대해(“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promise)에 대해(“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보다 더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2. 즉각적인 반응(26:25)

이삭에게 나타난 그 중요한 계시에 대해 이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And he builded an altar there,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pitched his tent there: and there Isaac’s servants digged a well—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26:25). 이삭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spontaneous worship)로 응답했습니다. 즉 여호와께 그의 마음,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spoken word)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감동케 한 진리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물을 팠으로써 구체적인 일(specific work)로 반응했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추상적인 몽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완수하여 결과를 드러냅니다. 또 다른 우물! 이것은 가물고 메마른 땅, 원수의 땅에서 또 하나의 복의 지표(landmark)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오래 전 이미 자기의 상급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었던 것에 더 보태고 있었습니다.

F. 이삭이 받은 증거(26: 26-33)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접근해 오고 있음을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26:26-27). 그때(이삭이 하나님과 만난 직후, 그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왕과 그의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 등 무리를 지어 왔습니다. “And Isaac said unto them, Wherefore come ye to me, seeing ye hate me, and have sent me away from you?-이삭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거늘,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고 하니라.” 세상이 이런 식으로 믿는 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면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삭은 자신이 매우 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부터 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의 보호 아래 강한 위치에 있음을 안 이삭은 백 명의 왕, 천 명의 군대장관이 온다고 해도 한 치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호소합니다(26:28-29). 방문자들은 주저 없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We saw certainly that the LORD was with thee: and we said, Let there be now an oath betwixt us, even betwixt us and thee, and let us make a covenant with thee; that thou wilt do us no hurt, as we have not touched thee, and as we have done unto thee nothing but good, and have sent thee away in peace: thou art now the blessed of the LORD—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도록 하자고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보냈음이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사람들의 몰염치한 뻔뻔스러움이란! 그들은 이삭에게서 면면이 훑치고 적대하면서 그를 꺾박하고, 강탈하고는 그에게 오로지 선만 베풀었다고 시치미 떼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기 행위에 대한 감정(鑑定)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이삭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에게 입 발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회책으로 나옵니다(26:30-33).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교제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And Isaac sent them away, and they departed in peace—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다시 한 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일관된 특징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봅니다. “And it came to pass the same day, that Isaac’s servants came, and told him concerning the well which they had digged, and said unto him, We have found water. And he called it Shebah: therefore the name of the city is Beer-sheba unto this day—바로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니라. 그가 그것을 세바라 부르더라.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 경건치 않은 자들과의 무의미한 화평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믿지 않는 자들로 스스로 떠나도록 하자마자, 이삭은 다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의 새로운 원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믿지 않는 자들도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싶은 만큼이나 기꺼운 마음으로 이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시며, 주님의 복이 그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한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스스로 머물러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도 이삭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갖지 않았습다.

G. 이삭의 근심(26:34-35)

그러는 중에 이삭의 가정에서는 에서가 성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성한 것에 너무 익숙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마흔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로 결심했는데, 아내를 선택하는 일로 그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And Esau…took to wife Judith the daughter of Beeri the Hittite, and Bashemath the daughter of Elon the Hittite: which were a grief of mind unto Isaac and to Rebekah—그리고 에서가…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이 두 이교도의 매력적인 여인들(charmers)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실 때에 더 자세히 언급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에서가 아내를 택한 방법에서, 그가 얼마나 멀리 타락한 영원을 향한 대로(大路, highway)로 이미 내려가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듯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완벽하지 않았습다. 그들도 실수를 저질렀습다. 자식을 편애했고, 넘어지고 실수하였으며,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그들 모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깔려 있었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세상에서의 이삭의 증거는 인상적이었습다.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은 자라서 구약성경의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

대한 성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라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탄은 달리 공격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가족을 통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III. 이삭과 그의 복(27:1-46)

에서는 죽 한 그릇에 판 것을 사슴고기 요리 한 접시로 되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27장은 창세기에서는 가장 슬픈 장(章)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삭을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뛰어난 모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뒷걸음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는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비추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비출 수도 있다는 것이 슬픈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심지어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가면서 그곳이 믿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이 그와 같다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않은 가정도 그 서글픈 날의 이삭의 가족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스럽지 못한 행위는 거의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은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경고가 되고 꾸지람이 됩니다.

A. 영적이지 못한 아버지(27:1-4)

창세기 27장에서 전개된 상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

니다. 근원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을 선택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심각한 편애가 심은 씨앗은 이제 활짝 꽃 피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수 년 동안 가정 안에서는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쌓였던 분노와 경쟁은 그때까지도 그럭저럭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몸소 온 세상을 초대하여 보도록 정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사 전체가 밖으로 끄집어내져 공개되고, 글로 쓰이고, 책으로 인쇄되고, 지금까지 인쇄된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판본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하루의 사건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위해서 인쇄되고 읽히고, 토론되고, 설교되고, 주석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삭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가능하다면 그 날만큼은 새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루를 다시 살지 못합니다. 일단 기록되면 끝입니다.

이야기는 이 가정의 가부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죽음 앞에서 순종했을 때의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은 사람을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물을 팠을 때에도 축복과 생기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는 이제 슬프게도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이삭의 염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that when Isaac was old, and his eyes were dim, so that he could not see, he called Esau his eldest son, and said unto him, My son: and he said unto him, Behold, here am I. And he said, Behold now, I am old, I know not the day of my death—그리고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하므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하니,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내 죽을 날을 모르니”(27:1-2). 이삭은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의 의붓 형 이스마엘이 그 나이에 죽었기에 그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43년이나 더 살았고 (35:28), 연수를 딱 채워 180세에 죽었습니다.

여전히 이삭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였으며, 자기의 유언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것은 가부장으로서의 복, 즉 재산권만 아니라 조상으로서의 권리, 다가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는 권리였습니다. 그 특별한 복은 가볍게 물려줄 것이 아니었으며 그 가부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뜻과 의지에 따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려고 했던 일은 옳았지만, 그가 편애하는, 그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복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복은 야곱을 위한 것이었지 에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일들을 수행(exercise)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영적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거룩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영구히 모셔놓기를 원한 것은 옳았지만, 그 궤를 수레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것은 옳았지만, 애굽인을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 사울이 운명의 길보아 전투에 대해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한 것은 옳았지만, 그토록 뒤늦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얻기 위해 신접한 여인들을 의지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한 영적 임무(spiritual exercise)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망쳐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삭의 육신적인 점에 대해 듣습니다. “Now therefore take, I pray thee, thy weapons, thy quiver and thy bow, and go out to the field, and take me some venison; and make me savoury meat, such as I love, and bring it to me, that I may eat; that my soul may bless thee before I die—그러므로 이제 원컨대 무기들, 즉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27:3-4). 이 점에 대해 가장 훌륭한 주석을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For they that are after the flesh do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ey that are after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For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Because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either indeed can be. So then they that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로마서 8:5-8). 이 원칙이 어떻게 이삭의 삶에서 전개되는

-
2. 성경을 통해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들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혼인하는 것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아와 서약한 것에서, 사울이 아각과 그의 가축들을 살려둔 것에서, 솔로몬의 정치적인 혼인들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스로 도망한 것에서, 베드로가 갈보리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결정에 반대한 것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의 일부를 숨겨둔 것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 봅시다.

먼저 우리는 이삭이 그 육신적인 생각에서 완고한 저항(stubborn enmity)을 드러냄을 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원수가 되나니.” 이삭은 그 자신의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는 복이 야곱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은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자(에서)가 어린 자(야곱)를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삭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²

그 다음에 이삭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감각적인 행동(sensual exercise)을 드러냄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것은 에서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그가 만든 사슴고기요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부추긴 것은 육신과 감각의 일이었으며, 그것이 이제 가부장으로서의 복을 영똥한 사람에게 내리도록 결정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Make me savoury meat such as I love…that I may eat, that my soul may bless thee—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가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영적 복이 육신의 정력 속에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을 눈으로 꼭 읽어보십시오. 별미가 여섯 번, 사냥 또는 사냥한 고기가 일곱 번, 먹는다는 말이 여덟 번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과 삶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너무나 명료한 성경의 명령들과 씨름하려고 하는가.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필요와 원함, 선입견,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신학적인 개념과 엇갈리기 때문이다.

에 육신적인 욕구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십 번이 넘게 그의 육신적인 욕망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일은 제대로 하였지만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 복종하지 않는 아내(27:5-10)

알렉산더 화이트(Alexander Whyte)는 리브가에 대해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 모든 용기, 그리고 언약의 혈통에 속하려는 야망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여자에게서 최고의 것, 즉 언약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가져야 할 여성적 감성, 부드러움, 조용함, 겸손, 자기 복종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리브가를 염두에 두고 “And the wife see that she reverence her husband—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남편에게 공경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어느 날 깨어나고 집스럽고 천박하며 무식한 작자, 아니면 게을러빠진 한량, 아니면 겉모습은 남자지만 자기 배나 돈, 또는 미천하고 불쌍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글썄요, 그녀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여인인 동시에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 신약성경에서 요구하는 아내가 될 것인지는 그녀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녀로 하여금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아직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십시오.³

리브가는 사랑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Let the wife reverence her husband—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공경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성경은 또한 “Husbands, love your wives as your own bodies—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지만(24:67), 이제 그에게는 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Make me savoury meat such as I love—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리브가는 생각이 밝고 실질적이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현실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창세기 24장에서 그녀가 기질적으로 현실성, 결단력, 로맨스를 결합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차분하고 온순하며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더 영향력 있는 자신의 가족, 친구들의 그늘에 영구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보태진 것은 그가 나이가 들면서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남자와 결혼하게 된 현실적이고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진지한 교훈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남편을 쥐고 흔들면서 못살게 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더욱 남성화되고, 남자는 더욱 여성화됩니다. 남편이 한때 갖고 있었을 기개를 빼앗기보다 남편에게 힘을 주는 것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여자가 진정으로 강한 여자입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는 복종하지 못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저 아래쪽 그랄에서 그녀를 부인(否認)했을 때, 이미 리브가로부터 존경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애석함

3. Alexander Whyte, *Bible Characters, The Old Testament* (London: Oliphants, 1952), 1:109–10.

니다. 사라는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당했을 때에도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그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라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베드로전서 3:6). 리브가는 이러한 여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사라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기에, 개인적인 쓰라린 경험을 통해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리브가의 결정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And Rebekah heard when Isaac spake to Esau his son—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들으니라”(27:5-7). 그녀는 즉각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을 불러 자기가 방금 얻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야곱에게 갈 것이라고 맹세하셨으니, 그녀는 의심의 여지없이 “성경”이 자기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놀랍게도 우리는 제멋대로 원하는 것을 지지하는 구절을 찾는 데 숙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요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리한 작은 계략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모아 담아주셨듯이, 에서가 사슴고기를 찾지 못하도록 주변 몇 킬로미터에 걸친 숲과 들에서 모든 사슴을 쫓아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이삭이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아주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나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속임수가 따릅니다. “이제 가라”고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Go now to the flock, and fetch me from thence two good kids of the goats; and I will make them savoury meat for thy father, such as he loveth. And thou shalt bring it to

thy father, that he may eat, and that he may bless thee before his death—지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라.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들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27:8-10). 소금 한 줌 넣고, 후추 좀 뿌리고, 세이지 허브도 조금, 아마도 크고 좋은 마늘 한 쪽, 그러고는 양파즙을 넣고 완벽한 수준으로 푹 삶아 끓입니다. 그 다음에 민트 잔가지와 매운 소스를 얹으면 누가 염소고기와 사슴고기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삭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 계속 이삭이 그의 감각에 속고 있음을 봅니다. 그의 시각이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후각도 그를 속였습니다. 옷에서 나는 흠냄새를 맡고 야곱을 예서로 착각했습니다. 그의 미각도 그를 속였습니다. 그는 염소고기가 사슴고기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촉각도 그를 속였습니다. 염소 가죽털이 예서의 털 복숭이 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청각은 진실을 들려주었지만,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며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계획적으로 남편을 속이려는 아내의 슬픈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녀는 결국 그 대가를 치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러한 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사랑하는 야곱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밧단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며칠 동안만”이라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 “며칠”은 1년으로, 다시 7년, 14년, 20년으로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크고 건장한 손자들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야곱에 대한 마디 소식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죄인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C. 몰염치한 형제(27:11-33)

야곱은 자기 자신의 교활한 방법으로 천상의 것에 그의 애착을 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야곱의 삶의 과정에서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원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양심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의 길잡이 별이었습니다.

1. 야곱의 의심받을 만한 행동(27:11-27)

우선, 우리의 관심이 그의 두려움에 쏠립니다. 그는 자신이 에서의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어 자기 머리에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I am a smooth man—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라고 그가 말합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I shall seem to him as a deceiver—나는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니”라고 그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실상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니다. 속이는 자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의적인 기만행위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일 작정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의 거짓됨에 쏠립니다(27:14-17). 에서가 일할 때의 옷을 입고 손과 팔에는 거친 염소 털로 감싸고, 손에는 양념을 듬뿍 넣어 만든 군침당기는 염소고기 그릇을 들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쟁이었습니다. “Who art thou?—네가 누구냐?” 하고 눈이 먼 아버지가 묻습니다. “I am Esau(lie number one),

thy firstborn [lie number two]; I have done according as thou badest me [lie number there]: arise, I pray thee, sit and eat of my venison [lie number four], that thy soul may bless me—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첫 번째 거짓말], 예서로소이다[두 번째 거짓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세 번째 거짓말],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네 번째 거짓말],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한 숨에 네 가지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And Isaac said unto his son, How is it thou hast found it so quickly, my son? And he said, Because the LORD thy God brought it to me[lie number five]—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것처럼 빨리 찾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 주셨나이다 하니라[다섯 번째 거짓말].” 이번에는 자기의 속임수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불쌍한 늙은 이삭은 그래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딱 꼬집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합니다. 야곱의 냄새를 맡아보기 위해 그를 가까이 부릅니다. “The voice is Jacob’s voice—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이삭은 주저하며 말합니다. “but the hands are the hands of Esau—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서 이삭은 육신적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촉감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설득당하여 일어나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고는 배부르고 만족하여 자신의 가부장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2. 야곱이 훔친 복(27:28-33)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복이었습니까. 성령께서는 먼저 그 복의 내용을 기록하십니다(27:28-29). 그 복은 야곱에게 무한한 번영과 권

세, 기름진 땅, 열국에 대한 통치권, 그의 형제에 대한 지배권, 하나님의 보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케 하고 거기에 슬픔을 더하지 않은 주님의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의 확증을 듣습니다(27:30-33). 뒤로 기대어 배부른 상태에 만족스럽고 자기 일을 잘 처리한 것에 흡족해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앞서 에서에게 그의 복을 내린 것에 기분 좋아하는 이 노신사를 남겨놓고, 야곱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급히 나왔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장막의 문이 다시 위로 열립니다. 이삭은 곳곳이 앉습니다. 그 활기찬 목소리를 잘못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Let my father arise, and eat of his son’s venison, that thy soul may bless me—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에서가 전혀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는 것을 받으려 온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Isaac trembled very exceedingly—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스코필드 성경의 여백(margin)에는 그것을 “그가 대단한 떨림으로,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 허약한 노구(老軀)의 마디마디가 떨렸으며, 그가 앉았던 의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히 육체적 허약함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영적 무기력 상태로부터 오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갑자기 영적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 즉 육신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던 자신의 주제넘음과 방자함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순히 번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깊은 속까지 떨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이름을 더듬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Who? Where is he that hath taken venison, and brought it to me, and I have blessed him?—누구나? 사냥한 고기를 갖고 내게 가

져와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축복하였던 그는 어디 있느냐?” 그러고는 충만하게 밀려 올라오는 성령으로 인한 확신에서 한 마디 더합니다. “Yea, and he shall be blessed—참으로,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D. 구원받지 못한 아들(27:34-46)

에서는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부르는 자와 흥정하여 값을 깎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서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을 조금 실망시켜 왔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받지 못한 아들에 대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선, 우리는 에서의 간절한 회한을 듣습니다(27:34-35). “He cried with a great and exceeding bitter cry…Bless me, even me also, O my father—에서가 소리 내어 울며…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 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신약성경은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육신적 기대에 실망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심했던 것이었습니다.

1874년 4월 18일 토요일, 영국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영국의 영웅 한 명이 죽어, 국가 성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기 위한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역사에 이름이 새겨질 만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의 탐험가 스탠리(H. M. Stanely)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간잡지 펀치(Punch)는 한 페이지

지를 할애하여 리빙스톤의 비명을 실었습니다.

사원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라
 왕과 정치인, 족장과 현인과 함께 고이 잠들도록
 선교사여, 방직공의 아들이나
 위대한 업적은 더 낮은 보상을 용납하지 않도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 어딘가에 한 누더기 꼴의 더러운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 여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의 행렬이 지나가다가 그 행렬이 지나는 길에 줄지어 있던 무리에서 우연히 떼밀려 나온 것처럼 보이는 부랑자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와 나, 우리는 단짝이었소. 우리는 학교도 같이 다녔소. 우리는 셔틀 로우(Shuttle Row)의 학교 사택에 같이 지냈소. 그러나 데이비는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소. 이제 세상 전체는 그를 존경하는데, 누가 나에게 동전 반 푼이라도 주시오.” 그 무명의 거지는 세상의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물리기에 늦었습니다. 에서는 손을 짝 움켜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후회할지라도 더 이상 복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축을 기준으로 지구를 거꾸로 돌게 하거나, 태양을 따라 거꾸로 돌게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더 나아가 에서의 마음속 깊이 맺힌 분노를 봅시다(27:36-37) “Is he not rightly named Jacob?—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He hath supplanted me these two times—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의 분노는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야곱의 방법은 떼땀하지 못하고 비열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신 마당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자진해서 팔

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설득하긴 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우습게 취급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었으니, 화를 내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성가시게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27:38-40). “And Esau said unto his father, Hast thou but one blessing, my father? bless me, even me also, O my father. And Esau lifted up his voice, and wept—그러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단지 한 가지 축복 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또한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 우니라.” 이삭은 에서를 위해 빌 복을 찾았는데, 부(富)와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잘 살 것이고, 이름을 날릴 것이며, 자기의 목에서 야곱의 멍에를 떼어 낼 것입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고작 그제 전부였습니다.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에서의 충동적인 결심을 봅니다(27:41-46). “And Esau hated Jacob…and Esau said…The days of mourning for my father are at hand; then will I slay my brother Jacob—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에서가 말하기를…내 아버지로 인해 곡(哭)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고기로 얻지 못한 것을 살인으로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슴고기로 복을 사지 못했다면 폭력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면 에서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결심을 누군가가 듣고 리브가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자신의 편애하는 아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Now therefore, my son, obey my voice—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도록 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불쌍한 리브가는 여전히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올 고통스럽고 공허한 수년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내심을 갖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제7장
번식자 : 야곱
(28:1~35:29)

I.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는 방식(28:1-22)

- A. 야곱의 출발(28:1-9)
 - 1. 매우 중요한 일(28:1-9)
 - 2. 즉각적인 영향(28:5-9)
- B. 야곱의 꿈(28:10-17)
 - 1. 먼 나라(28:10-11)
 - 2. 새로운 언약(28:12-15)
 - 3. 확고한 확신(28:16-17)
- C. 야곱의 결단(28:18-22)

II.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종시키시는 방식(29:1~30:43)

- A. 밧단아람에 도착한 야곱(29:1-12)
 - 1. 우물에 다다름(29:1-3)
 - 2. 우물가에서의 자신감(29:4-8)
 - 3. 우물가에서의 승리(29:9-12)
- B. 밧단아람에서의 야곱의 계획(29:13~30:43)
 - 1. 야곱의 아내들의 갈등(29:13~30:24)
 - 2. 품삯의 문제(30:25-43)

III.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중단시키셨는가(31:1~32:32)

- A. 어떻게 옛 목표가 도전받았는가(31:1-16)
 - 1. 야곱의 근본적인 걱정(31:1-3)

2. 야곱의 가족회의(31:4-9)
 3. 야곱의 신앙고백(31:10-13)
 4. 야곱의 마지막 의뢰(31:14-16)
- B. 어떻게 옛 신들은 도전받았는가(31:17-35)
1. 라반이 가르친 것(31:17-21)
 2. 라반의 생각(31:22-30)
 3. 라반의 추구(31:31-35)
- C. 어떻게 오래된 원한들은 도전받았는가(31:36-55)
1. 야곱의 의로운 분개(31:36-42)
 2. 야곱의 종교적 간구(31:43-55)
- D. 어떻게 오래된 죄는 도전받았는가(32:1-32)
1. 하나님께 받은 야곱의 확증(32:1-2)
 2.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혼동(32:3-23)
 3. 야곱의 하나님과의 대면(32:24-32)

IV.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분리시키셨는가(33:1~34:31)

- A. 야곱과 그의 형(33:1-16)
1.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찾았는가(33:1-3)
 2.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는가(33:4-7)
 3. 어떻게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었는가(33:8-11)
 4.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두렵게 했었는가(33:12-16)
- B. 야곱과 그의 타락(33:17~34:31)
1. 순례자로서의 야곱의 실패(33:17-20)
 2. 부모로서의 야곱의 실패(34:1-31)

V.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화시키셨는가(35:1-29)

- A. 믿는 자로서의 야곱(35:1-15)
1. 야곱의 영적 생명력을 새롭게 하심(35:1-4)

2. 야곱의 영적 승리를 새롭게 하심(35:5)

3. 야곱의 영적 진실성을 새롭게 하심(35:6-15)

B. 상(喪) 당한 야곱(36:16-29)

1.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야곱(35:16-26)

2. 자신의 아버지와 사별한 야곱(35:16-26)

제7장 번식자 : 야곱

I.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는 방식(28:1-22)

우리가 야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이며 납득할 만한 인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다음 여덟 장은 바로 이 위대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28장), 복종시키시고(29장), 구별하시고(33-34장), 성화시키시심(35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실제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에서 20년 또는 30년이란 세월에 걸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을 다루시는 데에 서두르시거나 시간을 절약하시려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걸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A. 야곱의 출발(28:1-9)

앞 못 보는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형 에서를 사취(詐取)하고 난 후에, 야곱은 더 이상 집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나면, 너도 내가 장사지내리라.”

1. 매우 중요한 일(28:1-9)

우선 야곱은 밤의 어둠속으로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만큼 충분히 인상적인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늙은 이삭

은 지금 막 벌어진 사건들로 드러난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에 놀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적 상태에서 야곱을 불러 장래에 관해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했는데, 하나는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배우자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영역에서의 결정은 남자의 인생에서 평생 그리고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이 두 영역 중의 어느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당부는 야곱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nd Isaac called Jacob, and blessed him, and charged him, and said unto him, Thou shalt not take a wife of the daughters of Canaan. Arise, go to Padan-aram—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라” (28:1-2). 야곱은 결코 이방여인과 혼인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외조부의 집에는 틀림없이 아직까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간증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아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나안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 야곱은 가나안 여자들과 어떤 관계로든 얽히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서는 이미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지만, 야곱은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인 베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에 보인 반응에서, 그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신중히 들은 후에 베두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The thing proceedeth from the LORD—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24:50). 이삭은 그의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You have my

blessing, You have my blessing, Jacob, but you are not to marry a pagan—너는 나의 축복을 받았으니, 야곱아, 너는 이교도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worship)와 언젠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부모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깨달음과 영감을 주시는 성령께서 그의 위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야곱 앞에 그가 다산하여 살게 되리라는 사실(28:3)과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대한 믿음(24:4a)과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28:4b)를 펼쳐보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강박하고, 까다롭고, 고집 센 아이에게 원했던 것은 모든 영적인 아버지가 그의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믿는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 즉각적인 영향(28:5-9)

야곱은 짐을 싸고, 작별을 고하고,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즉각적인 충격은 예상치 못한 국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낸은 에서가 계획하는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머물고 있어서 에서는 그에게 해를 조금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낸은 가나안의 여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거부한 이유였구나. 내가 믿는 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셨구나. 그는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결심했습니다. “Then went Esau unto Ishmael, and took unto the wives which he had

Mahalath the daughter of Ishmael Abraham's son, the sister of Nebajoth, to be his wife—그러자 예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가 거느린 아내들에 더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로 취하더라”(28:9). 그거야! 그러면 되겠어! 드디어 야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는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되돌이킬 수 있고 야곱에게 주었던 복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의 논리입니다. 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외적인 모양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표면에 종교적인 겉치레를 살짝 덧칠한 것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서가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B. 야곱의 꿈(28:10-17)

야곱의 인생의 단계에서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영적 실체들에 대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1. 먼 나라(28:10-11)

“And Jacob went out from Beer-sheba, and went toward

Haran. And he lighted upon a certain place, and tarried there all night, because the sun was set; and he took of the stones of that place, and put them for his pillows, and lay down in that place to sleep—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가 어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 거기서 밤새 묵으려고, 그곳의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니라.” 그는 하루나 이틀 길을 갔고, 지치고 근심되고 낙심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의 협박이 아직도 그의 귓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그에게 가라고 했던 곳을 가고 있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회개나 후회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을 지새울 만한 적당한 곳을 찾았고, 베개로 삼을 만한 매끈한 돌도 구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고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실에 대한 “청구서”에 첫 번째 할부금을 지불하는 구약의 탕자였습니다.

2. 새로운 언약(28:12-15)

하나님께서서는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방탕한 자녀들이 헤매는 것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야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잠자리를 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야곱의 잠자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야곱의 꿈속으로 들이닥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날 밤 야곱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28:12). “And he dreamed, and behold a ladder set up on the earth, and the top of it reached to heaven—그런데 그가 꿈을 꾸니, 보라, 사다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한번은 어떤 젊은 사람이 여자 친구에게 “나 어제 네 꿈 봤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그 꿈에 대해 전부 알

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너에게 청혼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 네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가 더 현명하다는 뜻이지!”

그 날 밤 야곱은 그가 깨어 있던 어떤 날보다 잠들어 있을 때가 지혜로웠습니다. 바로 그 날 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곧 야곱 자신의 하나님도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며, 그곳은 실존할 뿐만 아니라 다다를 수 있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수세기들이 지난 후에, 주 예수께서는 나다나엘과의 대화중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가 자신이 심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 하늘과 땅 사이의 헤아릴 수도 없이 먼 간격을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날 밤 야곱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에 주목합니다(28:13-15). 야곱은 환상 중에 주님과 그 땅과 그의 일생에 관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처음 언약의 재확인이었고, 이삭에게 다시 확인되었으며, 이제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직접 이어지는 선택된 계보라는 확신 가운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3. 확고한 확신(28:16-17)

“And Jacob awaked out of his sleep, and he sai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knew it not. And he was afraid, and said, How dreadful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but the house of God, and this is the gate of heaven—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주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니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야곱은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C. 야곱의 결단(28:18-22)

이 장을 끝맺는 절(節)들은 변화된 사람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야곱의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 중의 일부는 그의 영적인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은 그의 마음속에 생긴 영적인 삶의 새로운 차원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rose up early in the morning—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28:18a). 새로운 삶이 그의 영혼 속에서 고동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울리는 환희의 벨소리와 아침햇살을 맞으며 잠자리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위로 하늘은 더 푸르렀고 사방으로 땅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띠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단호하게 행한 것을 봅시다(28:18b-19). 그는 베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그 돌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벤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the name of that city was called Luz at

the first—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루스였더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루스라는 이름은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사악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에게 일어난 일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항상 좋은 징조가 됩니다.

끝으로 그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공급,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인정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했습니다(28:20-22). 그가 서원한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첫 서원입니다.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킬 것을 믿읍시다! “And Jacob vowed a vow, saying, If God will be with me [or, better, ‘since God will be with me’; he is not using the language of uncertainty but of assurance] and will keep me in this way that I go, and will give me bread to eat, and raiment to put on, so that I come again to my father’s house in peace; then shall the LORD be my God—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since)’가 나온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마음속의 회심을 말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f God will be with me…then shall the LORD be my God; and this stone, which I have set for a pillar, shall be God’s house: and of all that thou shalt give me I will surely give the tenth unto thee—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

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은 야곱의 회심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껏 그의 마음을 지배해 온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구약의 삭개오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으며, 즉시 드림으로써 자신의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누가복음 19:1-10). “This day is salvation come to this house—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드림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회심에 대한 첫 감격으로 두 가지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주께 약속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전(殿)을 잊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뭇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출발이었습니다.

II.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종시키시는 방식(29:1~30:43)

야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가 복종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복종하는 과정은 야곱의 인생에서 앞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아무리 기초적인 진리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더디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종시키시는 이야기는 밧단아람에 도착하고 타협하고 붙들리는 데 이르기까지 전개됩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게 된 사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밧단아람에서 야곱은 스스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즉 결혼 문제와 돈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여기서 살펴볼 것입니다.

A. 밧단아람에 도착한 야곱(29:1-12)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후에, 야곱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야곱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1. 우물에 다다름(29:1-3)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다음에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새로 태어난 순례자에게 어울리는 생생한 묘사입니까? 미친 듯이 달려서로부터 얼마간의 거리를 두게 되자,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가로막혔고, 앞에는 알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있고, 뒤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형이 버티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무거운 생각들로 짓눌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행보에는 새로운 봄이 왔고, 가슴에는 새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치켜들고 힘차게 걸었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성큼성큼 걷는 사이 순식간에 몇 마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광대한 450마일(720킬로미터)의 활모양을 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북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150여 년 전에 옛 순례자들이 왔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로 그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몇몇 양떼들이 누워 있고 목자들이 무리지어 그들에 축 늘어진 흔히 볼 수 있는 길가의 우물이 그의 앞에 보였습니다. 그 목자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카드에서 보는 유순하고 멋진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늑대와 사자 혹은 강도들과 맞설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그을린 피부에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른 사납게 생긴 자들이었

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적대감이 교차하는 시선으로 다가오는 낯선 자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우물가로 갔습니다.

2. 우물가에서의 자신감(29:4-8)

야곱은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낯선 자들에게 수줍어하지 않았습다. 그 자신도 목자였고, 그들만큼이나 거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열등감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My brethren, whence be ye?—형제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란에서”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투”로 짧고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벧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란에서 그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껏 야곱은 항상 큰 사람이었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아들이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많은 종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외톨이이며 이방인이자 환영받지 못하는 낯선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굴가죽이 얇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Know ye Laban?—당신들은 라반을 아시오?” 라고 그가 묻자 “We know him!—우리는 그를 알고 있소” 라고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도 그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루면서 말입니다. 만약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가 라반 삼촌에 대해 묘사하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스크루지(Ebenezer Scrooge)를 설명했을 때와 똑같은 말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라반 삼촌은 “취

어짜고, 비꼬고, 달려들고, 흠치고, 움켜쥐고, 탐욕스런 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돌같이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생굴처럼 속을 알 수 없는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냉기로 그 늙은 용모는 굳어 뾰족한 코가 얼어붙었고, 뺨을 주글주글했으며, 걸음걸이는 뻗뻗했습니다.” 그것이 스크루지였고, 그것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천에서 잘라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라반을 아시오?” “우리는 그를 알고 있소!”

야곱은 주눅 들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Is he well?—그는 잘 계시오?” 그의 끈질긴 친근감이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He is well, and behold, Rachel his daughter cometh with the sheep—그는 잘 지내오. 그리고 보시오, 그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소.” 아마도 라헬은 몹시 두꺼운 베일로 가리고 있어서 야곱은 그녀를 잠시 힐끗 볼 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목자들에게 돌아서서 왜 그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았는가를 물었습니다. “Lo, it is yet high day!—보시오, 아직 한낮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은 아직 한 낮이오” 아니면 “아직도 날이 저물려면 멀었소”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해야 할 일이 있는 데에도 사람들이 왜 누워들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은 바로 그 타오르는 추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반응을 보이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다른 목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협정은 우물을 먼지로부터 보호했을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우물을 열어놓기보다 모두 모였을 때 한 번만 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합의는 귀중한 물의 공급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광경은 우리에게 인상적이고 야곱에게도 신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3. 우물가에서의 승리(29:9-12)

라헬이 도착하자 야곱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거칠게 살아가는 이런 산골벽지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예의 바른 태도로 돌을 옮겨 그의 사촌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서로 먼저 양을 먹이려고 밀쳤을 것이고 여자들은 그들이 다 끝나고서야 자신들의 힘으로 먹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야곱을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휘방하고 이 주재님은 이방인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면 그의 뛰어난 은택과 단단하게 근육진 팔이 그들을 저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라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배려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놀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때 그녀에게 그 당시의 통상적이면서 감동적인 풍습에 따라 자신을 사촌이라고 소개하자 그녀의 궁금중은 더욱 커졌습니다. "I am Rebekah's son -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요."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라헬의 마음은 흥분되었고, 그녀는 우물을 떠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낯선 자가 와서 우물에 있는데, 그가 바로 아버지의 조카라고요! 이것이 이 절에 나오는 우물가의 라헬의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밧단아람에 도착했습니다.

B. 밧단아람에서의 야곱의 계획(29:13~30:43)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우리는 야곱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결혼과 재정문제에 관해서 그분의 뜻을 물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차서 자기 일은 혼자서도 꽤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아굽의 아내들의 갈등(29:13~30:24)

a. 그의 불타는 사랑(29:13-20)

야곱의 마음에 불순물이 깔려 있었던 아니든 간에 그의 라헬을 향한 사랑만은 정금(正金)과 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가 처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타올라 죽는 날까지 결코 그에게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헬로부터 야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라반은 서둘러 조카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물론 그는 야곱이 도피자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 리 만무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전에 우물에서 그의 동생 리브가가 이와 비슷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오며 가득 들고 왔었던 귀걸이와 보석들의 광경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동양 전통에 따라 널리 알려진 붉은 양탄자를 깔고 그를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야곱은 전에 그렇게 뜨거운 입맞춤과 포옹과 소란스러움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Bone of my bone! Flesh of my flesh!—내 살 중의 살이로다!" 누가 보면 그가 야곱하고 결혼하려고 저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환대를 받아들였고, 여전히 교묘하게 그가 헤브론에서 불명예스럽게 떠난 것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하지 않은 채 편히 지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여전히 아름다운 어머니와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에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삼촌 라반은 그의 건방진 젊은 조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기에는 너무 영리했습니다. 게으름이 그의 결점 중의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

신이 삼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실로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어, 라반은 그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으라고 제의했습니다. “Because thou art my brother, shouldest thou therefore serve me for nought? Tell me, what shall thy wages be?—네가 나의 형제라고 해서, 네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게 봉사해야 하겠느냐? 무엇이 네 품삯이 될지? 내게 말하라” (29:15). 한 달도 안 되어 라반은 야곱이 오기 전에 어떻게 자기가 농장을 관리했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근면하고, 이재에 밝고, 계약을 맺는 수완이 탁월하며 가축과 양떼를 다루는 솜씨가 능숙한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젊은 친구는 약삭빠른 자라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서명하게 할 충분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간 그는 라헬과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레아도 틀림없이 준수했지만 눈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근시였거나 사시였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눈매가 부드러웠다”고 레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간에 야곱은 레아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로지 라헬만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야가 온통 라헬에게 쏠려있는 한 레아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결국 라반이 품삯에 대해 물었을 때, 야곱은 “라헬!” 이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I want Rachel. I'll serve you seven years for Rachel—라헬을 원합니다. 라헬을 위해 7년간 일하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Jacob served seven years for Rachel; and they seemed unto him but a few days, for the love he had to her—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을 봉사하였으니,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세월이 그에게는 단지 며칠 같았더라.” (29:20)

b. 첫 번째 교훈(29:21-31)

이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전개됩니다. 첫 부분은 요구입니다 (29:21-22). “And Jacob said unto Laban, Give me my wife, for my days are fulfilled—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는 내 날들이 찼나이다.” 그의 말대로 라반은 결혼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야곱, 내 아들이”라고 라반은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물론 너도 알다시피 그 예식 동안에는 신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신부는 두꺼운 베일을 쓸 것이니까. 야곱아, 결혼식은 밤에 치러질 것이고, 그 예식이 끝난 후에도 신부는 여전히 두꺼운 베일로 가리고 신방으로 물러가 있을 것이네. 자네는 축하객들을 맞이해야 하니 좀 더 머물러야 할 것이네.” 그리하여 이에 따라 결혼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발견입니다(29:23-29).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두운 신방으로 물러갔고, 첫날밤을 치른 후 다음날 아침 깨어나 자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음을 발견할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속임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신방과 라반의 응접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몹시 성난 비난에 라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이 지역에는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 있단다” (29:26). 야곱은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들을 다루시는 데에 “시적인 정의”(poetic justice : 이야기 따위에서의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도록 조치하십니다(마태복음 7:2). 이 법칙이 여기에 적용된 것을 보십시오. 라반은 매정하게 레아를 야곱에게 속여서 떠 말졌고, 그 동안 야곱은 내내 자신이 맞아드린 신부가 라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공정치 못하고 치사하고 비열했다고 라반이 신경이나 썼겠습

니까? 그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섬세하고 고귀한 감정들을 짓밟고 있다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 7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늙고 눈이 먼 아버지 앞에 예서인 척하며 서 있는 그를 보십시오. 야곱은 매정하게 자신을 이삭에게 속였고, 그 시간 내내 이삭은 자신이 주고 있는 복을 예서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공정치 못하고 치사하고 비열했다고 야곱이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가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섬세하고 고귀한 감정들을 짓밟고 있다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맺들은 천천히 같지만 아주 곱게 갑니다.

충격 받고 아연실색한 야곱은 냉정한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삶든 좋든 간에, 그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레아와 결혼했고, 신방을 치렀던 것이었습니다. “Fulfill her week—그녀를 위하여 이레를 채우라.” 라반이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그러면 라헬도 너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려움입니다(28:30-31). 야곱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문자 그대로 이레를 레아와 같이 보내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아가 이 비참한 거래에 내키지 않는 볼모였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을 스스로 사랑하여 기꺼이 공범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 라헬과 결혼한 야곱은 더 이상 레아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레아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온전한 태양은 라헬로 인하여 뜨고 졌습니다. 그는 라헬로 인해 살았고 움직였고 존재했습니다. 레아는 선반 뒤쪽으로 밀려났고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레아도 사랑하

셨고, 라헬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시고는 레아는 단연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도와 가업을 번성하게 하고 두둑한 지참금을 가져 오는 아들들, 특히 크고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들은 남자의 사회적 입지를 세우는 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인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원했다면 라헬에게 얻을 수 없었으므로 레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을 원했습니다.

c. 그의 가정생활(29:32~30:24)

이 부분의 긴 이야기는 요셉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애정을 얻기 위해 한 맺힌 두 여인이 몸부림치며 싸워 전쟁터가 되어버린 그의 가정에 대한 슬픈 기록입니다. 라헬을 위한 헌신과 아들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야곱은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그의 첫 아들은 쓰라린 번민의 아이, 르우벤이었습니다(29:32). 이것은 그 당시 레아의 슬픈 고백에서 드러났습니다. “Surely the LORD hath looked upon my affliction; now therefore my husband will love me—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레아가 주님(여호와)을 인정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께 대한 얼마간의 지식은 아브라함의 시대 이래로 라반의 가족까지 근근이 이어져 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7년 동안 야곱 역시 그분께 대해 종종 이야기해왔을 것입니다. 레아는 비통함과 외로움 속에서 아들을 낳는 중에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가족 중에서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적인 실망의 아이, 시므온이 태어났습니다(29:22). 르우벤이 남편의 애정을 얻게 해 줄 것이라는 레아의 희망은 확실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라는 자신의 새 지위의 힘에 의지하여 레아는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야곱이나 라헬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루우벤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hath seen—하나님께서 보셨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God hath heard—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헬이 날카로운 말투로 레아를 찢러대던 불행한 가정의 말다툼을 들으셨고, 그녀가 번뇌에 차서 그분께 울부짖는 것 또한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을 시므온(“들음”)이라 불렀습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은 영적 침체의 아이, 레위였습니다(29:34). 레아는 “Now this time will my husband be joined unto me, because I have born him three sons—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에게로 연합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또는 “합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레아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제외하면 야곱에게 레위보다 더 빛나는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아가 영적으로 침체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빛나는 운명의 아이, 유다가 태어났습니다(29:35). 이때에 레아는 영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Now will I praise the LORD!—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그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로부터 나왔으며,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유다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동생이 야곱의 마음을 사실상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초조해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표출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영적인 삶이 최고조에 달한 레아에게 아들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무슨 확신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백 명의 아들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절망의 아이, 단이 태어났습니다(30:1-6). 단과 함께 다시 라헬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녀는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라헬은 레아가 갖고 있는 것을 원했고, 레아는 라헬이 갖고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주 터무니없게 라헬은 마침내 야곱에게 화를 터뜨렸습니다. “Give me children or else I die!—내게 자식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고 했습니다. 야곱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Do you think I am God?—내가 하나님인줄 아느냐?” 라고 그가 반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한 불행을 가져오게 될 뿐인 바람직하지 못한 작은 속임수들 중의 하나가 나왔습니다. 라헬은 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면 그녀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Behold my maid Bilhah—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는 야곱에게 법률상의 형식을 기꺼이 이용하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여종인 빌하가 야곱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그 아이가 그녀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이 태어났고, 라헬은 그릇된 확신을 갖고 선언했습니다. “God hath judged me, and hath also heard my voice, and hath given me a son: therefore called she his name Dan—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노라.” 그녀는 그 아이를 단이라 불렀는데, “심판자” 또는 “옹호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녀의 피가 성공한 것에 너무 기뻐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생각되었던 아이, 납달리가 태어났습니다(29:7-8). “With great wrestlings have I wrestled with my sister,

and I have prevailed—내가 언니와 큰 씨름을 하여 이겼노라”고 라헬이 선포했습니다. 단이 태어났을 때 라헬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레아보다 못했지만,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달리가 태어났을 때에 라헬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아를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리는 육신적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라헬이 경험했다고 상상하던 구원은 허구였던 것입니다.

줄곧 레아는 자기 여동생의 딱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둘이서 같은 승부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이 싸우겠다고 택한 육신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하인 실바를 야곱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아들이 슬픈 실패의 아이, 갓이었습니다(30:9-11). “A troop cometh!—군대가 오는도다!” 레아가 기뻐 뛰었습니다. 이것은 동생에게 하는 악의에 찬 빈정거림인 듯 합니다. 레아는 갓의 출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레아가 그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아들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동생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찬양의 영적 고지에서 내려 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뜻밖의 즐거움의 아이, 아셀이 태어났습니다(30:12-13).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자, 라헬과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Happy am I, for the daughters will call me blessed—나는 행복하니, 이는 모든 딸들이 나를 복 받은 자라 일컬으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레아가 언급하고 있는 딸들이란 물론 그녀의 여자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 경

쟁자와 동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출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레아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넘치던 것에서부터 단순히 행복한 것까지는 영적 사다리를 타고 한참을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행복(Happiness)은 일어나는 사건(Happens)에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대신 레아는 육신적인 승리 안에서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통명스러운 혐오감의 아이, 잇사갈의 출생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30:14-18). 두 자매 사이의 가족 다툼은 잇사갈의 출생으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분명히 아셀의 출생은 레아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네 살 정도 되었을 때 합환채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추수할 계절이었고 들판은 수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흥겨움의 분위기였습니다. 꼬마 르우벤은 들판에 나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꽃 한 다발을 꺾었는데, 틀림없이 들판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합환채인 “사랑의 사과”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합환채”(mandrake)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의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식물은 이스라엘에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합환채는 검은 잎, 당근 같은 뿌리, 달콤한 향기를 지닌 하얗고 불그스레한 꽃이며, 사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는 대충 사람 형태로 쉽게 시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합환채가 정욕을 자극하며 불임 여성을 임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신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기에 지쳤습니다. 아마도 사랑의 사과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합환채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언니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르우벤의 합환채와 교환해서 언니는 하루 이틀 밤을 야곱과 지낼 수 있다”고 라헬은 얘기했습니다.

그 행운은 역으로 작용했습니다. 라헬이 애를 갖게 되는 대신 레아가 다시 한 번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God hath given me my hire!—하나님께서 내게 내 삯을 주셨노라!” 고 레아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명백하게 합환채가 자신의 새로운 잉태에 관련 없음이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잇사갈의 출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는 “삯”이라는 의미를 아이의 이름과 결합함으로써 동생에 대한 혐오감을 전혀 참지 못하고 드러냈습니다. 레아는 명백히 영적인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와 관련해서 레아는 찬양의 고지에 오르거나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결코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욕망의 아이, 스블론이 태어났습니다(30:19-20). “And Leah conceived again, and bare Jacob the sixth son. And Leah said, God hath endued me with a good dowry; now will my husband dwell with me, because I have born him six sons—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몫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블론이란 이름은 “거하다” 혹은 “거처”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승리의 우렁찬 나팔 소리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야곱이 자신에게로 와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허기진 마음의 갈망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사렛의 스블론에 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레아는 조용한 위엄의 아이, 디나라는 딸을 두었습니다(30:21). 아마도 야곱에게 다른 딸들이 있었으나(37:35; 46:7) 디나만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재판관” 또는 “변호자”라는 단의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불쌍하고 아이가 없는 라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 딸의 실제적인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조용히 품위를 지닌 채 그 출생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마지막 일곱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급된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오래 기다린 끝에 소중한 헌신의 아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30:22-24). “And God remembered Rachel… and she conceived, and bare a son; and said, God hath taken away my reproach: And she called his name Joseph; and said, The LORD shall add to me another son—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하니라.” 이와 같이 마침내 라헬은 자연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한 번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인정했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은 다음에, 하녀들의 문제와 합환채의 문제로 육신적인 하찮은 싸움을 하고 나서 내려오게 된 그 영적인 고원(高原)을 라헬이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제 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출생으로 인해 그녀의 믿음이 더 높은 곳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 품삯의 문제(30:25-43)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의 문제에서 취한 조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품삯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육신적으로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는 흔해 빠진 고루한 이야기입니다.

a. 야곱의 확신이 일깨워진 이유(30:25-26)

“And it came to pass, when Rachel had born Joseph, that Jacob said unto Laban, Send me away, that I may go unto mine own place—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요셉이 태어나자 무엇인가가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가 자신의 고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멀고 먼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확신이 일깨워진 것이었습니다.

b. 야곱의 확신이 제지된 이유(30:27-43)

야곱의 확신을 제지하기 위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곧 발견해 낸 것처럼 사탄은 보잘것없는 회계담당입니다. 우리는 라반이 매번 자기 유익에 따라 열 번이나 야곱의 임금을 바꾸어 버린 것을 압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시적 정의(인과응보)의 원칙이 야곱의 삶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친족이고 조카라는 것에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잠시 자기 힘으로 이용해 먹는 것에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고용했다가 사용하고는 한편으로 던져버리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14년 전 야곱의 삶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서가 사냥에서 허기져 돌아와 야곱의 팔죽을 조금 원하던 날,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야곱이 에서가 자기의 친족이고 바로 쌍둥이 형제라는 것에 신경

이나 썼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잠시 자기 힘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것에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예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고용해서 사용하다가가는 던져 버리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진실로 “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이라.”

야곱은 자신의 품삯의 문제에서 조처를 취했었지만 번번이 속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을 내기 전에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증거에 대해 언급된 것을 주목하십시오(30:27-30). “And Laban said unto him, I pray thee, if I have found favour in thine eyes, tarry: for I have learned by experience that the LORD hath blessed me for thy sake—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내가 네 눈에 들었다면 머무르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간증입니까! 야곱은 약하고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사업 감각과 결합되어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이토록 가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업가로서 야곱의 수완뿐만 아니라 야곱의 주님과 그의 관계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품삯에 대해 언급된 것을 주목하십시오(30:31-36). 야곱은 라반의 일을 계속 관리하기로 수락했지만 앞으로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도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양떼를 조사해서 갈색 양들과 반점 있고 얼룩진 염소들을 가려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양들을 따로 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양들은 라반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분리된 무리들 중에서 모든 단색의 양과 염소, 즉 흰색 양들과 검정색 염소들만이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이 양들 또한 라반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축 떼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지금 있는 갈색 양과 반점 있고 얼룩진 염소들을 기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그 양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양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흰색 양에서 태어나는 갈색 양이나 검은 염소에서 태어나는 반점 있고 얼룩진 염소, 즉 태어난 새끼가 이와 같은 표시가 있으면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기꺼이 무(無)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제시된 협정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복 주실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으며 라반의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색의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갈색 양과 얼룩지고 반점 있는 염소는 반드시 야곱이 갖기로 합의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제정신이 아닌 양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동방의 양들은 주로 흰색이고 갈색은 드물었으며, 동방 염소들 역시 대부분 검은색이고 얼룩지고 반점 있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꺼이 이처럼 상상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의 부(富)를 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라반에게 거절할 수 없는 좋은 흥정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계약을 체결했고, 야곱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일손을 보내어 표시 있는 모든 양과 염소들을 가려내어 옮겼습니다.

야곱과 넘겨받은 갈색 양과 얼룩지고 반점 있는 염소 사이에 사흘 길이나 되는 거리를 두고 그 나이든 시리아의 농부는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의 귓전에는 아직도 야곱의 간증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So shall my righteousness answer for me in time to come...every one that is not speckled and spotted among the goats, and brown among the sheep, that shall be counted stolen with me—그렇게 하여 훗날...내 의(義)가 나를 위해서 답하게 되리이다. 염소 중에서 반점 있지 않는 것과 얼룩지지

않은 것, 그리고 양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은 모두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계산되리이다 하니라.” 틀림없이 어디엔가 함정이 있었으나, 모든 장사의 잔피와 속임에 능한 라반도 그의 평생에 그것을 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고생스럽게 가축 떼들로부터 옮겨서 라반에게 넘겨주었던 갈색 양과 반점 있고 아롱진 염소들을 이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려 했고 자신의 요령한 두 가지를 사용해보려고 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수습 기간으로 일한 것은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멘델의 법칙을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험 있고 관찰력이 예리한 가축사육자로서 야곱은 틀림없이 이미 선택적 품종 개량(selective breeding)을 이미 시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발견한 것을 과학적 용어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동물들이 모두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라반의 가축 중에서 우성인자를 가진 것은 대부분 흰색 양을 생산했지만, 순전히 흰색 양떼로 시작할지라도 갈색 양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염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 염소로 시작하여 결국 반점 있고 아롱진 염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추어진 열성인자는 때가 이르면 양이나 염소나 다 그가 자신의 가축 떼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세포핵을 생산해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가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에 약간의 간계를 덧붙였습니다.

야곱의 계약에 대해 언급된 것을 주목하십시오(30:37-43). 그는

순전히 흰 양떼와 새까만 염소떼, 즉 품종이 훌륭한 이 두 가축 떼를 이끌고 언덕으로 떠났습니다. 그 중의 단 하나도 시원치 않거나 색깔이 좋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라반은 그 떼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야곱의 관심은 라반과 마찬가지로 가축 떼들이 빠르게 붙어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들을 점점 더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색깔 있는 양이나 반점 있는 염소의 세포핵으로 시작될 기회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개암나무, 백양나무, 그리고 밤나무에서 좋고 튼튼한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어떤 이들은 그 나무들을 소집향 나무, 알몬드 나무, 그리고 버즘 나무라고 합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벗겨 줄과 띠무늬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점 있고 아롱지고 벗겨진 나뭇가지를 물구유 홈통 속에 놓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그 출생 전의 영향력을 믿었던 것입니까?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생각을 비웃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들은 후대에 마침내 옳다고 발견된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비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¹

1.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살아 있는 생물의 DNA 분자구조를 포함하는 모든 요소를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질들을 형성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는 모든 영향력들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아마도 야곱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임신한 여자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고 놀라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가 못생기게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곱은 가축을 치는 데에 영리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단순함”에 웃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많은 전문적인 책이 야곱의 껍질 벗긴 가지에 대해서 저술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특정 화학물이 만약 적절한 순간에 생식세포 내의 배아

오래지 않아 가축 떼들은 불어나기 시작했고 야곱이 원했던 그러한 종류의 양과 염소들은 이상하게도 많은 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질적인 면을 보장하기 위해 튼튼한 가축이 짝짓기를 할 때에 최음제 막대기(aphrodisiac rod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튼튼하고 건강한 양질의 혈통의 양과 염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튼튼한 동물들을 약한 것들로 부터 계속해서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적 품종개량(selective breeding)의 올바른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양적인 면을 보장하기 위해 매번 갈색 어린양이 태어나거나 아롱지고 반점 있는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그는 나머지로 부터 떼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야곱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이 양들과 염소들이 그들끼리 번식하게 했으며, 그렇게 해서 같은 종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곧 그 가축 떼들의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가 이용한 교묘한 수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라반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32:10)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 그가 “increased exceedingly, and

나 DNA에 도달한다면 태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야곱이 가지를 쓰려고 택한 그 나무들의 화학물질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기로 야곱은 실제로 동물들이 마시는 물이 담긴 여물통 속에 껌질을 벗긴 가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화학물질 중의 하나는 최음 작용을 하며 다산을 촉진하기 위해 고대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흰색 줄이 난 가지가 가축들을 흥분시키도록 작용한 사실로 주장한다. 야곱은 결국 가지들이 더 많은 새끼들을 낳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믿었다.

had much cattle, and maidservants, and menservants, and camels, and asses—매우 번창하게 되어,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갖게 되었다”(30:43)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가축 떼들이 불어남에 따라 야곱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타고난 약삭빠름이 도움이 되었고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투자한 것도 도움이 되었으며, 그의 분야에서 제일인자(第一人者)가 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매우 큰 부자가 되었고, 그 땅에서 인정받는 실력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III.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중단시키셨는가(31:1~32:32)

밭단아람에서 야곱은 가정과 재산 모두에서 기반을 닦아 자식들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된 고향은 유브라데스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의 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바로 그 땅에서 야곱이 영원히 정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야곱의 여러 일들이 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가나안으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A. 어떻게 옛 목표가 도전받았는가(31:1-16)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살머시 들어온 내버리나 고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로 계속적으로 도전받아 왔습니다. 31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지금 직면하는 네 가지 커다란 도전 중에서 그 첫 번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도전은 옛 목표들에 대한 것이었습

니다(31:1-16). 지금까지는 두 가지 목적, 즉 라헬과 결혼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동기였었습니다. 그는 둘 다 성취했지만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결혼이나 돈은 인간의 삶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야곱의 욕에 티를 두셨습니다.

1. 야곱의 근본적인 걱정(31:1-3)

그것은 갑작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갑작스럽게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31:1-2). “And he [Jacob] heard the words of Laban’s sons, saying, Jacob hath taken away all that was our father’s; and of that which was our father’s hath he gotten all this glory. And Jacob beheld the countenance of Laban, and, behold, it was not toward him as before—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노라고 하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핀즉, 보라,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얼굴은 야곱이 이전에 오로지 그를 위해 일했을 때와 같이 미소가 감도는 대신에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맺은 협상을 정확히 지켰고 합법적으로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질투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니다. 야곱은 그를 겨냥한 소송이 닦쳐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니다. 그 소송은 그 지역의 인정된 재판소의 정상적인 소송이 아니라 폭력으로 지원되고 증오로 가득 찬 개척시대에나 있을 조잡한 소송이었습니니다. 세상은 갑자기 위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바뀌었습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Jacob, Return unto the land of thy fathers, and to thy kindred; and I will be with thee—그리고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

시기를, 네 조상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뀐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던 세상이 마침내 우리에게 시시해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기꺼이 듣게 됩니다.

2. 야곱의 가족회의(31:4-9)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도망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말해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라반은 그의 사람들을 불러서 야곱을 못 가게 하거나 야곱의 가족과 재산 모두를 빼앗아 빈 털털이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야 한다면 비밀리에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를 엿들 수 있는 자기 집이 아닌 들에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지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녀로서 아내 된 실바와 빌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아내들의 아버지에 관하여 두 가지 일을 아내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는 확인된 라반의 혐오감(31:4-5)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I see your father’s countenance, that it is not toward me as before; but the God of my father hath been with me—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한 불신과 증오

를 감추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라반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대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계속된 라반의 부정직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1:6-9). “And ye know that with all my power I have served your father. And your father hath deceived me, and changed my wages ten times; but God suffered him not to hurt me—당신들도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겨온 것을 알 터인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왔고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느니라.” 처량한 늙은 야곱!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소”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 라반이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목소리를 높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모른 체합니까. “너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초년 시절에 그가 저질렀던 더러운 술책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러한 행실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사랑받는 방랑시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는 교회에서 우아한 사교계 숙녀 뒤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예쁘게 꾸민 외모에 비싼 의상을 걸치고 그 마을에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그 부인 뒤에 앉아 있었던 번스는 부인의 등 뒤에서 옷깃 쪽으로 기어 올라가는 별레를 보았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어 운을 맞추어 한 구절 적었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야곱은 그 자신을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라반의 지속적인 부정직함이었습니다.

“열 번씩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소!”

3. 야곱의 신앙고백(31:10-13)

야곱은 이제 그의 아내들에게 그의 간증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은 얼마나 많이 뒷걸음질을 쳐왔었는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은 그의 번영(prosperity)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번영은 자신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고백했습니다(31:10-12).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속에서 가축들을 어떻게 교배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그는 유전 법칙을 관찰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번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알았던 모든 수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지 인간의 기술로 돌리기에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야곱은 동물에게 있는 열성 인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나 유전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또한 어느 동물이 그가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속에서 어느 짐승을 어느 짐승과 교배해야 하는지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번영은 그의 명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고백은 그의 장래의 전망(prospects)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의 전망은 그 자신이 짚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1:13). 그는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Wives, let me tell you what God has been

saying to me, He has been saying, I am the God of Bethel...arise, get thee from this land, and return unto the land of thy kindred— 아내들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라... 일어나, 너는 이 땅을 떠나,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는 밧단아람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입니다. 참된 번영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번영을 위해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게 된 처지에 직면한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4. 야곱의 마지막 의뢰(31:14-16)

단지 라헬과 레아에게는 야곱이 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들도 그와 하나가 되어 함께하겠다고는 확신을 주는 일 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라반의 술수에 너무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라반이 자기들의 남편을 속였던 것처럼 그들도 속이리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분명했습니다. 두 자매가 단결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은 흐뭇한 일입니다. “Now then, whatsoever God hath said unto thee, do—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소서” 라고 아내들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폭적이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열망을 밀어주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목적들을 추구하는 야곱을 중단시키셨습니다.

B. 어떻게 옛 신들은 도전받았는가(31:17-35)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말씀하고 있고, 훗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계명은 아직 돌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숭배와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를 버렸었습니다. 야곱은 믿는 자라면 거짓 신을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새겨놓은 형상들을 집에 두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내들은 라반의 친 딸들이었습니다. 라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은 있었으나, 늘 마음으로는 이교도였습니다. 그의 딸들, 특히 라헬은 라반의 미신에 이끌렸고, 라헬은 라반의 가정 수호신 몇 개를 자신의 집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공개적으로 판정받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야곱은 옛 신들을 없애는 어려운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형상들 그 자체가 단지 보잘것없는 나무토막이나 돌 조각에 불과하다고 경멸하는 식으로 단순히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1. 라반이 가르친 것(31:17-21)

우리는 라반의 성격에서 두 가지 흥미 있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라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게 됩니다. 라반은 그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주입시켰습니다. 이제 라반은 그 원칙들이 자신에게 반해서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무정한 편법을 가르쳐왔습니다(31:17-19a). “Then Jacob rose up and set his sons and his wives upon camels; and he carried away all his goods…to go to Isaac his father in the land of Canaan. And Laban went to shear his

sheep—그러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가 걷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하니라. 그런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더라”고 우리는 읽습니다(우리는 좀 덧붙여 “그는 평소에 야곱을 깎아내렸습니다!”라고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편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장인이 바쁜 동안에 자기 아내들의 완전한 묵인 하에, 자기에게 행했던 라반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몰래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왔을 때 이미 그 자신이 숙달된 사기꾼이었지만, 라반과 함께 있었던 수십 년이라는 세월로 인해 그의 간계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라반의 딸들도 야곱의 계약에 동의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왔습니다(31:19b-21). 그것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까닭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그 우상을 보아왔고 아버지가 숭배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² 라반은 그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증은 아직도 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완을 이용하셔서 그의 가정에 엄청난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신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바알 신에게 결코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쪽 같은 믿음으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입에 발린 경배나 했고, 그의 바알 신에게는 당연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라반의 친딸인 라헬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잘 가르쳤습니다. 라헬도 물론 야곱의 하나님을 또한 알고 있었으며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신들을 아직도 경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쪽으로 향했고 유브라데스의 넓은 강둑은 어느 사이에 지평선 넘어 가물가물하게 되었으나, 그는 라반의 가정 신들이 라헬의 안장 속에 실려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 라반의 생각(31:22-30)

라반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부적절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31:22-24). 양털을 깎은 후에 집으로 돌아온 라반은 야곱이 사라졌고, 라헬과 레아가 사라졌고, 그의 손주들도 사라졌으며, 뺏으려고 걱정했던 야곱의 엄청난 모든 소유물들과 그의 가정 수호신들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은 분노로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단숨에 해치우기 위해 충분한 세력을 모으고, 도망자들을 추격하여 말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를 가로질러 비옥한 초생달 지역 주변을 따라 올라가 그 지역의 북동쪽에 있는 길르앗 산까지 멀리 가나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달려간 거리는 약 480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마차를 가능한 한 열심히 몰아서 열흘 만에 그 거리를 갔습니다. 라반은 그 거리를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야곱이 진 친 곳을 정탐했고 다음날 맹공격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 꿈에 라반은 살아계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Take heed that thou speak not to Jacob either good or bad—너는 야곱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느

2. 거기에는 라반의 기름통을 기름으로 확실하게 채우기 위해서 아마도 기름들의 바알신이 있었을 것이었다. 즉 달콤하고 훌륭한 기름과 술을 보전하기 위한 기름통과 작은 항아리의 바알신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올리브들의 바알신이 있었을 것이다. 신비로운 이 작은 신은 빵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픈 팔다리를 문지르는 데 쓰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거기에는 큰 길과 별집과 보리와 밀을 위한 바알도 있었을 것이다. 라반의 신념으로는 그것들이 없으면 자신의 논밭과 가축의 풍년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것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를 내버려두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He is mine—그는 나의 것이니라.”

몇 년 전에 한 나라의 국기가 여전히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었을 때에, 한 영국계 미국인(Anglo-American)이 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불운하게도 극열분자들에게 잡혀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인질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영사들이 협상에 앞서 그 인질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때마침 영국 영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 인질에게 영국 국기를 던져주었고 미국 영사도 똑같이 성조기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감히 하려거든 그 국기들 위에 총을 쏘아보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깃발을 야곱에게 던지시고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평생 이런저런 것을 듣기만 했던 라반은 마침내 그분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면을 하게 되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라반도 그 만남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유일하게 믿는 자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을 증오한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가 선택한 길을 고집한다면 그에게 일어날 심판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주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어떻게 야곱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31:25-30). 이 이야기는 라반의 편견(31:25-28), 비통(31:29), 그리고 무지(31:30)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평소와 같이 위선적인 태도로 야곱에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Why did you run away? Why didn't you let me kiss my children goodbye? Why didn't you let me throw a farewell feast for you?—왜 너는 도망갔느냐? 너는 나로 하여금 왜 아이들에게 작별의 입맞춤도 못하게 했느냐? 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환송의 잔치도 베풀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

은 모두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It is in the power of my hand to do you hurt—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노라.” 그는 호통을 쳤습니다. “but the God of your father spake unto me yesternight—그러나 네 조상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Wherefore hast thou stolen my gods?—어찌하여 너는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사악한 본성, 사나움, 영혼을 사로잡는 사탄의 올가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전날 밤 라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진흙으로 만든 사악한 작은 우상들을 그의 신들(gods)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형상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었고, 이방신들에 대한 첫 번째 직접적인 언급이었습니다.

“My gods!—나의 신들!” 이라고 라반이 소리쳤습니다. 그 형상들 뒤에는 귀신이 잠복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귀신으로 하여금 그 숭배자를 붙들어 매게 합니다. “나의 신들!” 이라고 라반이 소리쳤습니다. 참으로 신들입니다! 전능한 신들! 훔쳐낼 수 있는 신들! 낮은 항아리나 그릇처럼 포장해서 가방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신들! 불평 한마디 못하고 300마일(480킬로미터)을 넘게 오는 동안 엎치락뒤치락했을 신들! 바람과 날씨를 주관한다고 믿어왔지만 미혹된 자에게조차 소리치지 못했던 신들! “라반아,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의 머리가 라헬의 안장에 처박혀 있어!” “나의 신들이여.” 아직도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혼을 울리는 가운데 현혹된 라반은 외쳤습니다.

3. 라반의 추구(31:31-35)

물론 야곱은 라헬이 가신상을 훔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라고 그는 내뱉었습니다. “Put to death the thief if

thief there be—만일 그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라반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찢어보고 살살이 뒤졌으며, 야곱은 거기 서서 화가 치밀어 오른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라반의 수색은 라헬의 장막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앉아 있어도 용서하시는 거죠? 오늘 몸이 좋지 않네요. 여기서 아버지의 신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얼마든지 둘러보세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라헬은 그 우상들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지닌 이 낡은 신들이 쓸모없고 무익한 것들이라는 교훈을 터득하기 바랄 뿐입니다. 라헬의 자리 밑에 깔린 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쓸데없는 우상들을 아끼고 있습니까. 오, 우리에게 그 우상들을 없애버릴 은혜와 분별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C. 어떻게 오래된 원한들은 도전받았는가(31:36-55)

오랫동안 야곱은 그의 삼촌에 대해 분노를 쌓아 왔었습니다. 야곱이 그 원한을 전에 발산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지금 그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고 분노에 차서 라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는 살살이 뒤져 놓은 장막과 겹에 질린 그의 아이들과 라반의 무장한 사람들을 보자, 라반에게 하고픈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몇 십 년 동안 품어 왔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1. 야곱의 의로운 분개(31:36-42)

“And Jacob was wroth, and chode with Laban—그러자 야곱이 분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니라.” “분노하다”라는 말은 “태워져야 하는”이라는 의미이며, “책망하다”라는 말은 “잡다” 혹은 “찢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화가 불같이 난 야곱은 누구든 찢어버릴 태세였습니다. 그는 라반이 자기를 맹렬히 추격한 것에 분노했습니다(31:36). “What is my trespass? what is my sin, that thou hast so hotly pursued after me?—내 불법행위가 무엇이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그렇게 열심히 추격하였나이까?” 그는 라반으로부터 부당하게 비난받은 것에 분노했습니다(31:37-40). “나는 당신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어린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도 들짐승에게 먹힌 적이 없었고, 손실은 개인적으로 보충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당신은 어린양 한 마리조차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에는 수고와 더위를, 밤에는 추위와 서리를 견뎌 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와서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당신 집안의 신들을 흠쳤다고 죄를 씌우는 것입니까!” 그는 라반에게 부당하게 속은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31:41-42). “You have change my wages ten times! Ten times you have tried to cheat me! And had it not been for the fact that God, my God, the living God, stood between you and me last night even now you would do me harm—당신은 열 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한 것이 열 번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젯밤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울화통을 터뜨렸고, 그럴 때 흔히들 그렇듯이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간증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반은 그가 유일하게 알았던 믿는 자에게 깊이 분개하면서, 속았다고 확신하고, 결코 풀어지지 않을 분노를 품은 채 밧단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참지 못한 분노와 앙갚음의 대가입니다.

2. 야곱의 종교적 간구(31:43-55)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라반과 그런 식으로 헤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비난에 대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너무나 잘 알았으나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격렬한 말다툼에 충격 받은 증인들인 라헬과 레아, 그 아이들, 근처에 있는 가축 떼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These are all mine!—이들은 모두 나의 것이야!”라는 것이 그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옛날 자신이 위선을 행했던 것처럼, 그와 야곱이 언약을 맺을 것을 제의했습니다. 야곱은 즉시 응했으며,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 곧 이루어질 계약을 위한 영원한 기념비를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관심을 끄는데, 라반이 얼마나 철저한 위선자이며, 또한 야곱은 최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그 기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서 약이 있었습니다(31:47-53). 그 서약은 라반에게는 그 기둥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경계였으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라헬과 레아와 함께하며 보호해 줄 수 없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잘못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라반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라헬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레아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그 기둥은 또한 야곱이 더 이상 아내를 취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의 아내를 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아내는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레아와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것은 라반의 잘못이었지 야곱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라반에게 그 기둥은 라반 자신이 경계선을 넘어 야곱을 성가시게 하지 않겠

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서약이었습니다.

라반은 그 기둥을 “증거의 무더기”라 불렀고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야곱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The LORD watch between me and thee, when we are absent one from another—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렇듯이 좋은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에 대한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라반에게 그 기둥은 미래를 보장하는 경계선이자 야곱에 대한 과거의 모든 부담과 오명을 벗어 던지는 담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둥과 관련해서 서약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물(offering)도 있었습니다(31:54-55). 그 제물은 야곱에게 그 기둥이 경계선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줍니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보장이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작별인사였습니다. “Then Jacob offered sacrifice upon the mount, and called his brethren to eat bread…And early in the morning Laban rose up, and kissed his sons and his daughters, and blessed them: and Laban departed, and returned unto his place—그러자 야곱이 그 산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빵을 먹이니…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그의 고장으로 돌아갔더라.” 그는 야곱을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딸들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과 손자들을 안아주고는 “그의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밧단아람으로 돌아갔고, 이교도의 어둠속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불만을 달래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야곱의 생애에서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책에서도 지나갔습니다.

D. 어떻게 오래된 죄는 도전받았는가(32:1-32)

이제 밧단아람은 야곱에게 지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이 마침내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한 시기를 넘겼지만, 결국 지난 시기에 스며든 검은 얼룩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에서의 문제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심오한 교훈 중의 하나를 배워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정죄하지(condemn) 않으시지만 믿는 자의 죄를 묵과하지(condone)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야곱은 에서를 형제답게 대하지 않고 파렴치한 방식으로 대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밧단아람에서의 파란만장한 세월, 매우 바빴던 삶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에서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주 오래 전에 그의 형과 급히 봉합했던 긴 사연을 생략 없이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직면해서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여 바로잡기 전에는 도저히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오래된 죄를 처리하십시오. 우리의 죄도 또한 그렇게 다루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1. 하나님께 받은 야곱의 확증(32:1-2)

야곱은 20년 전에 벧엘에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압복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화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벧엘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의 믿음을 다루신 것이고, 압복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의 행위를 다루신 것이었습니다. 야곱

의 생애에서 큰 위기가 있었던 때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가 성화된 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큰 위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위상적(位相的)으로 구원과 성화는 한 영혼이 경험하는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화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아람에서 만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야곱은 복종해 왔습니다. 야곱은 먼 길을 왔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주목해 봅시다. “And Jacob went on his way, and the angels of God met him—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32:1).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로부터 내내 호위를 받아왔습니다. 참으로 천사가 야곱의 일에 간섭하지 않은 것은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처음으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라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자신의 영리함과 용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에 활발하게 간섭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그 시대에 부흥 전도 집회를 하러 갈 때마다 사방에 위험이 깔려 있는 진흙탕 길을 말을 타고 다니며 52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홀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큰 길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역마차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수풀 울타리 속에 잠복해 있었고 길거리 강도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방심한 여행자들을 해치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대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도들에게 그들이 잡히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엄중한 암시로 큰길에 세워졌던 것이고, 타르를 칠해 길옆에 경고로써 썩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가 쪽 뺨은 큰 길을 따라 외로이 가고 있었을 때, 앞에 어렴풋이 형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그 형체를 보자 숲 울타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위험을 의미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길에는 사람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뒤에서 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고, 그는 다른 여행자가 탄 말이 옆으로 다가오자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웨슬리는 새로 만난 사람에게 잠자코 있기보다 활기찬 인사를 던지면서 그 두 사람은 박차를 가하여 그 길을 내려가 강도들이 숨은 그 장소를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것을 보고 강도들은 그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는 그 동료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뒤를 돌아볼 때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비스럽게도 그 말 탄 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존 웨슬리는 길을 따라 그를 호위했던 천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흔적을 힐끗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야곱이 본 것과 말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And when Jacob saw them, he said, This is God’s host: and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Mahanaim—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2:2). 그 이름은 “두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군대들로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들로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조용히 정렬하여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와 나란히 동행하는 전능하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기를 구할 때 동일한 천사의 군대는 그들과 함께 행진합니다. 야곱이 갑자기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2.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혼동(32:3-23)

불신(不信)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호

위하던 천사의 모습이 아직도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에서의 불같은 분노를 넘길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자 또다시 계약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생각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기를 바라기 전에, 그는 에서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32장의 대부분은 야곱이 형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안한 모든 값비싸고 불필요한 계획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협상해보려는 생각에서(32:3-8), 그는 사자(使者)들을 앞세워 아침과 아부하는 메시지로 에서와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Thy servant Jacob saith thus, I have sojourned with Laban… and I have oxen, and asses, flocks, and menservants, and womenservants: and I have sent to tell my lord, that I may find grace in thy sight—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여… 그리고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구하고자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나이다.” 절하고 비벼대기! 나의 주께서 이러시고, 나의 주께서 저러시고! 만약 부드러운 답변이 분노를 바꿀 수 있다면 야곱은 분명히 거기에 모든 기회를 걸었을 것입니다.

사자(使者)들이 돌아왔습니다(32:3-8). “We came to thy brother Esau, and also he cometh to meet thee, and four hundred men with him—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그 또한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사백 명을 데리고 오더이다” (32:6). 그것이 에서의 무서운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인사 한 마디 하지 않고, 과거에 관한 언급도 없었으며 그의 의중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단지 현재 야곱을 다루는 데에 전처럼 약하지 않은, 힘에서 나오는 능력의 날카로운 경고만이 있었습니다. “A brother offended is harder to be won than a strong city!—성난 형제를 얻은 것이 견고한 성을 얻기보다 어려우니라!” 벌써 야곱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와

행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잊었습니다. “Then Jacob was greatly afraid and distressed: and he divided the people that was with him, and the flocks, and herds, and the camels, into two bands, and said, If Esau come to the one company, and smite it, then the other company which is left shall escape—이에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더라. 그래서 그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한 쪽 일행으로 와서 그를 치면 남은 다른 일행은 피하리라고 하더라.” (32:7-8)

야곱은 “야곱아,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여전히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동안에 한 사업가가 탄약 만드는 공장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문 가까이 왔을 때 “IADOM!”이라고 쓴 큰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곧 잊어버렸고 계속해서 자기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표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벽에도 붙여 있었고, 문에도 있었고, 심지어 중역 사무실에서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단어가 있었나 하고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했지만 허사였고, 그 뜻을 묻기에는 그는 너무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이 끝나자 중역의 비서가 공장 출입문까지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장 간판을 보셨겠지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놓칠 수 있겠소. 그런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뭐 그건 첫 글자만 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It All Depends On Me!)”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협상이 깨지자 야곱은 간구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32:9-12).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아주 대담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

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 깨닫게 된, 처절한 한 인간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기도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에 호소했습니다(32:9). “O God of my father Abraham, and God of my father Isaac, the LORD which saidst unto me, Return unto thy country, and to thy kindred, and I will deal well with thee—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 다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만일 제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몇 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당신 안에, 당신의 뜻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지금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들은 제 능력 밖의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했습니다(32:10). “I am not worthy of the least of all the mercies, and of all the truth, which thou hast shewed unto thy servant; for with my staff I passed over this Jordan; and now I am become two bands—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사온데,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압복강과 요단강이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는 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 길을 왔었고, 지금은 그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풍요함

과 깨달음 모두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했습니다(32:11). “Deliver me, I pray thee, from the hand of my brother…for I fear him—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이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야곱은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에서는 잔인함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Lest he will come and smite me, and the mother with the children—그가 와서 나와 아이들과 그 어미를 칠까 염려함이니이다.” 야곱은 당시의 속담의 표현을 빌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은 말은 글자 그대로 “그가 아이들 위의 어미를…죽이지 않도록”이었습니다. 이것은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 어미닭을 치는 사냥꾼의 장면입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으로, 인정사정없이 손으로 치려는 냉혹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시체무더기로 돌변한, 즉 시체로 뒤덮인 진영(陣營)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라헬이 죽었고 레아도 죽었고 아내로 맞은 하녀들도 죽었고 유다도 죽었고 요셉도 죽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했습니다(32:12). “And thou saidst, I will surely do thee good, and make thy seed as the sand of the sea—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어, 네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노라고 하셨나이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설득력 있는 논쟁이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앙심이 깊은 조지 물러(George Muller)가 늘 했던 방식입니다. 조지 물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브리스톨(Bristol)에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물러는 그의 거대한 고아원을 지었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해 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전기(傳記) 작가인 피어슨(A. T. Pierson)은 물러가 얼마나 기도로 씨름해야 하는 것들을 쌓아 놓고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는 주님께 고아원은 그분의 것이고, 그 고아들과 그들의 필요는 주님의 책임이시며, 주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Father of the fatherless)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피어슨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설득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요청, 즉 하나님의 맹세로 입증된 그분의 말씀에 기초를 둔 요청이 그분과 벌이는 가장 쉬운 논쟁입니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왜 조지 물러는 하나님과 그런 논쟁을 했습니까? 피어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 형편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해야 합니다.”³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어서 그는 화해를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32:13-23).

3. Arthur T. Pierson, *George Muller of Bristol* (New York: Fleming H. Revell, n.d.,) p. 149.

미가서 7:20에 “Thou wilt perform the truth to Jacob, the mercy to Abraham, which thou hast sworn unto our fathers from the days of old—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공휼을 베푸시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 고의 과정을 주목해 보자. 아브라함에게 공휼이었던 것이 야곱에게는 진 리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연장하실 의무는 없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완전한 공휼을 얻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의무를 수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는 공휼이었던 것을 진리로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에서를 위한 화해 예물로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공물들을 단순한 선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부(富)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후에 타고난 신중함으로 야곱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다섯 무리로 나누었고, 무리 사이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화해하려는 진실한 소망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취한 원칙은 후일 이스라엘 희생제물 체계의 한 부분이 된 속죄헌물의 근본 원리와 동일했습니다. 속죄헌물은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가 잘못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는 흠친 것 이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3. 야곱의 하나님과의 대면(32:24-32)

이제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 중대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벧엘에서 그는 사다리를 보았고 압복에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벧엘에서 그는 믿는 자가 되었고, 여기에서 그는 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벧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뿐사뿐한 발걸음으로 벧엘을 떠났고 영원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압복을 떠났습니다. 벧엘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여기에서는 자아(自我)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완전히 홀로된 것을 봅니다(32:24a). “And Jacob was left alone—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앞서 이미 보내졌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재물, 그의 하인들 모두도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홀로 있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꼭 차게 짜는 것

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남아 하나님만을 대면하려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홀로 남겨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완전히 홀로 있었다면 또한 완전히 살아 있는 것이었습니다(32:24b-25a). “And Jacob was left alone; and there wrestled a man with him until the breaking of the day, and...he saw that he prevailed not against him—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샐 때까지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다시 말해서 그 알려지지 않은 공격자는 야곱과 겨루어 아무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높고 육신적이고 완고하고 투쟁적이며 자부심이 강한 불굴의 야곱은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 그분과 씨름하고 있음을, 아니면 그를 공격하는 분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분(the second Person of the Godhead) 이외에 다른 분이 아님을 얼마나 재빨리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야곱을 봅니다(32:25b-32). 그 날 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내로 다루신 20년 동안에서 최정점(最頂點)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두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것을 즉석으로(instant) 처리합니다. 즉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오락, 인스턴트 교통수단, 인스턴트 통신으로 처리하지만, 우리는 인스턴트로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끄시는 데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밀어붙이지하거나 빼앗지 않으시고 항상 기다리시며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 깨어져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매달리

는 사람을 야곱에게서 봅니다(32:25b-27). “When he [the angel of the Lord] saw that he prevailed not against him [Jacob], he touched the hollow of his thigh; and the hollow of Jacob’s thigh was out of joint, as he wrestled with him—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관절마디가 어그러졌더라.” 넓적다리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은 엉덩이 고관절입니다. 물론 아무도 엉덩이 고관절이 부러져서는 씨름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And he [the angel of the Lord] said, Let me go, for the day breaketh. And he said, I will not let thee go, except thou bless me—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서와 야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원했으나, 예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어진 야곱이 매달리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What is your name?—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온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물론 아셨습니다. 그러나 전에 야곱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예서입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그 깨어진 사람이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대신 끼어든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오늘날 “팔을 비트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야곱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야곱이 그분의 존재 앞에서 진정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고, 자신이 본성에 따라 태어난 자라는 것을 모두 고

백하며 깨어지기만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와 같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복 받을 수 있습니다(32:28-3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셔야만 우리를 새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Thy name shall be called no more Jacob, but Israel: for as a prince hast thou power with God and with men, and hast prevailed—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두머리가 되는”이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20년 전에 떠났던 사람, 즉 그의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파렴치한 삼촌에게 선수 치던 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통치자이며 포기와 간구라는 수단을 써서 강습(強襲)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은 오랫동안 휴면되어 있다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개선(凱旋)한 새로운 성품의 증표였습니다.

대단한 용기로 야곱은 방문객에게 그분의 이름을 여쭙었습니다. 그는 그분을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Tell me, I pray thee, thy name—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들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뛰어난게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이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낯선 분에게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주제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었으면,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누가 그를 깨뜨리고 복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러나 한밤의 씨름꾼은 야곱의 믿음에 응답하여 이미 준 복에 또 하나의 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And Jacob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Peniel [“the face of God”]: for I have seen God face to face, and my life is preserved—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였음이니라.” 두려움과 놀라운 마음이 야곱의 혼을 덮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기 드문 성육화(成肉化) 이전의 모습들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혼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 장은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낙인이 찍히고, 그 이후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됨의 낙인”을 지니게 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32:31-32). 그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압복 여울을 건너 지팡이에 몹시 의지한 채 절룩거리며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이들이 있는 야영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내들이여! 애들아!”라고 그는 불렀을 것이며, 그들은 달려 나와 달려진 야곱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고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글쎄, 나는 어젯밤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다시는 결코 똑같이 걷지 못할 것이오”라고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IV.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분리시키셨는가(33:1~34:31)

A. 야곱과 그의 형(33:1-16)

하나님과 만난 후에 야영지로 절룩거리며 들어간 사람은 깨어진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또 다른 큰 이정표를 통과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거짓말하

는 야곱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잊지 못할 그 날 밤, 그곳 언덕의 중턱에서 우리는 경청하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그의 20년이란 긴 유배 생활 동안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와 같이 얼마나 배움에 무디고 더딘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뚝거리는 야곱을 봅니다. 즉 깨어지고, 복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성품으로 자제하는 사람을 봅니다. 나중에 우리는 저 아래쪽의 애굽에서 마지막 미지의 위대한 여행을 앞두고 기댄 채, 작별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인 아들들과 함께 있는 늙고 늙은 야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분리시키시는지 볼 것입니다(33~34장). 그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장은 야곱과 그의 형에 관한 것이고, 34장은 야곱과 그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의 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33:1-16). 이 이야기는 야곱보다는 에서의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1.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찾았는가(33:1-3)

에서는 에돔으로 부터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야곱과의 적대감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도 에서는 대비했습니다. 그는 아래쪽에 위치한 바위의 도시 세일에서 이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유명해졌고 상당한 권력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천사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으며 야곱의 마음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에서는 야곱이 다시 그를 속이려 한다면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내기 위해 완전 무장한 자신의 호위 기병대를 굳은 얼굴로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쌍둥

이 형제 야곱을 만나러 가는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야곱을 보았습니다(33:1-2). “And Jacob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Esau came, and with him four hundred men. And he divided the children unto Leah, and unto Rachel, and unto the two handmaids. And he put the handmaids and their children foremost, and Leah and her children after, and Rachel and Joseph hindermost—그리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더라.” 즉 그는 에서 편에서 어떤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낼 때 처음 마주쳐 회생되어도 괜찮은 자들을 선두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 특히 라헬과 요셉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 대한 명백한 편애는 그 밖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키우고 있는 증오를 가라앉히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입니다. 그런 마음은 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민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그러나 만약 에서가 조심스러운 야곱을 발견했다면, 그는 용기 있는 야곱 또한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겁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passed over before them—그들 앞으로 지나서” 나아갔음을 봅니다. 즉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 자신을 위험한 선봉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군대에서 특공대의 훈련이나 낙하산 부대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모든 장교가 따라야 하는 용맹스러운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군사 용어

로부터 삭제되었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규칙에서는 위험지역에서 선두에 서지 않는 장교는 다른 부대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선두에 섰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고 동방의 목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그러한 행동을 볼 때, 그의 결점들 중의 많은 부분을 용서하게 됩니다.

다음에 에서는 뉘우치는 야곱을 발견합니다(33:3b). “And he passed over before them, and bowed himself to the ground seven times, until he came to his brother—그리고 그는 그들 앞으로 지나서 나가, 그가 그의 형에게 가까이 다가 갈 때까지 땅에 몸을 구부러 일곱 번을 절하더라.” 그는 몇 걸음을 걷고 절하고 또 몇 걸음 후에 다시 절하곤 했습니다. 볼만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날쌔 아랍말 위에 앉아 자신의 동생을 내려다보는 털이 많고 야생적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를 호위하는 자들, 즉 야곱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무리의 무법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정렬해 놓은 대로 서서 겁먹은 눈으로 처음에는 에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야곱을 바라보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적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다루기 힘든 놈들이라고 하지만 에서의 무장 호위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야곱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하고 스치듯이 나아가고,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절하는, 마치 파도 위에 뜬 코르크 조각처럼 까딱거리며 아래위로 움직이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둘레에 압복에 이르기까지 멀리 이어져 있는 것은 야곱의 가축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야곱을 발견했습니다.

2.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는가(33:4-7)

33장은 형제간의 화해에 대한 위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화나게 했다면 논쟁하려고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생각으로

그에게 나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상하면서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즉석에서 에서를 무장 해 제시했고, 그는 야곱을 온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영원히 용서했습니다.(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그 용서의 정신을 나누지 갖지 못했습니다)

“And Esau ran to meet him, and embraced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그러자 에서가 그를 맞으려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맞대고 그에게 입 맞추더라. 그리고 그들은 울더라.” 그것은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동양의 방식이지만 서양인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양인에게는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정서에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지만 반면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서의 표현이 만마디의 말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때도 있습니다. 긴 말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새로 깨닫게 된 뉘우침에 대해 긴 설명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대화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강력한 것, 찌는 듯이 더운 날 끝에 퍼붓는 폭우와 같이 공기를 보다 빠르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치유의 정서적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벌어진 두 형제의 불을 타고 내리는 눈물은 20년도 더 된 모든 쓰라림과 원한을 씻어 버렸습니다.

일단 감성적으로 분출하고 나서는 예의를 갖춘 소개가 이어졌고,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의 생전에는 그 오래된 적대감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관대하고 친밀감이 있으며 고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버트 레이드로(Robert Laidla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버트 레이드로는 뉴질랜드의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그만 저서 「그 이유는」(*The Reason Why*)에서 바로 그 문제가 한때 어떻게 그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

니다. “나는 품위 있고 세련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교양 없고 교육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단지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선택하신다고 내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그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양배추가 다른 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는 반짝이지만 다른 하나는 투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죽어 있고 다른 하나는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인가에는 관계없이 하나는 다른 하나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음모꾼이었고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단점을 가진 자였으나, 그는 영적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종류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3. 어떻게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었는가(33:8-11)

에서는 이제 야곱이 선물로 그에게 보내준 값비싼 가축들의 엄청난 수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What meanest thou by all this drove which I met?—내가 만난 이 모든 떼는 다 무엇을 뜻하느냐?”고 그는 물었습니다. 야곱은 “These are to find grace in the sight of my lord—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구하고자 함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형을 숙였으나 지금은 깊이 후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후회가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단번에 속죄헌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33:8-9). “I have enough, my brother; keep that thou hast unto thyself—내 아우야, 나는 충분히 가졌으니, 네가 가진 것은 네가 지너라.”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로 그는 야곱의 빚 전부를 탕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고 너그럽게 그 선물을 받았습니 다. 동양에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정을 결속시키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오래된 죄로 인해 결코 다시는 자신을 거론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Take, I pray thee, my blessing that is brought to thee; because God hath dealt graciously with me, and because I have enough—원컨대 내가 형님께 가져온 나의 복을 받으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다루시었기 때문이고, 또한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이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33:11). 다시 한 번 에서와 야곱의 근본적인 차이를 주목해 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는 충분히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언급했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간증이 있었으나 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간증할 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Jehovah)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영화롭고 은혜로운 이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마도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에서의 죽은 혼을 일깨울지도 모른다는 바람에서 “엘로힘”(Elohim)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에서의 이해 능력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단순한 말로 간증함으로써, 야곱은 에서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믿음

에 관해서 유치원 수준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 그들이 과시하는 철학으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영적 진리를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4.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두렵게 했었는가(33:12-16)

에서는 이제 자신이 함께해주겠다는 호의를 베풀며 야곱에게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33:12-14). 그것은 야곱을 두렵게 했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명어를 질 때의 문제들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방대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가축 무리로는 사백의 기마대와 함께하는 에서와 적절하게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야곱이 에서에게 지적하자 그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않은 명에는 사업이나 결혼 또는 사회생활에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히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게 속박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제의 관대한 제의를 거절하는 데 훌륭한 기지(機智)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의 친구 관계에서 상호간의 제안이 잘못 얽히게 되어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때 기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말하는 요점을 이해했으나, 만약 야곱이 그의 동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야곱은 자신의 보호해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33:15-16). “And Esau said, Let me now leave with thee some of the folk that are with me—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을 네게 남겨 두리라 하니.” 야곱은 다시 조심스럽게 에서와 관련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What needeth it? let me find

grace in the sight of my lord—그럴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에서는 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게만 보이는 야곱에게 강도와 도둑 떼들로부터 호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을 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의견에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별을 고하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야곱 쪽에서 세일로 에서를 방문할 것이라는 어설픈 약속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에서를 방문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이것이 마지막 작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는 현존하는 악의 세상을 택했고 야곱은 다가올 세상을 택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것과 어린 시절의 얼룩진 기억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공통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예돔으로 그의 형을 만나러 여행했으리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야곱이 그의 약속을 이행했으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의 가문의 기록들이 아무튼 모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압니까? 아마도 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때에 그 아래 페트라¹의 거대한 암석 주거지에서 그 문서들의 복사본을 야곱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B. 야곱과 그의 타락(33:17~34:31)

33장 후반부와 34장은 야곱과 그의 타락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훈련되지 않은 삶 속에서 여러 해 동안 발효(醱酵)되어 오던 문제들이 큰 항아리에 끓어 넘치는 것을 다루게 되는 야곱의 생애에서 매우 슬픈 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짚으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실패한 두 영역은 오늘날 우리들 대다수가

실패하는 영역입니다. 그는 순례자로서 실패했고 부모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 영역에서의 실패로 그는 이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 순례자로서의 야곱의 실패(33:17-20)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시점까지)은 순례자의 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순례자의 특성은 장막과 제단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장막은 사악한 세상에서 순례자의 걸음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제단은 너무도 많은 종교적 타락 가운데에서 순수한 경배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면에서의 증거가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을 따라 숙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거주지를 세우는 야곱을 봅니다(33:17). 순례자의 삶에 지쳤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에 지친 야곱은 안주하려는 뜻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축사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이 있는데 야곱은 왜 집이 없어야 합니까? 야곱이 원했다면 그는 분명히 큰 저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압복강 바로 남쪽 계곡, 요르단 동쪽에 있는 숙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기 위해서, 영광중에 그를 위해 준비된 저택은 잠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은 결국 그 약속의 땅 조금 못 미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집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롯과 관련해서입니다. 순례자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원의 장막에 거했으나, 타락한 롯은 소돔에서 집에 살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33장에서 믿음의 조상과 관련되어 집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성경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By faith he sojourned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strange country, dwelling in tabernacles with Isaac and Jacob, th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믿음으로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낮은 고장에서처럼 머무르며, 그와 함께 같은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으니”(히브리서 11:9)라고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야곱의 첫 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나안에 못 미쳐서 정착하고 또 그의 순례자로서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야곱은 안주하며 쉬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잠시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야곱이 돈을 주고 사는 것(buying)을 봅니다(33:18-20). 숙곳에서 야곱이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수년 동안이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딸 디나가 처음 정착했을 때 여섯 살 정도였는데 여성으로 성숙될 정도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는 이동해서 떠나 세겜의 도시, 살렘으로 갔습니다. “And Jacob…pitched his tent before the city—그리고 야곱이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쳤더라”(33:18)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뭉클한 연상시키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순례자의 길로 돌아간 것같이 보였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아직도 마지못해 하는 순례자였습니다. 야곱은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세상에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이주한 자라고 선언하면서 가능한 한 세상과 가까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Gerizim) 산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산은 나중에 유대 역사에서 율법의 복이 선포된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인들의 귀에 율법의 저주가 선포된 에발 산

이 서 있었습니다. 세겜은 훗날에 거대한 수도 사마리아가 세워진 장소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생명의 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앉아 계셨던, 야곱이 팠던 그 유명한 우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세겜이라 불리는 젊은이의 아버지인 하물에게서 땅을 구입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디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그 젊은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상거래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와 같은 상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타락을 종교적인 모양새로 덮으려고 애쓰는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야곱은 “erected there an altar and called it El-Elohe-Israel (“God, the God of Israel”)—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헤-이스라엘(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듣기에는 매우 좋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일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야곱이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에 의해서 약속된 것을 돈으로 사라고 지시하셨다는 암시는 조금도 없습니다. 틀림 없이 야곱은 그의 제단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간증이 되도록 의도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의 의도는 그의 세 자녀의 행실로 곧 무산(霧散)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며 장막을 쳤던 최악의 가나안족속의 도시와 그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실 때에는 최선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 부모로서의 야곱의 실패(34:1-31)

야곱의 집안에서 눈에 띄게 부족한 훈육이 이제 끊아터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만약 야곱이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순례자와

나그네로 남아 있었다면 기록된 그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에서의 이야기가 야곱을 언짢게 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의 형제와 경쟁하려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이 장(章) 내내 침묵한 채 끝까지 가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 통제력을 잃은 듯이 보입니다.

a. 디나의 행위로 인한 수치(34:1-7)

그 젊은 여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사항을 참작해 봅니다. 어쨌든 그녀는 오지의 한 소녀였으며 큰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매우 근사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라온 유목민 생활은 그녀에게 자극적인 이웃 도시의 유혹에 대한 준비를 전혀 갖추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받았을 만한 도덕적인 훈련으로는 세겜같이 세련된 젊은 왕자의 감언을 대처하기에 모자랐습니다. 또한 기독교 가정의 보호 아래 자란 아이들에게도 세상은 매우 매력적이며 유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주 쓰라린 경험을 통해 세상이 천박하고 수치스런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분리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자주 세상에서 황홀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먼저 디나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관찰해 봅니다 (34:1-2a). “And Dinah the daughter of Leah, which she bare unto Jacob, went out to see the daughters of the land. And…Shechem the son of Hamor…saw her—그런데 레아가 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니라.”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 때였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그의 딸에게 그런 장소에 있을 정도의 그런 자유를 허용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디나의 친구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더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동료들은 그 인생에서 매우 신속하게 가장 중요한 여론형성자들(opinion-makers)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의견이 모아지면 동료의 압력은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는 그녀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당연히 그녀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겜은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알아보았고,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노력했으며, 그리고 미치도록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도덕적인 원칙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야곱의 원칙들과는 달랐으며, 디나는 곧 세겜의 매력적인 마법에 빠져 곧 그녀의 아버지의 원칙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디나는 유혹받았습니다(34:2b). 그녀는 세겜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그 왕국의 왕자로부터 구애를 받은 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의 아버지의 도덕성은 구식이며,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사실 가나안의 모든 곳에서 “누구든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유혹은 죄가 아니라 단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심성과 상식마저도 바람에 날려버리고 디나는 굴복했습니다.

다음에 디나에게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34:3-7). 젊은 세겜은 디나와 속절없이 사랑에 빠졌고 단순히 열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수정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디나의 가족과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그녀와 결혼하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세겜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디나를 유혹했다는 소식은 이미 집에서 새어 나갔습

니다. “Jacob held his peace—야곱은 침묵을 지켰더라” (34:5-6)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가장 가까운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문에 가해진 모욕에 대해 격분한 그들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강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무서운 복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b. 디나의 오빠들로 인한 수치(34:8-31)

그 이야기는 비극적인 네 단계로 전개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야기한 절실한 간청에서 시작합니다(34:8-12). 모든 일의 근원에는 그가 부끄럽게 만든 소녀에 대한 세겔의 열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녀를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 그 소녀를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우 같은 늑은 하몰은 난관을 수습하기 위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세상적인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Make ye marriages with us—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제안 자체가 호소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결혼할 나이였고 그들에게 어디서 신부를 찾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야곱은 심각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결혼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몰은 세상적인 안전을 제안했습니다. “Dwell with us—우리과 함께 거하여”라고 합니다. 그것 역시 유혹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적대적인 이교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부족과의 동맹은 뿌리치기 어려운 미끼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몰은 세상적인 성공을 제안했습니다. “The land shall be before you dwell and trade ye therein and get you possessions therein—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거기에서 거하고 거래하며, 거기서 너희가 재산을 소유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야곱이라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관대한 제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지만, 하물은 압복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유혹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싸구려 합금으로 주조된 동전, 그런 부적절한 동전을 내놓으며 협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단 한 세대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말하기 전에 젊은 세겜이 끼어듭니다. 그의 아버지는 설득조로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Ask me never so much dowry and I will give it—I amuri 많은 지참금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리다”라고 하며 그는 간청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것은 바로 이 절실한 간청이었습니다. 하물이 단순한 보상을 제안하며 왔었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디나를 얻고자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진행과정의 성격을 드러내는 비열한 교활함을 말해줍니다(34:13-24). 시므온과 레위같이 믿는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진실로 한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끝없이 추락할 뿐입니다. 이제 표리부동(表裏不同)이 이중으로 행해집니다. 거기에는 디나의 오빠들의 간교한 부정직함이 있었습니다(34:13-17). 그들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종류의 통화로 제안하고 있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않소.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재물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조건으로 평가하

오. 당신들은 우리 누이를 더럽힌 것을 훨씬 뛰어 넘어,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어긴 것이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우리 누이를 이교도와 결혼시킬 의사가 없소. 우리가 당신 족속과 결혼으로 인한 동맹을 고려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 족속이 우리의 기본적인 종교적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족속이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논의도 더 할 수가 없소. 그렇지만 당신들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요.” 그것이 시므온과 레위의 간교한 부정직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나를 세겜과 결혼시킬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머지않아 아주 명백해 집니다. 모든 부정직함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 내용으로 포장한 부정직함은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보다 단순한 세겜의 아버지의 부정직함을 봅니다(34:18-24). 하물은 불량배이지만 시므온과 레위에 비교하면 그는 거의 성자처럼 여겨집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와, 그는 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할례 의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납득시킬 말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물은 일단 결혼이 성사된 후에는 세겜 족속이 여유 있게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동화시킬 것이며, 그러면 야곱이 확실히 소유한 그 막대한 유동자산으로 그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Shall not their cattle and their substance be ours?—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가 주장했습니다(34:23).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종교적 도덕관념을 수용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꿈쩍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도시 지도자들의 탐욕이 부추겨지자 하물의 주장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그 제휴를 종결시키는 끔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34:25-29). 그 합의는 서명되었고 할례의식은 모든 세겜의 남자들에게 시

행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런 수술의 효과가 완전히 느껴지도록 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완전히 무능력해졌을 때, 시므온과 레위, 이 난폭한 두 남자들만 그 마을을 습격합니다. 세겜의 거리들을 오르내리며, 그들은 모든 집을 부수고 들어가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것은 게슈타포에게나 걸맞는 행동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약속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물의 집안으로 데려갔던 디나는 붙들려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양, 황소,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도시의 모든 재물은 전리품이 됩니다. 도시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쟁 중에 잡힌 포로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야비한 각 세부 사항을 나열하시고(34:27-28), 각각의 말을 하나님의 저울에 유죄판결의 납덩이 추로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시리아의 특공대보다 더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적나라한 참상을 얘기하면서, 사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계락을 저주하는 절망적인 외침을 듣게 됩니다(34:30-31). 야곱은 서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 온 막대한 양의 전리품을 공포 속에서 응시했습니다. 그는 세겜의 이제 막 새로된 과부들과 고아가 된 아이들의 애처로운 통곡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야곱은 경악하며 아들들을 뵙니다. “You have made me both vile and vulnerable—너희는 나를 비열하고 비난받을 자로 만들었도다” 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Ye have troubled me to make me to stink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land...they shall gather themselves together against me, and slay me; and I shall be destroyed, I and my house—너희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 가운데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들에게 벌거벗겨지고 배반당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간증을 완전히 훼손시켰고,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보다 더 나쁜 짓을 했으며, 바로 그의 이름을 경건치 않은 자들 앞에서 악취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rise, go up to Bethel, and dwell there: and make there an altar unto God—일어나 벳엘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그의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어리석고 유약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 자신의 어떤 형편없는 본보기가 때때로 그의 자식들에게 반란의 기질을 갖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일어난 일은 야곱이 아닌 시므온과 레위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벳엘로, 하나님의 집으로, 처음 구원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야곱에 관한 한, 하나님의 약속, 보호, 그리고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V.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화시키셨는가(35:1-29)

우리는 야곱의 영적 생애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28장), 어떻게 그를 복종시키셨으며(29~32장), 어떻게 그를 분리시키셨는지(33~34장)를 보아왔습니다. 마지막 장인 35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성화시키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창세기의 주요한 초점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가 사망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여 이야기 속에서 주목되기는

합니다.

이 장에는 세 장소가 등장합니다. 즉 벨엘, 에브랏, 그리고 마므레입니다. 이 장은 네 번의 매장(埋葬)과 세 번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일에 얽매어 있는 야곱과의 연결고리를 여전히 자르고 계십니다. 그 연결고리 중에서 어떤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예로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가장 냉혹한 단절”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전사는 그가 사랑했던 매리(Mary)의 시신을 매장한 수퐁가(Shupunga)의 외로운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애통해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아내는 담대한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의 딸이었지만, 거친 여정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지치고 돌봐야 할 어린 자녀들 때문에 남편이 계속 일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바다로 강물을 쏟아 내보내는 잠베지, 콩고, 나일의 세 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 강의 비밀을 푸는 자는 결국 아프리카를 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부터 리빙스턴의 마음속에는 그가 보아온 공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예 매매의 참상이 춤추고 있었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인 잃어진 영혼에게 다가가라는 사명이 함께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탐험하라! 해방시켜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들은 쉽게 끊기지 않는 세 겹의 끈과 같아서 리빙스턴은 홀로 서서히 나아갔고, 매리는 집에서 어린 자녀들과 머무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내를 건딜 수 없어 한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능한 멀리 아내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이 전해지자 리빙스턴은 그의 올바른 판단과는 달리 아내를 다시 자기 옆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왔고 병들어서 죽고 말았

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태양에 그을린 그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매리, 오, 매리, 당신과 결혼할 때 사랑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당신을 사랑했소! 우리가 아프리카로 던져져서 헤맨 이래로 얼마나 우리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원했던가! 하나님, 아이들을 붙잡히 여기서요소서!” 커다란 바오밥(baobab) 나무 아래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죽는 것이 낫다고 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야곱과 장례에 관한 장(章)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례 중의 하나는 그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실의 슬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내면의 슬픔을 정중하게 베일로 가려줍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그 날 밤 야곱은 그의 외로운 장막 안에서(르우벤의 더러운 범죄로 말미암아 라헬의 몸종 빌하를 잃고 더욱 삭막해진 그 장막 안에서) 고뇌 속에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세상과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슬픔의 장이 끝난 후에 야곱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7년의 호화로운 애급 생활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장막을 철거할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막대를 뽑고 집을 향해 여행길에 오르는 야곱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의 능력으로 말하고, 예배드리며, 자신의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장(章) 다음에 우리는 야곱을 떠나 다른 것들로 넘어갑니다. 성화의 작업은 잘 되어가고 진실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A. 믿는 자로서의 야곱(35:1-15)

하나님으로부터의 결정적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디나는 그녀

형제들의 분노로 인해 결혼도 하기 전에 과부가 된 부끄러운 상황에서 홀로 쓸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진영으로부터 미심적은 눈초리를 보내는 그들에게 못마땅해 하며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행해진 그 암담한 행동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세겜의 학살 다음날 아침,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잘못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1. 야곱의 영적 생명력을 새롭게 하심(35:1-4)

야곱의 영적인 삶에서 세 분야가 철저하게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기본적인 믿음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영적 생명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돌쩌귀와 같이 기름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 수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다시 새롭게 활기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장소를 언급하며 시작됩니다(35:1a). “And God said un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dwell there: and make there an altar unto God, that appeared unto thee when thou fleddest from the face of Esau thy brother—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니라.” 그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추억의 장소인 벰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순례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을 그의 땅으로 경계를 정하고 그 땅에서 그의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벰엘에서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참담한 타락 후에 그가 돌아간 곳도 다시 벰엘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도, 처음 사다리를 본 곳도, 처음으로 진정으로 믿

는 자가 된 곳도 벤엘이었습니다. 벤엘!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가 회피하는 장소가 있듯이, 우리의 생애에서 거룩한 기억과 관계된 어떤 장소들이 있습니다. 벤엘로 돌아가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언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35:1b) “Dwell there—그곳에 거하라”고 야곱은 들었습니다. “Build an altar there—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기억이란 치유의 향유에 그의 상처 받은 영혼이 적셔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벤엘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공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보리로 인도하시어 거기에 장막을 얼마동안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시 활기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야곱이 벤엘로 가서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준비가 따릅니다(35:2-4). “Put away the strange gods that are among you, and be clean, and change your garments—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은 자신의 가솔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여기저기서 우상들을 집어 들었습니다. 라헬은 아마 그때까지도 라반 집안의 바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와 시몬도 틀림없이 세겜의 보따리에서 여러 개의 토속 우상들을 끌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애야만 했습니다. “And they gave unto Jacob all the strange gods which were in their hand, and all their ear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in Shechem—그들이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

을 세겜 옆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이 이 장에서의 첫 번째 매장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묻는 것보다 불태웠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우리의 우상들을 치우지만, 나중에 우리가 원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에 두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2. 야곱의 영적 승리를 새롭게 하심(35:5)

“And they journeyed: and the terror of God was upon the cities that were round about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after the sons of Jacob—그들이 여정에 오르니,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의 도시들에 엄습하여,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니라.” 주위의 공동체들은 분명히 세겜 대학살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수가 단지 시므온과 레위만을 향한 것이라면 정당화 되었겠지만, 그 복수라는 것은 건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살육이 시작되면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 진영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목적은 좌절되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야곱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공포가 그 땅에 엄습했습니다. 세상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지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완전한 방법으로 그 죄들을 직접 다루실 것이기에, 야곱과 그의 백성들은 승리의 편에 섰고, 그런 그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우는 것임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3. 야곱의 영적 진실성을 새롭게 하심(35:6-15)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을 다시 기본적인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합니

다. 그는 심지어 가나안 족속을 억제시킨 그런 기적일지라도 혼으로 기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새롭게 고백되었습니다(35:6-8). 야곱은 제단을 쌓고 “The Mighty God of the house of God—하나님의 집의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 벵엘(El-bethel)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넘어 서서 하나님 그분께로 나가는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벵엘로 되돌아 왔을 때, 야곱은 감동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분께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을 새롭게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의 장례식이 뒤따릅니다.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유모인 사랑하는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드보라를 알았습니다. 드보라에게 야곱은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피가 나는데도 무릎으로 다가오던 아기였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의 하녀의 소재를 알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보호 아래로 그녀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한때 야곱을 돌보았듯이 그의 아들들도 돌볼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틀림없이 무척 늙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왔을 때, 리브가를 수행하기 위해 밧단아람을 떠난 이래로 1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를 다시 찾은 것은 야곱에게는 큰 위로였고, 드보라가 밧단아람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확실히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얼마나 열심히 라반과 지나간 옛 친구들의 소식을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녀는 리브가, 고향, 야곱의 과거, 소년시절 등 인생의 소시적 추억들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연결 고리를 부드럽게 잘라 놓으시고 야곱을 그분께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죽었고, 지금은 “울고 있는 참나무”라고 불리는, 그 지방의 경계표시인, 유명한 테레빈(terebinth)나무 아래 정성껏 묻었습

니다. 그 일은 야곱을 세상적인 것에 묶어 놓았던 또 하나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관계가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35:9-13). “And God appeared unto Jacob—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니라.”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서의 그의 지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꿈속에서 그의 의식을 되살아나게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개인적인 이름에 대해서(35:9-10), 그의 약속된 명예에 대해서(35:11), 그리고 그의 영원한 권리에 대해서(35:12-13) 말씀하셨습니다. 가엾게 비틀거리는 야곱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과 왕들이 야곱의 씨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이 그의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즉 그가 최근에 그 길로 온 이래로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에 변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관계가 새롭게 요구됩니다(35:15). “And God went up from him in the place where he talked with him, and Jacob set up a pillar in the place where he talked with him, even a pillar of stone: and he poured a drink offering thereon, and he poured oil thereon. And Jacob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where God spake with him, Bethel—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시던 그곳에서 그로부터 떠나 올라가시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 헌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우니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시던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부르더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지

금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전에 계시던 그 사다리 위로 올라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온 세상은 그 장소의 중요성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기둥과 포도주 헌물의 부음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주고, 포도주 헌물(포도주 헌물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은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며,⁴ 기름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진실에 대한 이해력이 살아남으로써 아마도 그런 감사를 어렵듯이나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주장합니다. 그의 권리 주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B. 상(喪) 당한 야곱(36:16-29)

야곱의 타락이 곧 되풀이되고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벨엘로 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거기로부터 이동하여 떠났습니다. 타락은 그의 삶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었고, 그의 불순종은 즉각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성화된 사람이었기에 유치원 시절에나 저질렀을 실수는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더 이상 묵인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사별(死別)이 기록됩니다. 시간상으로 두 번의 사별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사건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한 순례자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누적된 결과임을 보게 합니다. 그 사건들은 세상적인 연결을 느슨하게 하고 이 세상을 지루한 곳으로 만들어 다가 올 세상을 점점 더 현실로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구를 타고 올라가려면 모래주머니를 버려야만 합

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모래주머니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들, 땅에 그를 묶어두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로부터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과 감각에 관한 것들로부터 단념시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1.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야곱(35:16-26)

a. 라헬의 상실(35:16-21)

먼저 우리는 그가 사랑하던 사람과 사별하게 된 야곱을 보게 되고, 그 비극적인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야곱은 세상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안에서 실제로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알 수 없는 실수를 주목하게 됩니다(35:16a). “And they journeyed from Bethel—그들이 벰엘로부터 여행을 하여.”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을 그렇게 빠르게 싫증을 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벰엘에서 옮겼고, 아마도 야곱은 장례 때문에 옮겼을 것입니다(35:8). 물질적인 생

-
4. 이 행동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의 첫 번째 전제(奠祭, drink offering)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후일 레위의 제물에 속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땅을 위해 지시한 제물에 속한 것이었다(민수기 15:5-7). 그것은 야곱이 이제 확증된 약속을 붙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 후일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처럼 전제란 항상 쏟아 붓는 것이지 절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상징한다.

각들이 아브라함을 움직였고, 감정적인 사고가 아마도 야곱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타락의 결과로 거의 사라를 잃을 뻔했고, 야곱은 라헬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이동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을 무렵이었고, 그녀는 조산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야곱은 있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이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라헬에게 낙타 등 위에서 흔들리고 부딪히며 여행하는 것은 그녀의 쇠약한 기운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거의 에브라(원래 이름은 베들레헬)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갑작스런 불행을 듣게 됩니다(35:16b-21).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해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보기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은 것을 알고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Call him Benoni—그 아이를 베노니라 부르라.”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속삭입니다. “Call him ‘son of my sorrow—그 아이를 내 슬픔의 아들로 부르라.” 불쌍한 야곱! 그는 라헬이 작정한 것은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녀의 바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그는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라헬은 “Call him ‘son of my sorrow’—그 아이를 내 슬픔의 아들로 부르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I’ll call him the son of my right hand—나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를 부를 것이요”라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죽었고 묻혔으며, 그녀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경계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라헬은 죽었고 야곱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모든 그의 야망과 더불어 그녀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헬을 묻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간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그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이제 그의 소망과 애착은 모두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계신 그곳에 관한 일들에 고정되었습니다.

b. 르우벤의 정욕(35:22-26)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수치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제 르우벤의 정욕에 관해 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어떻게 그렇게도 야비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한 행동은 어느 시대라도 죄가 되겠지만, 그러한 때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진실로 사악하고 음탕한 자임을 확실히 나타내줍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를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때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라헬은 그녀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날에 그 모든 진영 안에서 야곱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최악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르우벤은 어떤 원칙도 없었고 일반적인 예의나 인간성,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그러한 사람과 근친상간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희롱과 불장난이 있었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르우벤이 품위나 자기 절제를 잃고,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자이기에 장례 기간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 중의 한 사람을 능멸하며 즐겼다고만 듣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진 시기와 장소와 당한 사람을 그 자체로 종합해 볼 때,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And Israel heard it—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더라.” 야곱

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성품대로 행해졌다면 르우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받아넘긴 것은 이스라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한 순례자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르우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리 위에 그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도끼가 매달려 언제나 떨어질 적당한 순간만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적 문란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빠르든지 늦든지 간에 도끼는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사회적, 영적, 육체적, 심리적 회초리를 언제나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그 시점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열거합니다(35:23-26). 그 목적은 가족 내에서의 르우벤의 위치에 특별한 관심을 끌어내어, 그가 경솔하게 무시했던 책임감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The sons of Leah—레아의 아들들은.” 기록은 계속됩니다. “Reuben, Jacob’s firstborn—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만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이름 뒤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위치가 그의 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르우벤에 대한 고발은 나중에 야곱이 그의 임종 때에 널리, 공개적으로 절차에 따라 두렵게 읽혀집니다. 고백되지도 않고 제거되지도 못한 그의 죄는 남은 인생 내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2. 자신의 아버지와 사별한 야곱(35:16-26)

비록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삭이 그 당시 사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사별할 때에(35:27-29) 또 하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벳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쓸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의 늙은 유모가 죽었고, 그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고, 디나는 그녀의 상한 마음과 부끄러움을 치유하는 중이었고, 레위와 시므온은 진영 안에서 아직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 뻔뻔스럽게 밀고 나가고 있었으며, 르우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많은 상처들을 달래며 결국 그의 눈 먼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에게서만 위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처럼, 이삭의 죽음은 그 즉시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삭은 “old and full of years—늙고 날수가 차서”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80세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를 묻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쌍둥이로 태어나 기질, 욕망, 운명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진 그들이 늙은 아버지를 묻기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땅에 묶고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구별되어진 성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요셉의 이야기의 부분입니다. 요셉은 짧은 한 장(에서와 그의 생애에 할애된)에 이어서 창세기 이야기의 마지막 사분의 일을 차지합니다.

제8장
공급자 : 요셉
(36:1~47:26)

I. 요셉의 배경(36:1-43)

- A. 에서의 개인 역사(36:1-8)
- B. 에돔의 정치적 역사(36:9-43)
 - 1. 에돔에 있는 에서의 자손(36:9-19)
 - 2. 에서 이전의 에돔 지배자들(36:20-30)
 - 3. 에돔에서 에서의 탁월함(36:31-43)

II. 요셉의 소년시절(37:1-11)

- A. 요셉의 영적 욕구(37:1-2)
- B. 요셉의 화려한 옷(37:3-4)
- C. 요셉의 깜짝 놀랄 만한 꿈들(37:5-11)

III. 요셉이 당한 배신(37:12-36)

- A. 어떻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보내졌는가(37:12-17)
- B. 어떻게 그의 형들은 요셉을 보았는가(37:18-27)
- C. 어떻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렸는가(37:28-36)

IV. 요셉의 형제(38:1-30)

- A. 유다와 그의 아들들(38:1-10)
- B. 유다와 그의 죄(38:11-26)
 - 1. 그의 왜곡된 가치관(38:11-14)
 - 2. 그의 개인적인 비열함(38:15-23)

- 3. 그의 위선(38:24-26)
- C. 유다와 그의 자손(38:27-30)

V. 요셉의 멍에(39:1~40:23)

- A. 노예 : 부유한 주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신임받음(39:1-6)
- B. 성공한 남자 : 집요한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시험받음(39:7-20)
- C. 누명 쓴 남자 :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시험받음
(39:21~40:23)

VI. 요셉의 복(41:1-44)

- A. 하나님의 섭리(41:1-8)
- B.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41:9-13)
- C.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뜻(41:14-44)

VII. 요셉의 신부(41:45-52)

- A. 아스낫의 은혜 받은 자리(41:45-49)
- B. 그녀의 잊힌 과거(41:45)
- C. 그녀의 신실한 본분(41:50-52)

VIII. 요셉의 형제들(41:53~47:10)

- A. 불가사의한 국면(41:53~44:34)
 - 1. 얼마나 요셉 형제들이 걱정에 짓눌렸었는가(41:53~42:34)
 - 2. 얼마나 요셉의 형제들이 당황했겠는가(42:35~43:34)
 - 3.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이 깨어졌는가(44:1-34)
- B. 영광의 국면(45:1-24)
 - 1.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45:1-16)
 - 2. 요셉의 재원(財源)(45:17-23)
 - 3. 요셉의 부탁(45:24)

C. 사역의 국면(45:25~47:10)

1. 제안(提案)(45:25~46:7)
2. 번성(46:8-30)
3. 준비(46:31-34)
4. 알현(謁見)(47:1-10)

IX. 요셉의 시혜(施惠)(47:11-26)

- A. 요셉의 은혜(47:11-12)
- B. 요셉의 통치(47:13-22)
- C. 요셉의 선(善)함(47:23-26)

제8장 공급자 : 요셉

I. 요셉의 배경(36:1-43)

바울은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처음 얼핏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것과 같은 장(章)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에서(Esau)는 육신의 주요한 상징이므로 36장에는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장(章)은 성경에서 보다 어려운 장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장을 보통 읽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현대 서구인들이 족보라면 염증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장은 또 다른 문제들을 내포하는데,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서 소개된 이름들과 아주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자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장 소망이 없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이름들을 나열함으로써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에서의 주요 방계 혈통을 정리합니다. 에돔족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로 나눕니다. 리브가의 태 안에서 시작된 싸움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으로 벌어지기까지 몇 세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이 처음에는 신통치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시밭길을 조심스럽게 헤쳐 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A. 에서의 개인 역사(36:1-8)

36장은 에서의 직계 가족으로 시작합니다(36:1-5). 곧 우리는 혼란스럽게 연관된 에서 아내들의 이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즉 에서의 성공하지 못한 타협과 끊임없는 세속성입니다. 에서의 부모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에서가 아홀리바마와 결혼한 것을 몹시 싫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나안의 딸” 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호리족이 그녀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리족은 강력한 아나킴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오염시킨 거인족속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사(人間事)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그 거인 족속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지상(地上)에 신비주의와 반악마적(半惡魔的) 자손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상황은 온 땅이 물에 잠기는 대재앙으로 이어졌고 그 뒤에 일어난 상황은 이스라엘 족속의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졌는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 아내들의 이름은 그들의 실명(實名)이거나 혹은 본명(本名)입니다. 에서가 처음 가나안 여인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하며 이제 그 여인들이 자신의 아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신성한 언약으로 거룩하게 된 장막에 그런 여인들을 소개해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일에 대해 쇠해지고 부주의해지면서 에서에게 관대하던 이삭조차도 드디어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만은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들의 그런 이름들이 자신의 진영 안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본성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기에, 그 여인들의 본성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꼴사나운 이방 이름들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the daughter of Elon the Hittite—헷 족속 엘론의 딸”이라 불렸습니다(36:2). 아다라는 이름은 이삭에게 또 다른 이유로 대단히 불쾌한 이름이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족의 기록은 대홍수 이전의 엄청난 대반역자였던 라멕의 아내 아다에 대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컷전에 그 이름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여인이 헷 족속 출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선택된 민족의 계보에 그런 혈통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기치 못한 반대에 직면하자 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손쉬운 타협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스맛이라고 바꾸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은 더 훌륭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과도 이미 연관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삼촌에게 바스맛이라는 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아마 자신의 사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다는 바스맛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유별난 양심의 가책을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스맛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에서의 마음에 유쾌한 사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녀와도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는 바스맛이라는 이름의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충분히 유쾌한 이름이고 그의 아버지에게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일부다처제는 이름이 같은 두 아내가 아니더라도 매우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아다에게 그녀의 이름을 다시 바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것이었고, 그래서 에서는 분명한 해결책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촌 바스맛의 이름을 마할랏(창 28:9)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무슨 문제입니까? 장미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달콤한 향기는 여전한 것입니다.

그런 사연은 우리로 하여금 아홀리바마라는 두드러진 젊은 여인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좀 다채로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총애했던 아내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산당의 장막”이라는 의미인데, 사당의 여사제, 다시 말하면, 사원의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는 사당이나 작은 숲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전문사역자들과의 종교적 간음 행위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음란한 그녀의 종교예식에 스스로 참여하여 공식적인 자격을 지닌 그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녀를 집에 데려와 그의 아내라고 소개했을 때, 에서의 부모가 분개한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비위를 잘 맞추는 에서는 아홀리바마의 이름 역시 바꾸었습니다. 슈딧은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히브리인을 연상시키는 훌륭한 존경할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아버지의 언약의 장막 주변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아내들을 새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며 그럭저럭 꾸러나갔지만 그가 멀리 떨어져 나가자 바로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유사합니다. 복음에는 무감각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부모 곁에 있을 때에는 기꺼이 입에 적당한 성경구절들을 올리지만, 마침내 집을 떠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꾸밈은 펼쳐버립니다. 에서의 가슴은 결코 영적 진리로 뜨거워졌던 적이 없었고 그의 지성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이주(移住)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홀리바마의 신원(身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녀의 사당 “여사제”로서의 역할은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왜곡된 가나안 사람들의 견지에서 보면 아마도 선망이 되고 그녀의 가문에 영예를 더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 중의 하나를 신들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나였고, 호르족의 수령 중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의 명성과 지위는 상속된 것이라기

보다는 성취해낸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내의 이러한 연줄은 그가 호르족 공동체에 들어가 궁극적으로 모든 부족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아홀리바마는 에서가 총애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사당의 소녀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매우 매력적이고 미혹적인 젊은 여성이어서, 에서와 같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자의 마음에 드는 그런 유형의 여인이었음을 암시해줍니다. 아다와 바스맛에게는 각각 아들이 한 명씩뿐이었습니다. 아홀리바마에게는 셋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아내이면서 에서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여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그녀가 다른 두 아내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들 세대에 이르면 다른 두 아내들이 기록상으로 손자가 하나도 없었던 그 총애 받던 여인보다 훨씬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듯이 그 부족함을 다른 방법으로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에서의 직계가족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 장 전반에 걸쳐서 우리 앞에는 에서의 아내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호르족속의 아내였습니다. 에돔족속은 이와 같이 세 족속, 즉 가나안족속, 호르족속, 이스마엘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종족으로서 에돔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 아주 격렬한 적대감을 깊이 품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에서의 엄청난 재산에 관해 듣습니다(36:6-7). 그때쯤 되어서는 아마도 영적으로 더딘 에서의 마음에도 가나안의 모든 땅이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머무르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의무 불이행으로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을 가졌던 에서의 환상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그의 쌍둥이 동생 모두가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들 모두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한

초원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자신에 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야곱과 영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방황하는 영혼의 소유자이며 치유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에서는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세상 어딘가에 가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야곱이나 야곱의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홀리바마는 자신의 고향 세일에는 담대한 사람에게는 좋은 부수입거리가 있다고 최근에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 자신이 그곳에서 지체가 있고, 더욱이 그녀의 아버지는 더 신분이 높은 호르족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는 세일에서 환영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 룯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는 세상에서 더 성미에 잘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득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짐을 싸고 장막을 걸어 이삭과 야곱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호리족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에서의 모든 아들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그곳을 등졌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머무를 곳을 찾은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에서의 결정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전형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장소보다는 자기 기질에 더 맞는 장소를 세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난공불락의 요새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36:8). “Thus dwelt Esau in mount Seir: Esau is Edom—그래서 에서는 세일 산에 거했으니, 에서는 에돔이니라.” 창세기 36장은 감질나게 하는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에서가 결국 언제 어떻게 호리족으로부터 난공불락의 페트라 요새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페트라와 그 주변을 차지함은 엄청난 동서 무역로의 길목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었고, 그 바위로 된 성채들은 사실상 불사신의 요새였습니다. 페트라를 장악한 자는 어떤 산적이나 침략자들의 침입도 막아

낼 수 있었으며 지나가는 대상(隊商)들에 대해 무슨 통행료든지 원하는 대로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에서가 호리족을 “멸하였다”고 말했습니다(신명기 2:12). 그는 또한 삼숨족과 아나킴족과 같이 호리족도 거인족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신명기 2:20-22). 에서가 처음 받아들여지고 그 후에 호리족에 대하여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아홀리바마를 통해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낙의 자손들은 아무리 영성하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과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런 섭리 안에서, 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페트라협곡 속으로 끌어들이던 것이었습니다.

B. 에돔의 정치적 역사(36:9-43)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끊어모은 듯 영성합니다. 이야기는 자꾸 되풀이되는 경향을 띄고 있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던 것과 같은 흥미를 주는 데에는 전적으로 미흡합니다. 이 장(章)은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사와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며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분의 일은 요셉에게 할애되어 있는데, 그는 메시아 계보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외관상 조그마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에돔 족속의 역사는 단지 부분적으로 흥미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비록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이름들이 지루할지라도, 선택된 계보의 특권을 가진 자손들에 대한 것만큼이나 마찬가지로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을 두셨던, 살아서 숨 쉬는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

을 만홀히 여기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 에돔에 있는 에서의 자손(36:9-19)

먼저 아다의 외아들인 에리바스에서 난 에서의 손자들에게 지면(紙面)이 할애됩니다. 이러한 손자들의 이름들은 처음에는 자손들로(36:11-12), 그리고는 족장들로(36:15-16) 두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그의 젊은 족장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에리바스 자신은 족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모든 아들들은 그만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족장인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족장의 아내가 아니라(duchess), 족장(duke)이었습니다(36:40). 여기에서 호리족속 가운데에 모계사회의 단서를 봅니다. 에리바스의 첩인 덤나라는 이름의 여자 족장은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족장의 어머니가 됩니다(36:12, 16). 그로부터 아말렉족속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끝까지 싸우기로 선언하신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왕권을 잃은 것도 아말렉 왕과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구약성경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에서 난 에서의 손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네 명만 기록되었으며(36:13), 틀림없이 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각각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입니다(36:17). 그들 모두가 각각 족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정황에서 각각 오늘날의 부족의 수령이나 수장(sheikh)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서가 총애하는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이 에서에게 낳아 준 손자들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아들들 각자는 아다와 바스맛의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은 족장의 직위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36:18).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족장이라는 지위 덕분에 그 자리를 얻었을 것입

니다. 또한 다른 두 아내들의 자손들은 함께 언급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36:10),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36:18)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에서의 사랑과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단서를 이 장(章)의 특정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 에서 이전의 에돔 지배자들(36:20-30)

호리족은 에서가 지금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한 땅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창세기 14:6). 그들의 계통은 호리족속인 세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리라는 이름은 “구멍”이나 “동굴”을 의미하는 호르(hor)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관련성이 바위 거주자들이 사암(砂巖) 절벽에 파놓은 동굴이나 굴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페트라와 정교한 조각물과 터널들은 오늘날까지도 관광객들에게 경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세일의 후손들은 일곱 명의 아들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일곱 명은 다음 세대에서 열아홉 명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과 혈족결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목록을 보면 엘르바스의 첩이 되었고 아말렉의 어머니인 담나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록은 에서의 총애하는 아내 아홀리바마의 계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36:24-25). 이 목록은 또한 얼마나 빨리 에서의 후손들이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에돔족속의 조상들은 혼합되고 거의 전부 이교도가 되어 곧 멸종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희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세상적인 관계에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더 이상 호리족속 가운데에서 낯선 자나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착해서 곧 그들의 관심의 영역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세일의 에돔사람 전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에 오른 여러 이름들 중에 흥미롭게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첨부되어 있는데, 다시 아홀리바마와 관련된 것입니다(36:24-25). 그것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가 유명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리 사람 가운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그의 이름을 넘어 우리가 그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어떤 “노새들”을 발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해졌다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개역 성경(The Revised Version)은 “온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의 발견은 그 당시의 사람들 전체와 그 지방 전체에 참으로 흥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아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는 자기가 발견한 것에 감격해서 그의 이름을 실제로 베리(Beeri, “나의 샘”이라는 의미)로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26:34에서는 그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발견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은 뛰어난 인물로 여겨지는 자가 단지 아홀리바마의 아버지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20-28절에 나와 있는 명단 전체가 29-30절에서 즉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 구절에서 주요 인물들이 이제 족장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의 사회적 지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철저한 이교도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귀족혈통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를 우쭐대게한 듯합니다.

3. 에돔에서 에서의 탁월함(36:31-43)

우선 “the kings that reigned in the land of Edom, before there reigned any king over the children of Israel—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36:31)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왕들”은 아마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몇몇의 보다 작은 부족들을 통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그러한 면에서 앞섰을 것입니다. 여덟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눈에 띄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디안족속과 싸워 뚜렷한 승리를 거두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강”(36:37)까지 멀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이 나일 강인지 유브라데스 강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에돔의 족장들의 또 다른 명단이 주어집니다(36:40-42). 아말렉의 어머니인 딘나와 에서의 총애하는 아내 아홀리바마가 모두 족장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명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홀리바마는 인상적인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명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녀는 꽤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사당의 사제로서 에서를 만나 결혼했으며, 것처럼 거칠고 제멋대로 하는 에서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다룰 수 있는 것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는 그녀의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마침내 영원히 모든 가족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신분 높은 사회에 소개되었으며, 그 후로 그는 순조롭게 출세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세일에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녀로 인해 에돔족속의 명사들의 주목할 만한 명단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에서의 역사였습니다. 슬픈 운명을 이룬 그 사람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 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결국,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날 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장이 되게 하는 적절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신의 족보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육신이 매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장(章)을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우리로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욱신은 매우 큰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본성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욱신은 매우 경건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때면 그렇습니다. 에서는 그 믿음의 조상의 편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들의 이름들을 기꺼이 바꿀 용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고 야곱의 이름도 바뀌었으니, 왜 그의 아내들의 이름이 바뀌면 안 됩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만 유지된다면, 성품의 변화를 말해주는 이름의 변화는 에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욱신은 매우 변영합니다(36:6). 구약성경에서 변영은 하나님의 배후심의 표시였습니다. 욱신은 그것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욱신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데만에 관한 언급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에돔 혈통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간이나 넘게 종교에 대해 논쟁할 수 있었고, 몇 차례나 불쌍한 늙은 욱에 대해 화냈으며, 그의 믿음을 방어하는 데 힘들게 했습니다.

욱신은 매우 파괴적입니다(36:13).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완강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은 한 배에서(from the same brood)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피의 비호를 받아, 구별된 지위를 얻고, 깨진 바위로부터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등장했습니다. 그 흉악한 원수를 패퇴시키기 위해서 계곡에서는 여호수아가 손에 칼을 들었고,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욱신은 매우 강력합니다. 에돔은 세일에 그의 강력한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욱신은 매우 끈질깁니다. "In his stead—그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36장의 한 부분을 통해 후렴처럼 울립니다. 욱신의 한 면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면이 곧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욱신은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욱신은 이스라엘이 왕

들을 갖기 전 오래전에 이미 왕들을 갖고 있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대단한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에서와 모든 그의 종족으로부터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부터 창세기 끝 부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II. 요셉의 소년시절(37:1-11)

창세기의 사분의 일이 요셉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를 “He made the stars also—또한 별들도 만드시니라”고 다섯 단어로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의 계통도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장(章)에 장을 이어가며 할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다른 책들은 모세의 경험에 의해 쓰였으나, 창세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나일 강가의 노예 진영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속삭여지던 그의 백성의 구전(口傳)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의 사분의 일이 요셉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왜 좀더 많은 지면, 예를 들면, 한두 장(章)으로 끝난 가인 족속의 문명 발전사나, 언어의 혼란으로 각기 다른 말을 쓰면서 바벨탑에서 흩어져 나간 족속들의 개척사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무릎에 앉아 있는 모세를 그려봅니다. 그의 호기심에 찬 눈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고, 그의 영리한 어린 마음은 그녀의 말에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그에게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그녀가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을 것입니다. 곧, 급하게 궁전에서 명령이 오면 모세는 그녀에게서 떼어져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학교로 가곤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게 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창세기의 요점과 내용으로 구성된 진실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이 곧 모세를 영원히 삼켜버리리라는 사실을 생각해, 그녀는 어울리지 않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하였습니다. 똑같은 궁전에서 요셉이라 불리는 한 히브리 소년이 받았던 동일한 압력과 유혹을 자신의 아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요게벳은 진실한 영적 통찰력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요게벳의 견해를 인정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똑같이 강조하여 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일을 벌이면서 분주히 오고간 모든 사람들 중에 어디에서 요셉의 생애보다 예수님의 생애를 더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삶을 우리가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생애의 어느 부분이든지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즉시 그리스도의 이런 저런 모습이나 행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뛰어난 지위를 창세기에서 차지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그러한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든지 성령님의 위대한 목적은 그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는 것이고, 그가 마침내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는 영원히 진열될 가치가 있는 은혜의 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A. 요셉의 영적 욕구(37:1-2)

요셉은 역사상 가장 외로웠던 소년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가정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가정이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레아의 좌절과 실망, 가족 내에서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던 다른 두 아내들, 외할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와 농간, 삼촌 에서의 쾌활한 기질과 단순한 원한, 그리고 각양

각색의 형들 속에서 요셉은 그가 태어났다기보다는 복병에 걸린 (ambushed) 처지라는 느낌을 자주 가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대 중반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의 형들은 그를 아버지의 애완동물쯤으로 여겼기에 몹시 싫어했으며, 그를 착한 척하는 녀석이나, 엄마의 귀염둥이 정도로 보았습니다. 소년 요셉은 그 후 줄곧 주석자들에게 헐뜯겼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에게도 헐뜯겼습니다.

요셉의 소년시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의 영적인 욕구와 그의 화려한 옷과 그의 특별한 꿈입니다. 이것들을 함께 묶은 것이 좀 이상한 구색(具色) 맞춤같이 여겨집니다. 미국인들이 조지 워싱턴에 관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체리나무에 관한 일화와 그가 선거할 때 입었던 조끼에 대해 무심코 한 언급과 그가 식민지들을 국가로서의 지위로 이끌려고 꿈꾸었었을 한두 가지의 꿈들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맡겨졌다면, 우리는 그가 태어났던 고장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고, 그가 어렸을 때 조숙했던 일화들을 썼을 것이며, 그의 학교에서의 역량과 상냥한 기질, 그리고 밝은 성격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일찍이 관리능력에 소질이 있었음을 논했을 것이고, 그의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했을 것이며, 그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예들을 알아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일대기(一代記)가 쓰일 때에 동원되는 그와 같은 자료들은 지나치시고, 세 사건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요셉의 영적인 욕구가 놀랄 만큼 흥미로운 두 사건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많은 무리의 가족들을 거느린 목자였습니다. 아들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은 하나씩 장사의 수법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여종의 네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한 팀을 이룹니다. 그 조잡한 시대에 목자들이 언덕 위에서 혼자 일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들과 배회하는 도둑들뿐만 아니라 파

럼치한 족장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사업의 비법들을 배우라고 보내졌습니다. 그가 총애받는 자일지라도, 만약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은밀히 계획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려면 그도 가업을 철저히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는 법, 최고의 품종을 번식시키는 법, 목초지에서 목초지로 가축들을 이끄는 법, 물웅덩이를 찾는 법, 약탈자들을 피하는 법, 절고 아프고 약한 것들을 돌보는 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아들들의 특성을 저울질하고, 요셉을 그 특정한 무리에게 보냈습니다.

떠나자마자 요셉은 집을 떠난 소년이 겪는 첫 번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드러난 요셉의 영적인 순전함은 그 유혹의 배후와 부딪힙니다. 그는 동화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바울은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로마서 12:2). 필립스는 이 말씀을 “네 주위의 세상이 너희를 그 세상 틀 속으로 밀어 넣지 않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 친구를 사귀게 될 때에 먼저 그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열일곱 살쯤 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경쟁자가 생기려고 했습니다. 그 해에 베냐민이 태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에 동화되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요셉의 나이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교육을 위해 그를 카르타고로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니아누스(Romanianus)라는 부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369년에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들 중의 한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부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로마니아누스의 집에서 그는 부호의 응석받이로 자란 조카 마르쿠스를 만났습니다. 마르쿠스는 어거스틴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수도에서의 흥청거리는 삶으로 입문하도록 제의했고 어거스틴은 기꺼이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밤의 환락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전의 그리스인들처럼, 게으름뱅이들이 신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항구의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어거스틴은 선천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한두 잔을 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행렬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맥시미니아누스(Maximinianus) 목욕탕을 거쳐 음란하고 자극적인 나체의 댄서들이 있는 방탕한 태닛(Tanit) 사원을 지나며 맘껏 즐겼습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쁜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들어가면 안 돼.”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갈 데가 있어?” 그의 새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전에 여기 와 본 적 있어?”

“여기 왔지! 나는 항상 오는 곳이야.”

“아이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들어와, 무얼 망설이는 거야?” 마르쿠스가 외쳤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거스틴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에 괴로움으로 가득한 눈물의 모습이 한 순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가 냉소의 표정으로 재촉하자 어거스틴은 자신을 죄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나 그의 형들과 함께 홀로 된 요셉은, 형들에게 떠밀리고 채이며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그들을 따르라는 끊임없는 압력에 시

달렸으나,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행동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 그들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단서를 던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은 실제로 그들에 관한 일들의 기록이면서 그들에 관해 야곱이 이야기한 실상이기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재구성해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로 인해 어떤 궁지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각각은 그에게 분개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종의 자식들이었고, 그는 총애 받는 아내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 대한 혐오감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주의 깊은 보살핌에서 떠나 있는 요셉과 함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리한 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마음같이 예리한 단은 상황을 요약하여 비꼬는 기술과 사람을 비하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질문으로 사람의 혼을 쭈서대는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전가시키는 영리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모래알처럼 왜소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신랄하게 조롱하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불쌍한 어린 요셉이 바로 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솔하면서도 거칠고 조심성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납달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우아하고 어린 사슴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붙잡기도 억제하기도 힘든 자였습니다. 그는 야성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규제를 중요하여 법과 질서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일” 해야만 했습니다. 거친 그의 방식은 요셉을 얕잡한 체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납달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귀염둥이요 지나치게 감상적인 그런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납달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갓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갓에게는 불량배와 같은 기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편의 수가 우세해 안전할 때만 싸움을 거는 골목대장유형이었을 것입니다. “어이 풋내기. 애한테나 나한테 까불면 내 친구들이 널 사정없이 패줄 꼴” 그것이 갓이었겠습니까? 요셉은 갓과 함께 있었고, 갓은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였습니다.

아셀은 어땠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셀은 “사치스럽게” 살기를 좋아했고,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름에 발을 담그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셀이 원했던 것은 삶의 호화로움, 사치, 풍족함, 그리고 쾌락이었습니다. 그는 “즐겁게 놀며 지내기”를 원했고 거기에 탐닉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근검과 양심이나 양심의 가책 따위에는 동조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 아셀의 철학이었습니다. 요셉은 아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oseph, being seventeen years old, was...with his brethren; and the lad was with the sons of Bilhah, and with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fe—요셉이 십칠 세였을 때에... 그의 형들과 함께, 그리고 그 소년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라”고 읽습니다. 그는 교활한 단과 조심성 없는 납달리와 비겁한 갓과 품평가인 아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도움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원치 않게도 홀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요셉의 곤경에 동감할 것입니다. 폭력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거나, 그들의 관행에 맞추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공범이 되지 않으면, 요셉의 일상은 생지옥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감춰주려는 유혹이 닥쳤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많은 주석자들이 요셉에게 심각할 만큼 공정치 않게 행합니다. 그들은 그를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이야기를 고자질하는 비열한 가정의 스파이로 그립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본문에는 그러한 해석을 정당화시킬 내용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든 성격에서 볼 때, 그런 치사함과 편협함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들들의 행실을 보고하도록 그가 지시를 받았으리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강하게 느꼈으며, 그 위험성은 그의 아들들의 행실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난폭한 행동을 보고하는 것은 요셉의 청지기 임무 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부족 전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감추어 주려는 상당한 압박감에 눌러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탐 소여와 허클베리 핀은 혼혈인 인준 조(Injun Joe)가 젊은 로빈슨 박사를 살해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다 본 그들은 그 혼혈 인디언이 그와 한패인 의식불명상태의 머프 포터(Muff Potter)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살해 도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해안가가 조용해진 후에 필사적으로 도망친 겁먹은 두 소년은 긴급히 취할 행동방식을 토의했습니다. “허클베리, 이 일로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교수형일 걸.”

잠시 생각을 한 탐은 “누가 말 할 건데?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허클베리는 그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만약 무슨 일이 생겨 인준 조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가 머지않아 우리를 죽일 것이고, 그럼 우리도 여기 누워 있는 시체처럼 될 거야.”

그래서 탐과 허클베리가 엄숙하게 약속합니다. 탐이 말합니다. “허크, 너 입 다물 수 있지?”

“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해. 알고 있지. 탐, 이제 서로 맹세하

자. 맹세하고 입 다물기로 해야 할 것 같아.”

요셉은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a time to keep silence and a time to speak—침묵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생각으로는 그때는 말해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가 본 것을 야곱에게 말함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 봐 애송이.” 그들 넷은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그 늙은이에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밤이 고통스러워질 걸. 입 다물어. 알았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목격하고서 용기 있게 증인으로 서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처음 어렴풋이 느낀 점은 영적 욕구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성과 도덕성과 실질적인 경건함에 대해 잘 양육된 신념을 가진 십대 소년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신념에 대해 용기 있는 젊은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B. 요셉의 화려한 옷(37:3-4)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ll his children, because he was the son of his old age: and he made him a coat of many colours—그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든 그의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라.” 성령께서 요셉에 관해서 기록하실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옷은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수령이 입는 옷으로, 그런 종류의 옷은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 정해진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은 야곱이 그 대가족의 통치권과 그의 재산의 주요 몫을 상속해 주려는 자로서 요셉을 두드러지게 구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옷은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서 분리시켜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수준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질투의 내색을 숨기지 않고 그 옷을 주시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그 옷을 주시했고 그 옷에서 자신의 미래의 이류(二流) 인생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그 옷을 주시했고 잔인한 시므온과 그의 단짝 레위도 그 옷을 주시했습니다. 여종의 네 아들들도 그 옷을 주시했고, 그러므로써 그들의 증오에 새로운 원한을 더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젊은 어깨에 그 겹옷을 늘어뜨리며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여 거리낌 없이 마음 편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의 아버지의 장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야곱 마음속의 진정한 신부인, 라헬의 장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질투하는 형들이 어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옷은 그의 것이었고 그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와 그의 흠 없는 삶, 즉 그의 형들의 만성적인 나쁜 행실을 확연하게 눈에 띄게 하는 삶 덕분이었습니다. 지위와 제사장 직분과 특권의 그 겹옷은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겹옷에는 세 가지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앞에 놓인 선물을 풀어보고서 곧 그 선물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질투하는 형들도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가족의 제사장 직분은 르우벤에게 가야 하는 것이지만, 야곱은 르우벤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사장 직분의 관리인 자격을 요셉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옷은 조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그것도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리는 약속된 씨가 그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권리였습니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르우벤은 한 밤의 욕정에 못 이겨 스스로 영원히 치욕스럽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당분간 요셉만이 조상의 자격을 갖는 문제에서 야곱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 옷은 우선권을 말합니다. 그것은 장자가 아버지 재산에서 두 배의 몫을 받는 관례를 말하고 있었습니

다. 즉 그가 다른 아들 중의 어느 누구보다도 두 배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배의 몫은 결국 요셉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옷은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었고, 역사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에게 주어진 그 화려한 옷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비중과 사랑하는 아들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야곱의 결단을 말합니다. 늙은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들을 보면서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의미와 목적에서 모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저쪽 너머로 우리는 특별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의 장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어렵게 알아챱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저쪽 너머로 우리는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육신적으로는 인척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와의 관계를 뛰어넘어 그들 모두와 구별되어 높이 들려지도록 정해놓으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기쁨을 아들에게서 찾으시며 아들과 교제하심을 압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소유권과 권세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생각을 어느 정도 펼쳐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C. 요셉의 깜짝 놀랄 만한 꿈들(37:5-11)

우리는 요셉의 꿈들을 외울 정도로 압니다. 그는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본 것은 추수한 들판과 가지런히 줄 서있는 곡식의 단들입니다. 들판에 그의 단들과 그의 형들의 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의 단들이 그의 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는 꿈을 다시 꾸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의무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들은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들의 의미는 너무 분명해서 그들은 꿈 해몽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훗날 자신에 관해서 진실을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분노했던 유대인들처럼, 그의 형들은 꿈들에 대한 적나라한 설명에 분노했습니다.

곡식의 단들에 관한 꿈은 지위와 권세에 관한 꿈이지만, 그 지위와 권세는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추수하는 들판은 세상의 자원(資源), 혜택, 풍요함, 그리고 부(富)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의 부(富)를 수확하지만 요셉은 그 모두를 능가합니다. 결국에 그의 형들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세상의 자원의 공급원을 차지해서 관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애급의 자원의 공급원들을 궁극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들에 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지위와 권세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해와 달이 지배의 상징들인 것을 배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해와 달이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장래에 요셉은 세상의 지배자들을 통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요셉이 애급에서 높은 자리의 권위를 얻음으로써 성취되었고, 그 권위는 대단히 컸기에 파라오까지도 그의 뜻에 굽힐 정도였습니다.

그 꿈들은 요셉의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요셉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지구에 대해 절대적인 최상의 지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가오는 장래에 예수께서는 높이 들려질 것이고, “of things in heaven and things on earth and things under the earth—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의 모든 자원의 공급원들과 지배자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요셉의 형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미워하던 동생을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그의 꿈들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형들의 질투와 심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진리가 그들을 폭력으로 몰고 갔을지라도, 형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들을 말하고 난 후에, 그의 형들은 더 이상 그와 평온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제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계산했습니다.

III. 요셉이 당한 배신(37:12-36)

예표론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못해 신약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명된 사람, 사건, 그리고 사물만을 타당한 예표로 간주할 수 있는 예표라고 말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곳저곳 모든 곳에서 예표론을 거론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해설가들은 때때로 단순히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모형이라고 제시합니다. 그 극단적인 것은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은 구약성경의 엉뚱한 사건과 환상적인 관념들을 예표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지만 또한 확실히 우리가 구약성경의 사건들과 신약성경의 진리간에 명확한 유사점을 지적하는 것도 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형은 예언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구약성경에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모형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약성경으로 교회가 여러 곳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약성경의 신부(新婦)로 등장하는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 레위기의 종교 의식에서, 그리고 성막의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신약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예수님간의 유사점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표면화될 것입니다.

A. 어떻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보내졌는가(37:12-17)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제멋대로 행하는 아들들에 대해 마음 죄는 부모의 자연스런 걱정을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후에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야곱에게 아들들에 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니다. 위험한 일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성향도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된 아버지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면, 누가 요셉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무가 의논됩니다(37:12-14). “And Israel said unto Joseph, Do not thy brethren feed the flock in Shechem? Come, and I will send thee unto them. And he said to him, Here am I. And he said to him, Go, I pray thee, see whether it be well with thy brethren… and bring me word again. So he sent him out of the vale of Hebron—그러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하니, 요셉이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니,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라.”

요셉은 아마 열여덟 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집에, 즉 헤브론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친교”라는 의미로, 요셉의 아버지와의 친목과 교제를 연상시켜 줍니다. 가정의 기쁨이 헤브론에 있었지만, 요셉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고, 어려움에 대해서나 먼 거리나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아버지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꺼이 그 희생을 하려고 했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기꺼이 응답하자, 늙은 야곱의 혼잣말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그 장면은 우리를 과거의 영원한 세월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인 천상의 헤브론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영원한 세대가 운행되는 가운데 친교를 누리셨습니다. 그분들은 지구라는 이름의 행성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인간의 창조,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과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낙원으로부터 인간의 추방,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관여하셨습니다. 늙은 야곱이 그의 아들 앞에 놓인 위험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도 베들레헬을 거쳐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는 길의 모든 위험들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여기 있나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임무는 수행되었습니다(37:15-17). 당시에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있었고 세겜은 60마일(96킬로미터) 떨어진 가나안 중부 산악 지대에 있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으로 약 12마일이나 더 떨어진 에스드라에론(Esdraelon) 평원 방향이었고, 그 평원은 북쪽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의 통로에 있었습니다. 도단은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초원이 펼쳐진 자그마한 직사각형의 평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집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그들을 찾아 그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에서 어정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나쁜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했었습니다. 주변의 족장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그 문제아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과 한낮의 열기와 밤의 한기와 추위를 견디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요셉은 계속 갔습니다. 들짐승들과 산적들이 길에 잠복해 있었고, 그의 형들은 앞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기쁨이자 즐거움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헤브론! 세겜! 도단! 그곳의 이름들은 집을 떠나 방랑하며, 게다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눈먼 사람들에게 관해 말해줍니다. 헤브론은 “친교”를 의미하지만, 그의 형들은 그곳을 오래 전에 떠났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일에서 영적인 면의 상실을 암시합니다. 그 형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뜻이나 친교나 사랑에 대해 무슨 주의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들은 반항적이었고 자신만을 주장하는 고집쟁이였으며,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보살핌에 무관심하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쓴 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영적인 것을 상실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와 악한 행실로 인해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적의(敵意)로 인해 그런 소원(疏遠)의 상태를 지속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겜(Shechem)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강한 장소도 떠났습니다. 세겜은 그들의 누이 디나가 도덕적 순결성을 잃은 곳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도덕적인 성실함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불길한 곳으로 사람의 욕망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같이 세겜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두 번째 큰 손실은 도덕성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는 도덕성,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은 가지고 나왔지만 옳은 것을 따르고 그른 것을 멀리하는 힘은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도덕성에 도달하는 즉시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There is none that doeth good, no not one—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

도 없도다”(로마서 3:12)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When we were yet without strength…Christ died for us—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로마서 5:6-8)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오페라를 쓰도록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도단은 “그 두 우물”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그 주변의 물질적 편안함을 즐기며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그 우물 중의 하나는 이미 말라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가두기에 편리한 곳으로 그 마른 우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도단은 삶의 물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다가 그들은 어떤 것이든 육신적으로 편하다면 그것을 즐기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정말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하는 즉시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노예의 값으로 팔리고 그의 실종은 거짓말로 속여 넘겨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아로 된 궁전에서 비탄에 빠진 세상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지혜와 명철과 권고와 능력과 지식의 영께서 그분께 임하셨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는 “came un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요한복음 1:11). 그분 역시 노예의 값으로 팔려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고, 그분의 마지막 사라짐, 즉

그분의 빈 무덤은 유대인들에 의해 거짓말로 속여 넘겨졌습니다.

B. 어떻게 그의 형들은 요셉을 보았는가(37:18-27)

그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들의 의식적인 사악함에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37:18-23). 거기서 그들은 초원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양떼들과 같이 우물가 풀 위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르우벤의 음탕한 농담에 깔깔거리며 이웃들을 골탕 먹일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아니면 점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중팔구 그들 중의 하나는 도둑이나 늑대에 대해 빈틈없이 경계하는 망보기였을 것입니다. “어이!” 그가 소리칩니다. “누가 오는 지 알아 맞춰봐! 아빠의 어린 귀염둥이야.” 그들은 즉시 단합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요셉에 대한 그들의 연합된 적개심으로 기록합니다(37:18-19). 그들 사이에 어떤 말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을 미워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And when they saw him afar off, even before he came near unto them, they conspired against him to slay him.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Behold, this dreamer cometh—그리고 그들이 그를 멀리서 보자,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니라.”

그들을 가장 못 견디게 한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우월함과 권세를 미리 정하신 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요셉에게 그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에 그들이 어떻게 단합했는가는 놀랄 만합니다. 유대의 역사는 예수님에 관해 언급해야만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거부합니다.¹

그들의 요셉을 향한 연합된 적개심을 묘사하고 나서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불타는 시기심을 묘사합니다(37:20, 23). 그들은 “Come now therefore, and let us slay him, and cast him into some pit, and we will say, Some evil beast hath devoured him: and we shall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자 이제 그런 까닭에 그를 죽여 어딘가 구덩이에 던져 버리자. 그리고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말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그들의 증오의 대상인 그 옷을 그에게서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누는 그의 유쾌한 인사가 우리에게 거의 들리는 듯합니다. “샬롬, 내 형제들이여!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분노의 아우성과 함께 그들은 그를 덮칩니다. 한 명은 그의 팔을 비틀고, 또 한 명은 그의 옷을 잡아 찢고, 또 한 명은 그 옷을 사납게 진흙탕 속으로 내팽개치고, 또 한 명은 그의 등 위로 뛰어 오르

-
1. 한때 탁월한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던 아바 에반(Abba Eban)같은 논리정연한 대변인이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나의 백성」(*My People*)에서 예수님을 바리새 유대인, 강건한 갈릴리인들의 애국심의 대변자, 자신을 선지자로 간주하지 않은 사람,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단지 분명하게 전했던 사람쯤으로 만들어 버렸다. Abba Eban은 기독교를 바울의 책임으로 돌렸다.

수많은 유대의 역사를 집필한 맥스 디못(Max Dimot)은 예수님에 대해 항상 냉소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예의 바른 부고를 쓰려고 해도 그분에 대한 그런 역사적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그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증명하도록 만들어진 경건한 성서에 기초한 증거인 처녀의 잉태, 현자들의 방문, 다윗에까지 이르는

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자, 꿈꾸는 자여! 이제 네 꿈 얘기나 해 보시지!” 개똥처럼 그들은 요셉을 낚아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걱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바산(Bashan)의 힘센 황소같이,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의식하고 있는 사악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죄가 되는 르우벤의 유약함을 묘사합니다(37:21-22, 29-30). 장자인 르우벤은 불안정한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책임감과 자신의 빈약한 영향력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빈정거리며 적의에 찬 다른 형제들의 면전에서 그를 위해 감히 일어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타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사악함은 항상 반쪽짜리 선함보다 강합니다. 요셉을 위해 필요했던 것은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었지,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밀어 넣을 때 나중에 그를 구해 집에 보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갖는 우유부단한 착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맞대하여 옳고 그름 사

족보, 애급의 일화들을 목살했다. 그는 냉소적으로 복음은 실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고 사실 같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찬 후일담이라고 주장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대로 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의 주장들을 거부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다. 그 후에 그들은 텅 빈 무덤을 해명하기 위해 조작한 이야기로 날조했다. 마침내 그들은 몇 백 년에 걸쳐 예수님과와는 완전히 무관한 허구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뉘우침과 회개의 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언젠가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리라고 선포하셨다.

이에서 망설였던 빌라도는 또 다른 르우벤이었습니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 역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변변치 못했었고, 쉬루스버리 대학을 중퇴했으며, 에딘버러 대학교에서도 낙제를 했습니다. 부유한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압력을 가했고, 다윈은 무언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금(資金)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젊은 다윈은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러 캠브리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그는 시간을 낭비하며,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그가 맹세한 소명(召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쩍없이 붙들렸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아버지를 실망시킨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이제 후회한다고 감히 편지 쓰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그가 신학공부를 계속한 것은 그의 불안정과 두 마음을 품는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으나, 그의 성직자가 되기 위한 서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연장하고 싶어서 비글(Beagle) 호(號)에 박물학자로 계약했습니다. 그가 진화론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항해중일 때였고 얼마 후 그는 진화론을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진화론은 이미 전에 제시된 적이 있었고 대중으로부터도 매우 좋지 않은 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과 세상의 조롱을 받을 두려움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때, 르우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주변 상황이 떠 말아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동료로부터 동봉한 원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몹시 놀란 다윈은 그 발송인이 그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그 원고는 그의 진화론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고심하면서 그는 그 원고를 서랍 속에 밀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수개월 동안의 고민 끝에, 월레스(Wallace)로 하여금 진화론을 발견한 명예를 차지하도록 결정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

다. 마침내 그는 윌레스와 공동 저자로 하기로 한 다음에 그 자신의 종의 기원(Origin of the Species)을 추진했습니다.

교육계(教育界)는 그의 업적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다윈은 한 쪽은 교회 그리고 다른 한 쪽은 과학계라는 두 의자 사이에서 추락하게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주변상황이 격렬하게 떠맡아주었습니다. 호전적(好戰的)인 무신론자이며 물질주의자인 헉슬리(Huxley)와 후커(Hooker) 두 사람이 다윈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그의 견해에 대한 철저한 선동을 진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오래지 않아 모든 반대는 겁먹고 위협을 느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윈에게는 새로운 의심이 엄습해왔습니다. 구약에 대한 그의 믿음이 사라지자, 신약의 기적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의 흔적조차 제거되어 끝나 버렸습니다. 그의 피병과 두 마음을 품은 별로 갑자기 그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튼튼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체질이었던 그가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었겠습니까? 죄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적 증상은 그의 만성적 불안에 의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우유부단의 대가로 그의 건강을 지불했고 그의 배신의 대가로 그의 혼을 지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타협과 주저함은 단지 그를 더 강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르우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양심을 팔아 형제들의 환심을 사려 했고 죄가 되는 그의 유약함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우유부단은 결국에는 어떤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르우벤의 유약함을 우리에게 얼핏 드러내 보인 후에, 이야기는 이제 유다의 세속적인 계산을 말합니다 (37:25-27). “And they sat down to eat bread: and they lifted up their eyes and looked, and, behold, a company of Ishmeelites came from Gilead with their camels bearing spicery and balm and myrrh, going to carry it down to Egypt. And Judah said unto his

brethren, What profit is it if we slay our brother, and conceal his blood? Come, and let us sell him to the Ishmeelites, and let not our hand be upon him—그리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보라, 한 떼의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오니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유다에게 일석이조의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요셉을 없애버릴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간의 현금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더 냉혹한 범죄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Judah)의 직계 후손인 유다(Judas)가 저지른 범죄는 이것을 더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마찬가지로 적은 액수에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C. 어떻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렸는가(37:28-36)

“살롬! 당신들은 애굽으로 갑니까?” 유다의 환호에 다가오던 미디안족의 무리가 그들의 낙타의 고삐를 당깁니다.

“그대들에게도 평화를” 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그럼소, 우리는 그리로 가고 있소. 향유 좀 사겠소?”

“아, 글썄요. 노예를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별력을 갖춘 영리하고 똑똑한 청년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흥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찢어 보는 한 상인 앞에 요셉은 세워졌습니다. 상인은 마치 요셉이 말인 듯이 훑어 보며 그의 치아를 살피고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은전 오십이 어떻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군!” 상인이 대꾸합니다. “좀 모자라는 아이 같은데, 콧물을 흘쩍이고 있잖아. 열 개 드리리다.”

“은전 열 개요!” 유다가 외칩니다. “그가 얼마나 젊은지 보십시오. 최소한 오십 년은 문제없어요. 게다가 그는 여우처럼 영리합니다. 25개면 어떻겠습니까?”

“스무 개! 더 이상은 안 되오.” 그 미디안 상인이 말합니다. “어이, 거기, 엘리파즈 이제 그만 가지.”

“은전 이십 개!” 유다가 소리칩니다. “좋습니다, 주인 어른, 이제 저 아이는 당신 것이요.”

이와 같이 그 잔인한 흥정은 끝나고 요셉은 끌려갔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그들의 막힌 귀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의 눈물에 무슨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유다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여종의 아들들이 무슨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제거했고 게다가 그들의 돈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현금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겠습니까? 열 명은 각각 비열한 은전 두 개씩을 챙겼고, 그 대가로 결코 다시는 안식할 수 없는 양심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혼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싼 거래들이 있습니다. 멋대로 하고픈 어떤 순간이나 은밀히 즐기려는 어떤 쾌락이라면 함께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의 고뇌하는 외침이 공모자들의 영에 관 덮개처럼 드리웠습니다. 유다가 흥정할 때 르우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구덩이에 멈추어 서서 요셉을 부르려고 할 때에 그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the child is not, and I, wither shall I go?—아이가 없도다. 그러면 나는, 나는 어디로 가야하리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아마도 아주 못마땅하고 놀란 표정으로 르우벤

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 르우벤, 입 다물어. 너도 우리처럼 죄인이야. 자! 이것을 내 전대에 놓고 조용히 해. 우리는 단지 그 애를 팔았을 뿐이야, 죽이는 것보다는 잘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 애굽에 있는 어떤 열간이가 그를 살 것이고, 십중팔구 그는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할 것이냐고? 아무튼, 아버지가 쓸데없이 요셉을 보냈으니, 우리들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아버지에게 들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의 것으로 보이는 겹옷을 발견했다고 말하자. 여기 어린 염소를 데려와 그 피에 옷을 적시자. 그러면 그럴 듯하게 들릴 거야.”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오래 전에 어린 염소로 그의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어린 염소로 늙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그 옷을 피로 얼룩지게 하고 거짓말을 꾸며내어 그들의 죄를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은 매우 어설픈 피난처입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여 위로할 길이 없는 슬픔에 빠진 야곱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늙은 야곱이 가슴속 깊이 놀라 흐느껴 우는 소리가 파멸의 종소리처럼 진영으로 울려 퍼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호소하기 위해 한때 라헬의 소유였던 장막으로 물러나자,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죄책감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빠져 나갔습니다.

IV. 요셉의 형제(38:1-30)

창세기 38장은 거의 공공연하게 읽지 않는 장(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데, 아마도 드러내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행동들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에 대한 슬픈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인간 본성은 음란합니다.

그 이야기는 집 안에서의 요셉의 위치와 집 밖에서의 요셉의 경건함에 대한 기록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높은 도덕성의 밝은 빛은 유다의 원칙 없는 행동의 지저분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지자의 하나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단지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은 참으로 은혜의 기적일 뿐입니다.

A. 유다와 그의 아들들(38:1-10)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유다는 보잘것없는 은전 두 개를 그의 몫으로 부당하게 챙기고 난 후에,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날마다 그는 그의 늙은 아버지의 위로할 길 없는 슬픔을 바라보아야 했고, 밤마다 그의 컷전을 울리는 요셉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에 잠을 깨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대로 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우선 우리는 유다의 제멋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 듣습니다(38:1). "Judah went down from his brethren, and turned in to a certain Adullamite, whose name was Hirah—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서, 어떤 아들람 사람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그 형제들의 행위를 깊이 생각해 본 후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사귀는 것이 더 나은 변화를 주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히라는 곧 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아논 사이로, 그 다음은 동료로, 그리고 유다의 공범자로 끝납니다. 유다가 결혼한 여인을 만난 것도 그의 구원받지 않은 친구와 함께 머물 때였습니다. 한 가지 일이 또 다른 일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세상적인 신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38:2-5). 우리는 그녀로 대표되고, 그녀가 양육한 가족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녀는 “a daughter of a certain Canaanite, whose name was Shuah—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음란한 이교도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지 않은 부류의 이교도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악한 종교의 관행을 따르는 죄의 저주를 받은 족속의 일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의 구원 받지 않은 아내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더 나쁜 것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파수꾼”)이었습니다. 그의 밝고 작은 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주시했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아버지 유다의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어머니의 무관심과 그의 아버지의 영적인 일에 대한 태만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밝은 눈은 어머니의 종교의 음란함에 흥미를 갖고 마음이 점점 쏠리면서 주시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오난(“힘”)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선택된 이름과 더불어 유다가 아내로 선택한 이교도인 여인의 영향력과 그 가족 안에서 우월한 입지가 커져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난 자신은 사악함 가운데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셀라(“부수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자기 가정을 다스릴 권한을 포기하고 아들들의 훈육을 그의 아내에게 맡겼다는 징후를 더욱 보여 주었습니다.

이교도 여인이 가족의 일에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머지않아 유다의 아들들이 사악해지는 것을 예측하게 됨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38:6-10). 가장 나이가 든 아들 엘이 청년이 되었을 때, 유다는 마침내 스스로 분발하여 그 아이를 결혼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다. 그가 아들을 위해 선택한 며느리는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의 이름은 “중려나무”라는 의미인데, 아름답고 날씬하며 우아함과 쓰임새 있는 여인임을 연상케 합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위를 주신 것으로 볼 때, 우리는 그녀의 이교도의 출생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고상한 인격과 고귀한 포부를 지닌 여인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유다가 맏아들의 혼사를 그 이교들과 협상할 때, 틀림없이 유다가 말했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은 아버지의 신앙적으로 별난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혼에 관한 일에 협조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의 인생, 즉 매우 악하고 짧은 일생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Er, Judah’s firstborn, was wicked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 LORD slew him—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젊은이에게 삶을 청산할 날이 매우 신속하게 찾아왔습니다.

둘째도 그의 형만큼 악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하나님께 계획적인 모독 행위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²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에게 다말과 결혼하여 그의 형을 위해 자손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오난은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그 결혼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메시아에 관계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아버지의 바람에 협조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멸함을 뻔뻔하고 상스럽게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 그 자리에서 그저 죽이셨습니다.

2. 창세기의 34 율법 중의 하나로 후일 모세의 율법에 포함된다.

B. 유다와 그의 죄(38:11-26)

유다가 때때로 그의 가족에게 무엇인가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을 본보기로 볼 때에는 통탄할 만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인간적인 비열함과 가장된 덕행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잘 나타났음에 틀림없었습니다.

1. 그의 왜곡된 가치관(38:11-14)

두 아들을 장사 지낸 후, 유다는 그들의 죽음을 죄 없는 다말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Remain a widow at thy father’s house, till Shelah my son be grown—내 아들 셸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Lest peradventure he die also, as his brethren did—그도 또한 그의 형들처럼 죽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 다말은 영적인 기질을 지녔던 여인인 것 같았으며 메시아의 개념이 그녀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그녀의 탓으로 넘기시 비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그 자신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교도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들의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좀더 영감을 주는 경건한 본보기가 되었다면, 그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더 철저했다면, 상황은 썩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다말을 비난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뇌의 진정한 근원이었던 이교도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혼에 긍휼을 베풀어 그녀와 그 해로운 영향력을 현장으로부터 치우셨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유다에게 대

단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 아들람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는 대신에, 그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히라는 어떻게 그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덤밭에서 양털 깎는 시기일세. 항상 재미있는 일이 많거든, 유다. 거기 가서 재미 좀 보지 않겠나? 이 친구야, 일도 좀 잊게 될 걸세.” 유다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재앙들이 그의 가정에 찾아 왔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서 그의 고통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막내아들, 셸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관례가 정한 대로 다말과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과부에게 한 그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엄숙한 약속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대속(代贖)이 충분히 강구(强求)되지 않고 한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유다는, 실제로 두렵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몹시 싫은 다말이 과부로 지내야 한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계보에 직접 서 있었지만 부정직해졌고, 그가 친구로 삼은 이교도들처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처사가 왜곡되었습니다.

2. 그의 개인적인 비열함(38:15-23)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되자, 다말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를 자극한 것은 단지 결혼을 다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아들들과의 지나간 경험들을 통해 분명히 더 이상 그 가족과 연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떨쳐버렸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다의 가게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감지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나뻐올지라도 그녀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녀는 사원의 창녀로 가장했습니다.³ 가나안 족속의 종교는 사악한 상징물들의 사용뿐 아니라 육신에 대해 직접적인 봉사로서 사원의 창녀와 갖는 외설적인 행위에서 숭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다말은 큰길로 나가서 스스로 그 지역 사원의 여사제인 체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말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그와 같은 여자들이 제공하는 접대에 선뜻 응할 대상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오래지 않아 유다가 그 길로 왔습니다. 세상의 흐트러진 도덕성이 그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는 멈추어 섰고, 당연히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몸값은 염소 새끼 한 마리였는데, 분명히 유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걸린 남자를 아는 다말은 그에게 화대 대신에 담보물을 요구했고, 유다의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쯤 이미 욕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른 유다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내 놓았습니다.

그 도장은 그의 반지였는데, 그 당시에 진흙 판에 그의 서명을 새겨 넣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팔찌”는 아마도 값진 금사슬로 그의 소유를 나타냈습니다. 지팡이

3. 여기서 사용된 창녀(harlot)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성스럽게 바쳐진 자”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는 다말이 단순히 자신을 평범한 거리의 여인으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는 그가 목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동물이나 꽃이나 새와 같은 어떤 인식 표지를 새긴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그의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 순간의 욕망을 위하여 그 자신과 재산과 지위를 쉽사리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두 번째 예서가 되어 그의 길을 즐겁게 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나중에 베나민을 위하여 나선 사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같이 임종하는 야곱에게서 가차 없이 저주를 받았을 것이었습니다.(창세기 49장)

유다는 욕망을 채우고 나서, 그의 반지, 팔찌, 그리고 지팡이를 뒤로 한 채, 그의 명성의 끝자락마저 뒤로 한 채, 그리고 그가 남긴 간증의 찢겨진 조각들을 뒤로 한 채, 그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다시 그의 친구 아달람 사람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 매춘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히라는 염소 새끼를 데리고 그 여인에게로 가서 유다가 두고 온 담보물을 찾아오겠다고 유다의 중개자가 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그 유쾌한 젊은 여인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원의 그 매춘부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은 히라가 설명하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물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의 평판이 훼손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동안 법석을 떤 후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가볍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것이고, 그것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 그의 위선(38:24-26)

삼 개월이 흘러갔고, 그 사건은 유다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졌습

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혀를 나불거리며 소문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다말이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졌습니다. “Bring her forth, and let her be burnt—그녀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녀를 불사르라”고 그가 거칠고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다스런 위선자들 중에서 유다보다 더 나쁜 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로 지껄이다니! 그 자신과 다말 사이의 차이는 단지 다말은 여자였고 그는 남자였으며, 다말은 들켰고 그는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불사르라!”고, 그는 자기 머리 위로 도로 떨어질 돌을 공중으로 던지는 미친 사람처럼 불붙은 나무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뚝을 가져오고 나뭇단과 불을 가져오라. 그녀를 끌고 오라. 그런 천박스런 음란한 년이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내 가족을 욕보였으며 우리 유다 가문을 수치스럽게 하였도다!” 유다는 아직도 처음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다말을 탓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셀라에게 다말을 주어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의 양심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렵고, 싫어하게 된 그 여인을 없애 버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를 불사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서둘러 다말의 집으로 떠날 때, 그 공개 화형식에 관한 소식은 온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곧 다말은 집에서부터 마을의 길가로 끌려나왔습니다. “잠깐만요”하고 그녀는 아마 고통을 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세요. 내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나는 내 범죄에 가담한 공범자를 고발해야 해요.” 그 선언은 얼마나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한 증거물들을 가져 오기 위해 아마도 급하게 집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다시 마을 광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말뚝은 이미 세워졌을 것이고, 흥분된 군중들은 유다를 동정하며 다말의 죽는 광경을

즐기려고 모여 들었습니다. 그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여인이 유다 앞에 끌려와 그녀의 사형이 재가(裁可)되고 그녀의 공범이 거명(擧名)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다의 거무스레한 얼굴이 갑자기 그슬린 피부 아래로 창백해지며, 그의 눈은 전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다말의 손에 쥔 것들을 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y the man, whose these are, am I with child—이것들의 임자에 의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Discern, I pray thee, whose are these, the signet, and bracelets, and staff—내가 청하건대,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 이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하십시오.”

유다의 죄가 그 자신의 실상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다말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밖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She had been more righteous than I…Let the woman go—그녀가 나보다 더 올바르도다…그 여인을 가게 하라” 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유다가 오래 전에 주어야만 했던 것을 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얼굴에 회칠한 것이었습니다. “She hath been more righteous than I; because that I gave her not to Shelah my son—그녀는 나보다 더 올바르도다. 이는 내가 그녀에게 내 아들 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는 자신의 부도덕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비켜가면서 말했습니다. 화형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제 그에게 넘겨졌고,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도덕함을 처벌하지 않은 채 두시지 않습니다. 유다가 비록 그의 민망스러운 죄를 피해 갔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은 성경으로 편입되었고,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를 통해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C. 유다와 그의 자손(38:27-30)

유다의 이름은 그 뒤이은 사건들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한 그 여인과 완전히 손을 씻은 것처럼 보였으며, 이제 그에게 태어날 그의 아들 중의 하나가 메시아 계보에 직접적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유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전혀 그에게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인 여인의 씨, 즉 수치스러운 행위의 씨를 취하시고, 그 행위의 결과인 아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직계 조상으로 만드시리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유다가 깨닫기에는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벌로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둘을 데려가시고, 이제 은혜로 그에게 둘을 대신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완전히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말이나 그녀의 아들들에 대해 관여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구속된 아이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세라라고 불리는 아이가 먼저 태어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의 손이 보이자 그 손에 주홍색 실을 매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나중에 성경에서는 그 주홍색 실이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벽에 있는 그녀의 창문에 묶어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주홍색 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서 대속(代贖)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라는 대속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라는 시초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고, 왕실의 아이인 베레스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산파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 작은 녀석을 보며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그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How hast thou broken — 어찌하여 네가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라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This breach be upon thee—이 찢고나움이 네게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무시된 채, 이교도인 산파의 외침 가운데 그 유별난 아이로부터 그리스도의 계보가 또 하나의 세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다말에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임했습니다.

V. 요셉의 멩에(39:1~40:23)

로마에 도착한 바울처럼, 요셉은 사슬에 묶여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부푼 소망들은 산산이 조각나고 그의 인생은 망쳤습니다. 그의 형들의 조소는 아직도 그의 귓전에 울렸습니다. “잘 가, 꼬마야! 좋은 꿈 꿔!” 그의 그 멋진 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세에 관한 꿈들, 지위에 관한 꿈들, 세상의 부와 자원을 그의 무릎 위에 쏟아 붓던 꿈들은 어찌되었습니까?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나이의 사막을 거쳐 애굽의 요새들을 지나 그 땅으로 들어가는 뜨겁고 먼 고된 여행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짐짝처럼 꼬리표가 붙여지고 증명서가 발부되고 도장이 찍혀져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건 뭐요?” 세관 창구에 앉아 있던 관원이 묻습니다. “은전 이십 개에 해당하는 산 몸뚱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송장(送狀)과, 가나안의 유다라는 사람이 서명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고대 애굽의 영화가 그의 놀란 눈앞에 펼쳐지자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합니다. 그는 태고(太古)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진 경이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오래 전에 애굽에 왔을 때, 이미 그 거대한 피라미드는 천 년 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일 강을 따라 내려갈 때, 요셉의 예리한 눈은 모든 것을 주시했습니다. 세상의 부(富)를 가지고 애급으로 몰려드는 엄청난 낙타의 대상들, 잔잔한 나일 강의 물 위로 분주히 오가는 파피루스 배들, 거대하고 번창한 도시들, 그리고 우화로 유명한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젊은이의 슬픔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국적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움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가 있으리라고는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삶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상의 대열들은 마침내 노예 시장에 도착했고, 꼬리표에 가격을 매겨 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준수한 용모나 그의 차분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분명한 자태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익숙한 한 구매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풋내기는 얼마요?” 말한 사람은 파라오 경위대의 제복을 입은 장교였습니다. 정해진 순서를 밟은 후, 요셉은 보디발에게 낙찰되었고, 흥정에 만족한 그는 그 타국인인 시골 아이를 끌고 교외에 있는 그의 널찍한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열여덟의 나이에 애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백십 세의 나이에 영광 속에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의 팔십 년 동안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였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이야기입니까! 요셉에게 어떤 점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생애가 설계되도록 했던 것입니까? 그 날 경매대에서 팔려나간 그 수많은 노예들이 단지 곤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세월의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사라질 때, 그에게 어떤 점이 있어서 높은 신분으로 오르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감옥에 있든지 궁전에 있든지 간에 그에게 어떤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를 믿고 승진시켰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혼란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 있었던 시대와 그의 목에 황금사슬이 둘러 있었던 시대 사이에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추는지를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소망의 닻을 그 휘장 안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A. 노예 : 부유한 주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신임받음(39:1-6)

요셉의 생애에서 당시의 그의 삶의 비결은 끝없는 부지런함이라는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슬픈 얼굴을 하거나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화가 난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운명에 대한 분별없는 비판이나 복수를 계획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쓸데없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암처럼 쪼먹는 대망(待望)의 복수를 향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터덜터덜 걷는 짐승수준으로 그를 전락시킬,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목인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 초기의 놀라운 충격이 가신 후에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도록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현명하신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그는 스스로 충분히 확신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 받아들이시는, 온전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암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가 되길 원하신다면 나는 애굽에서 최고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는 내 주인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그를 더 잘 알게 될 때까지 배울 것이다. 나는 내 주인의 관심사를 배워 내 것으로 만들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보디밭이 아닌 주께 하듯이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굴레는 더 이상 노예의 굴레가 아니라 주님의 굴레가 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목인 노예로 생각하여 내 모든 행위와 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너무나 자주 역경 속에서나 역경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영광되게

할 길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삶에서 역경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높은 지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악명 높은 나치의 라벤스부르크(Ravensbruck)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은 죄수번호 66730으로 그곳에 수용되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공포의 장소에서, 주 예수께 헌신되고 용기 있는 종은 결심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 동조자들이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연기가 되어 화장터 굴뚝으로 올라가는 것뿐인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매일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면, 매일같이 등뼈가 시리는 잔혹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모욕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벌레들로 괴롭고 매질 당하고 계속 굶주려야 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떨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녀는 라벤스부르크의 공포의 수용소가 생긴 이래 일찍이 알지 못했던 최고의 수감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8동 수용소에서, 그녀는 은밀히 성경공부 시간을 만들어 함께 갇힌 비참한 동료들에게 삶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고난의 결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인생 말년에 세계적인 사역을 열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강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형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도전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박해 받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수 없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녀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80여 명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과 함께 짐짝처럼 실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화물칸에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왜 자신에게 그토록 목마름과 말도 못할 만큼의 더러움

과 끔찍한 공포와 자신의 약한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견디도록 내모셨는지에 대해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압니다! 그녀의 삶과 사역을 통해 수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길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나타낼 작정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요셉은 보디발이 일찍이 거느리지 못했던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 자신의 임무로 삼았고, 보디발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빈틈없이 통솔하고 판단하는 데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곧 그의 히브리 노예에게서 훌륭한 관리자의 소질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자였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일을 잘했습니다. 그는 지도력이 있었고, 창조적인 재능이 있었고, 일을 이루는 데에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기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꺼이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뿐 아니라 언제나 주인의 의중을 앞서 미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이었고, 그의 열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미리 계획을 세웠고, 언제나 미래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흔치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그의 유별난 노예에 대해서 다른 점들, 특히 요셉의 종교적 믿음에 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의 조상들의 믿음을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가 말하는 그 낯선 여호와에 대하여 물어 보았을 것이고, 어떻게 요셉의 조상들이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여 가나안으로 이주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는지에 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간증 중에서 어떤 것은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made all that he did to prosper… and he made him overseer over his house, and all that he had he put into his hand. And it came to pass from the time that he had made him overseer… that the LORD blessed the Egyptian’s house for Joseph’s sak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upon all that he had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그의 주인이 보니, 주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가 요셉을 그의 집 감독으로 삼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니라. 그리고 그가 요셉을… 감독자로 삼은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사업은 더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장교 식당에서 담소하는 보디발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 라고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자를 내 관리인으로 삼은 후부터의 일이야. 그 히브리 노예를 어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헐값으로 샀는데, 그것이 황재였어. 내가 보아온 관리인 중에서 제일이고, 아주 정직해! 나는 정직한 노예는 본 적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정직한 관리도 없는데, 이 자는 아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는 그것을 그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라는 좀 이상한 이름의 하나님이야. 내 모든 노예들이 그를 경배했으면 좋겠어!” 이와 같이 우리는 노예로서, 부유한 주인에게 신임받는 요셉을 봅니다. 우리는 끝없는 성실함으로 주목받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요셉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처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B. 성공한 남자 : 집요한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시험받음(39:7-20)

악마는 분명히 요셉 같은 남자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자들의 음모를 통해 요셉을 과멸하게 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악마는 한 여인의 뻔뻔한 음모를 이용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당시의 그의 삶의 비결 또한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복 받은 무능함입니다. 요셉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없는 하나는 가만히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a goodly person and well favoured—용모가 준수하고 잘 생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잘생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의 미모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그의 주인의 아내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도망가는 것일지라도 언제나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이 실제로 강력하게 닥치기 전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 여인이 그를 보는 눈초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요셉이 있는 곳에 함께하려고, 특히 그가 혼자 있을 때 그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와 대화하려고 하거나, 그녀가 요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에게 무엇인가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 수법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입니다. 요셉은 그 일이 다고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여인을 피할 방법을 나름대로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예의가 바른 자였지만, 그녀와 단 둘이 결코 부딪히지 않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암호랑이 같은 그 여인은 그녀의 먹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요셉이 그녀를 피하면 피할수록, 그녀는 그에게 더 다가감으로 보디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녀가 그 잘생긴 노예에게 반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모든 젊은 남자가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열정과 욕망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에

의해 버림 받은 친구 하나 없는 이방인이었으며, 이국땅에서 노예가 된 자였습니다. 그 집요한 여인은 그를 심하게 유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하며 악마는 아마도 그의 귀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왜 그래?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걸.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해. 애굽에서는, 잡히지만 앓는다면 도덕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해도 젊은 남자가 매력적인 여인과 불장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때 틀림없이, 마귀는 접근 방법을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요셉의 생각 속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생각 속에 그려 왔던 그런 유형의 그림들, 즉 사악하고 유혹적인 그림들을 그렸을 것입니다. “너는 어차피 그 일로 비난받고 있잖아” 하며 그는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너를 판단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너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래 전에 그 기회를 이용했을 거야. 그들 생각에 너는 이미 유죄야. 그러니 너의 고상하고 위대한 도덕성이 결국 네게 무엇을 해주었니?” 그런 다음에 마귀는 그가 좋아하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요셉은 유혹이 다가옴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유혹으로 인해 치닫는 위기 상황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언제든 그 누군가가 보디발에게 귀땀이라도 하면 그는 매질을 당하고 살해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벼락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그 여인이 홀로 있는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치레를 떨쳐버리고, 그에게 그녀 자신을 내던지며 자신을 받아주도록 강요하며 애원했습니다. “But he refused, and said…Behold, my master wotteth [know] not what is with me in the house, and he hath committed all that he hath to my hand; there is none greater in this house than I; neither hath he kept back any thing from me but thee, because thou art his

wife: how then can I do this great wickedness, and sin against God?—그러나 요셉이 거절하며…이르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께서 집 안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알지 아니하며, 내 손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라.”

바로 거기에 요셉의 복 받은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그를 신뢰하는 주인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정의감에 바탕을 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믿음에 근거하여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게 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I will not)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I cannot)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녀가 강요하는 그런 행동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무분별(無分別)하며, 영적으로는 불가능한 행위였습니다. 그 여인이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믿는 자인 그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혹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행위입니까.

그것이 요한이 “Whosoever is born of God doth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eth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니라”(요한일서 3:9)고 말할 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니라는 대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그녀는 계속 유혹했고, 어느 날 요셉에게 육체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도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단지 의도적으로 달아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이며 최고 수준의 확신입니다. 성경은 “Flee youthful lusts—젊은이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경건치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건치 못한 무리들, 욕망을 불 지피는 서적, 상상력을 더럽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그 여인은 격노했습니다. “수치(羞恥)당한 여자는 지옥의 분노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에 떨며 서 있는 그녀의 손에 요셉의 상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급하게 사악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그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반드시 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비명을 듣고 하인들이 뛰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손은 얼마 동안 바쁘게 움직였을 것이고, 거기에 요셉이 유죄라는 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그녀의 형클어진 머리칼과 찢어진 옷은 그 사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하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보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다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거짓말에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누명을 쓴 요셉은 은혜도 모르는 악한으로 몰려 감옥에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C. 누명 쓴 남자 :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시험받음 (39:21~40:23)

오로지 그의 상의(上衣)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도 잘못되었지만, 또 다시 그의 상의로 인하여 염색꾼으로 낙인찍히게 된 것은

너무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삶의 비결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뛰어난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음산한 지하 감옥에서 요셉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투옥될 때에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가 애굽에 온 것은 18세일 때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을 도와 그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데에는 아마도 2년쯤 걸렸을 것입니다. 그의 뒤로 공허하게 울리는 조종(弔鐘)소리와 함께 감옥 문이 닫혔을 때에 그는 아마 20세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감옥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30세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용히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요구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자, 너의 하나님은 어떠시니?” 요셉을 알고 그의 증언을 듣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은밀히 믿는 사람들 역시 그의 하나님에 대해 틀림없이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성실함과 의로움과 도덕적인 순결함을 중상과 감옥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요셉의 고난은 분명한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고, 내가 그분께 의뢰한 것을 그분은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아직 나의 꿈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지루한 길일지라도 이 길은 확실히 보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그분은 요셉에게 그가 앓힌 것이 아니라 조그만 징표들을 주셨습니다. 간수는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shewed him mercy, and gave him favour in the sight of the keeper of the prison...The keeper of the prison looked not to any thing that was under his hand;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which he did, the LORD made it to prosper—주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공황을 보이시고, 간수장의 눈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니…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어느 것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이 잃은 것을 간수가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요셉이 보여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살폈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들의 허약한 감정에 동정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지위를 얻게 될 뿐 아니라, 그 감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죄수가 그들의 고민을 그와 기꺼이 나눌 정도로 거기에서 봉사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실수로 인해 투옥된, 파라오의 잔을 맡은 자가 그가 꾸곤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즉시 요셉은 그 꿈이 약속으로 가득 찬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봐요, 기운 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In three days Pharaoh will restore you to your office. And then, my lord, please remember me. I was stolen away out of the land of the Hebrews: and here also have I done nothing that they should put me in this dungeon—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당신의 지위에 회복시키리니, 그러면 그때에 내 주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이고,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이 감옥에 가두어야 할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잔 맡은 자의 좋은 소식에 고무된, 파라오의 빵 굽는 자가 용기를 냅니다. 그도 자신이 꾸곤 꿈을 요셉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요셉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흉조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

었습니다. 삼 일 안에 빵 굽는 자는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요셉은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이야기하고 틀림없이 그 불쌍한 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그 이교도의 가슴에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지식을 밝혀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에게 소망이 지연됨을 읽습니다. 삼 일 안에 감옥 문이 열리고 파라오의 전령이 두 칙령을 전했습니다. 잔 말은 자에게는 사면이, 빵 굽는 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손에 열쇠를 꼭 쥐고, 잔 말은 자를 위해 문을 열려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황급히 움직이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그럭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일이 잘되면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것은 “did not the chief butler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그 잔 말은 담당관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였습니다. 여기에 캠벨 모건 박사(Dr. G Campbell Morgan)는 재미있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언제나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집사(Butler)는 아닙니다!”

“Hope deferred maketh the heart sick—소망이 더디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잔 말은 담당관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파라오가 그의 석방을 명하리라는 소식을 기대하는 가운데 며칠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날들이 주간(週間)들로 길어져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잔 말은 자는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확실히 그는 결코 잊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간들은 달들이 되고 달들은 해가 되고 한 해가 또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음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자살이라는 비열한 사고에 빠져 진흙투성이 계단으로 기어 내려가지 않고, 대신에 야곱의 사다리를 빌려 자신을 천국의 회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일찍이 말씀을 붓으로 기록하기 아주 오래 전에, 요셉은 그들의 놀라운 진리로 들어갔었습니다. “As the hart panteth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eth my soul after thee, O God. My soul thirsteth for God, for the living God…Why art thou cast down, O my soul? and why art thou disquieted in me? hope thou in God: for I shall yet praise him for the help of his countenance—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는 그분의 안색(顔色)에 힘입어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편 42:1-5).

VI. 요셉의 복(41:1-44)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총리였습니다. 그의 권세가 백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수상(首相)이라고 부르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나라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가진 관료의 수장이었습니다.

총리는 지방 업무를 일 년에 세 번씩 보고하는 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지역 감독자들도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방의 경계, 토지의 배분, 연체된 세금, 국내의 치안 등에 관한 모든 일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직함을 가진 모든 기관장들이 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무덤들은 우리에게 관직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총리는 먼 곳에서 온 사절들과 부섭정들을 접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강력하게 중앙집권적인 권위를 지닌 왕권을 떠받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군주들을 감시하

고 그들의 세력들을 적당히 견제하여 파라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 총독들을 감시하는 감독관들을 임명하는 것도 그의 책임이었으며, 때때로 그 감독관을 애급의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의 임무였습니다. 무덤의 벽화들은 지방의 관료들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들을 기록하는 서기들도 보입니다. 그는 나일 강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즉 많이 넘치는지 아니면 메마른지도 점검해야 했으며, 수로들과 운하도 살펴야 했고, 효과적인 수리를 위해 인력을 얼마나 동원해야 하는지도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보좌관들에게 인구조사표, 농사수확예상량, 가축들의 양호 여부 등에 관해 반대심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총리가 한없이 고되며 인정받지도 못하는 노역에 매인 농노들을 알은 체도 하지 않고 거만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행차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호위병들에 둘러싸인 채,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미천한 노역자들 앞을 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차는 황금으로 꾸며졌고, 그의 집은 부유한 교외에 있는 저택이었으며, 그의 삶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12년간의 오랜 고난과 침묵을 통해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지위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학교는 우리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러한 지위를 준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프린스턴(Princeton)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prison)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몇 차례 격렬한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시험에서 우등상을 받으며, 결국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졸업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오자, 급하게 수염을 깎고, 복장을 갖추게 해서 파라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애급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로 영전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감방들의 열쇠를 들고 매일 따분한 순찰로 시작하던 그 아침에 고난

이 끝나고 영광이 시작되리라고는 조금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역경의 세월은 끝나고 밝은 미래가 왔습니다.

A. 하나님의 섭리(41:1-8)

영국 문학의 특성을 일깨운 선구자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는 고난에 아주 익숙했었습니다. 쿠퍼의 육신은 매우 연약했고 신경은 쇠약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그의 눈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떨시와 학대가 일상 생활인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문학의 거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바다에 그분의 발자국을 남기시며
폭풍을 타고 움직이십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탄광에서도
숨씨를 잃지 않으시고
빛나는 계획을 고이 간직해 두셨다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의 예를 요셉에게서 봅니다. 파라오의 감옥에 갇힌 노예의 석방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때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

다. 그 잔을 맡은 자는 그를 잊었습니다. 몇 날, 몇 주, 몇 달, 그리고 몇 년이 단조로운 일상(日常)들과 함께 흘렀고, 요셉은 산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잊혔고, 그의 인격과 인생을 거짓말로 빼앗은 그 사악한 여인에게서도 잊혔고, 그에게 많은 신세를 진 보디발에게서도 잊혔고, 잔을 맡은 자에게도 잊혔으며, 그를 못 잊는 그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아버지도 그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에게서 잊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빵 굽는 자도, 잔 맡은 자도 아닌 바로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시작은 왕의 꿈으로부터였습니다. 왕이 꾸는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잠들었을 때에는 소에 관한 꿈을 꾸었고, 그 후에 다시 잠이 들었을 때는 옥수수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꿈에서 살찌고 건강한 일곱 마리의 암소가 나일의 생명의 활기를 주는 강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라오 왕은 흠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암소들이 저 정도는 되어야지! 그는 즉시 전국적으로 가축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같은 강에서 갑자기 파라오 왕을 소름끼치게 하면서 일곱 마리의 소가 더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뼈가 앙상하고, 굶주리고, 병든 암소들인지 몰랐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놀란 파라오가 눈여겨보는 앞에서 기근으로 사나워진 마르고 배고픈 암소들이 살찌고 잘생긴 소들에게로 나아가 발굽과 가죽이 있는 채로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잠을 청했지만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꿀 뿐이었습니다. 그는 황금빛 옥수수밭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서서 일곱 개의 빛나고 훌륭한 황금빛의 우량한 이삭들이 미소 짓는 햇살 아래에서 산들바람에 자랑스

렵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일곱 개의 거뭇거뭇하고 마르고 시든 악몽 같은 이삭들이 솟아났습니다. 그 이삭들은 잘 자란 이웃 이삭들에게로 향하여 그 줄기와 잎을 먹어 치웠습니다. 파라오는 또 다시 공포 속에서 깨어났고 그제야 그 꿈들이 불길한 징조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들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왕의 근심에 대해 이야기 듣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in the morning that his spirit was troubled; and he sent and called for the magicians of Egypt, and all the wise men thereof; and Pharaoh told them his dream; but there was none that could interpret them unto Pharaoh—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파라오에게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가관이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뜻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호들이 수놓인 그들 특유의 옷을 입은 지혜로운 자들, 학자들, 현자들 그리고 꿈에 박학하다는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가 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열심을 다하여 들었습니다.

도트(Thot) 신이 그를 모시는 주술사를 통해 파라오 폐하에게 그 꿈의 뜻을 알려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트는 모든 마법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신들의 주술적 이름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신들이 그를 두려워했으며, 주술적인 제식(祭式)으로 그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도트는 그의 숭배자들에게 다른 신인 오시리스(Osiris), 아누비스(Anubis), 또는 세트(Set)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감의 신이었습니다. 도트에게 주술과 기도를 배움으로써 한 귀신은 다른 귀신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마술사들은 파라오의 꿈의 비밀을 도트로부터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주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힘으로 억압할 수도,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위협할 수도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께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신도 신비주의에 입문해 있는 파라오는 신하들이 자문하고 주문을 외우는 모습들을 마음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다고 당황함과 착잡함으로 고백했을 때 그는 낙담했습니다. “왕이 시여”, 그들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모든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우리는 실패로 끝났나이다. 토트가 대답을 하지 않나이다. 왕께서는 그 꿈의 뜻을 다른 데에서 찾으셔야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등장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근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의 꿈을, 도대체 누가 그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B.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41:9-13)

파라오의 왕좌 옆에 궁전의 높은 한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오래된 친구인 잔을 맡은 자로서 왕에게 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그 꿈 이야기를 들었고,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자신에 찻었다가 어리둥절해 하며 드디어는 완전히 두려움과 당황해 하는 마법사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그에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그 옛날 감옥에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에 몸서리쳤을 것이고 그 생각으로부터 뒷걸음질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빵 굽는 자의 꿈을 기억했고, 그 감옥을 관리했던, 그리고 한 번 그의 필요에 도움을 주었던 그 잘생긴 히브리 노예를 기억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무엇이었던가?

파라오 앞에서 절하며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군주에게 과거의 사연을 고했습니다. “주여, 그 젊은이는 한때 폐하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그 날 그 자리에 보디발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눈썹은 치켜 올려지고 그의 마음은 갑자기

오싹해졌을 것입니다. 그도 또한 요셉에게 신세를 많이 졌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도 경솔하게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볼 만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고 계신지(the perfect timing of God)를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사(人間事)에서 하나님께서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시는 것에 관해 누가 정식 해명(解明)을 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가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진상(真相)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불가지론(不可知論)에 도전하기 위해서 무슨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4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But when the fulness of the time was come, God sent forth his Son, made of a woman, made under the law—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셉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완벽하게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심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순간도 너무 빠른 것이 없고, 한 순간도 더딘 것이 없고, 바로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준비되었고, 그의 꿈은 그 준비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준비되었고, 대단히 힘든 학교에서 십이 년간의 강훈련은 그 준비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 잔을 맡은 자가 준비되었고, 충분한 세월이 흘러 그가 투옥(投獄)당한 일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이 년이란 세월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A thousand ages in Thy sight are like an evening gone, short as the watch that ends the night, before the rising sun—하나님의 목전에는 천 세대가 지나간 한 저녁 같고, 일출 전 밤의 끝남을 알리는 한 경점 같을 뿐이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책략을 드러내신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닥쳐오는 운명, 즉 다가오는 재난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끔찍한 감각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의 마술사들의 실패라는 멋진 가락에 모든 것을 조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파라오에게 그 전문가, 즉 마술사들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전 준비가 마칠 때까지, 무대는 요셉의 등장을 위해 완전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파라오와 그의 왕실이 모두 그가 그의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탄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꿈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대 장면 뒤에서 일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행하십니다.⁴

C.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뜻(41:14-44)

요셉을 세상에서 위대한 권력의 지위로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수년 전, 어린 시절에 그 뜻을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훈련과 성장은 요셉을 준비시켜 지금의 그 높은 자리가 그의 것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파라오에게 소개된 것은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뜻이었습니다(41:14-37). 일단 요셉의 이름이 파라오 왕 앞에 언급되자, 일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간수장의 오른팔이 되어 많은 심부름으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죄수복을 입은 요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연락이 왔을 때, 아마 그는 새로 들어온 수감자들에게 감옥에서의 일과를 가르

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아마 점심식사 준비를 감독하거나 납품업자와 옥수수 가격을 놓고 값을 깎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이름이 호명되고 간수가 그 앞에 섰습니다. “빨리 옷을 벗고, 여기서 씻고 수염을 깎고 난 후에 이 옷을 입게, 서두르게, 파라오가 자네를 찾네!” “파라오가 나를 찾다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빨리 하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고 꿈에 관한 것이라 했네.”

그래서 요셉은 궁중예복을 차려 입고 파라오 왕 앞으로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왕좌에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을 지닌 한 남자가 건장한 팔뚝을 드러낸 채 제왕의 풍모와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 년에 걸친 남부 애급(Upper Egypt)와 북부 애급(Lower Egypt)의 연합의 상징인 이중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마 위에는 두 지역의 상징인 독수리와 뱀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북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남부를 상징하는 도리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아마도 값비싼 애급의 아마포로 만든 길고 폭이 주름진 치마를 차려 입고 금으로 된 샌들을

4.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실 때, 기적적인 능력의 계시는 매우 드물게 사용하신다. 성경에서는 네 번의 시대에서만 그러한 기적들이 두드러졌다. 모세의 시대에 해방의 기적(emancipating miracle)이 있었는데 이는 애급의 권력을 부수고 노예상태의 히브리인들을 해방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의 정복을 촉진시켰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교육적인 기적(educational miracle)이 있었는데, 이것은 배교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완전한 예언의 시대의 여명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입증하게 하고 또 초대 교회가 저항하는 유대세계에 그의 메시지를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의 기적(evidential miracle)이 있었다. 또 계시록의 종말론적 기적(eschatological miracles)이 있는데,

신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Ra)가 육화(肉化)된 신으로 여겨졌던 파라오는 정치 못지않게 종교적 기능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⁵

요셉은 파라오가 왕관과 왕권의 표상들에 무겁게 눌린 채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천오백 년 동안 깨지지 않은 전통에 의해 신성시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권력의 장식적인 의상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아야 할 혼을 가진 한 잃어진, 외로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꿈을, 젊은이, 그대는 풀이할 수 있는가?” 그 무시무시한 왕이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요셉이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사탄이 요셉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여보게, 이번에는 망치지 말게!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란 말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이 사람을 망신시키면 너를 보자마자 네 머리를 잘라버릴 걸.” 그러나 요셉이 수많은 세월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있었던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Young man,

사탄은 이 강력한 기적들로 짐승(the Beast)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에 의한 상반된 기적들로 사탄의 메시야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어떤 다른 기적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행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복귀를 위해 준비하신 방법이었다.

5. 파라오는 근본적으로 국민과 영들 사이의 중재자이자 그 자신 안에서 국가의 번영과 힘을 구체화시키는 신권일치의 왕이었다. 그의 전 삶은 대부분 종교적 의미를 갖는 의식(儀式)에 전념했다.

can you interpret my dreams?—젊은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나?” 그러자 요셉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And Joseph answered Pharaoh, saying, It is not in me: God shall give Pharaoh an answer of peace…The dream of Pharaoh is one: God hath shewed Pharaoh what he is about to do—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평화의 답을 주시리이다…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몸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이니이다.” 첫 한 마디의 성경말씀의 증거에서 파라오의 권위는 내려앉고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시자, 파라오의 꿈이 풀이되었습니다.

파라오에게 그의 꿈의 의미를 들려주자,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꿈의 의미가 분명해지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경제에 대한 간략한 교습까지 들려줍니다. 그는 왕에게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를 임명하여 애급 땅을 다스려 모자라고 고통스러울 때를 대비하여 풍년의 수확을 관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셉을 파라오 왕 앞에 서게 하려는 것 뿐 아니라 파라오 왕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뜻이었습니다(41:38-44). 파라오는 그의 앞에서 서 있는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이 훈훈해지고 감동이 됨을 느꼈습니다. 그는 요셉을 그의 총리대신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자리가 공석이었을 수도 있고, 요셉 앞에서 당황하여 서 있는 신하들 중의 한 명이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단지 아는 것은, 요셉은 그때 높임을 받았고 거기에서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 다음가는 절대적인 권력이 그의 손안에 놓였습니다. 저주받았던 사람 요셉은 그 날 감옥으로부터 곧장 파라오의 어전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틀림없이 그 자리에 보디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날 저녁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와 저녁식사 자리에 마주앉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를 기억하오? 당신에게 치근거린다고 고발했던 자 말이오.” 그 여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쓸 놈이 어떻게 됐는데요?” “여보, 난 그저 당신이 고발한 것이 맞기를 바랄 뿐이오. 그것이 전부요. 파라오가 그를 애급의 총리대신으로 임명했고 나는 내일 아침부터 그에게 보고해야 할 입장이오.”

“And Pharaoh said unto Joseph, Forasmuch as God hath shewed thee all this, there is none so discreet and wise as thou art: Thou shalt be over my house, and according unto thy word shall all my people be ruled: only in the throne will I be greater than thou. And Pharaoh said unto Joseph, See, I have set thee over all the land of Egypt—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리리라. 그리고 네 말하는 대로 모든 내 백성이 복종하리니, 단지 이 왕좌에서만 나는 너보다 더 높으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너를 온 애급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하노라.”

이것이 바로 후에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의도해서 쓴 잠언이 아니겠습니까?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as the rivers of water: he turneth it whithersoever he will—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으니, 마치 강물과 같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꾸시느니라.”(잠언 21:1)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인생이란 수업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업할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시험에 실패하

고 있습니까?

VII. 요셉의 신부(41:45-52)

성경에 나오는 신부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말해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예를 들면, 사라의 경우는 교회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유형이지만), 그들 중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브, 사라, 라헬, 리브가, 룯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아스낫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브에게서 우리는 교회의 형성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브의 이야기는 아담이 죽음같이 깊은 수면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옆구리를 열어 그의 배우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아담으로부터 취한 이야기입니다. 이브는 아담의 삶을 나누고, 그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 되기 위해, 아담에게 주려고 아담에게서 취한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리브가는 교회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가지고 리브가를 부르러 왔을 때 그녀는 이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는 그 초청에 대한 그녀의 신속한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녀가 여행했던 그 긴 여정, 즉 그 종과의 만남과 그 아들과의 만남 사이에 놓였던 그 먼 거리와 여러 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은 이삭에 관해서 배우고 마중 나오는 이삭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데에 유익하게 쓰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스낫은 교회의 미래를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여기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택함 받아 위대한 파라오의 오른편에 앉는 자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함께 누립니다. 요셉과 아스낫을 생각할 때, 우리

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모형들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성경에 그렇게 쓰이는 것들만으로 모형들을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단지 예시일 뿐이지 결코 그 개념을 다 찾아내지 못합니다. 아스낫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하나의 모형으로 언급된 곳이 없고, 요셉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모형이며, 좋은 싫든 간에 그 모형은 강력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A. 아스낫의 은혜 받은 자리(41:45-49)

아스낫의 은혜 받은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녀에 관한 것은 모두 무시해야 하고 신랑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끝났고, 이제 그에게는 영광만이 남았습니다. 아스낫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선 그는 높이 올려졌습니다. “And Pharaoh said unto Joseph… Thou shalt be over my house, and according unto thy word shall all my people be ruled: only in the throne will I be greater than thou—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네가 내 집을 다스리리라. 그리고 네 말하는 대로 모든 내 백성이 복종하리니, 단지 이 왕좌에서만 나는 너보다 더 높으리로다 하니라.” 파라오가 그 떨시받고 거절 당하던 인물인 요셉을 친히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고 그에게 권력을 맡겼을 때에 요셉은 궁중에 있던 고관들의 시기하는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늘의 주권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처하신 입장입니다. 인간의 질투와 분노는 그분의 역할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파라오 황제가 장엄한 궁전에서 상아로 훌륭하게 만든 왕좌에 앉아 그 자신은 황제의 예복을 갖추고 있는 장면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그의 왕좌로 향하는 층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파라오의 발밑에는 살아있는 사자가 웅크린 채 누어있었을 것입니다. 보좌가 있는 방의 기둥은 마치 큰 연꽃나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당한 기둥에는 애급의 종교법전의 제례 광경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 뒤에는 노예들이 금으로 값지게 다듬고 값비싼 타조 깃털로 된 부채를 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호위병들은 전쟁에서 파라오의 용맹스러움을 새겨 넣은 광경들로 번쩍이는 벽에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주위에는 그의 조정대신들이 서 있었을 것이고, 바로 거기에, 그의 앞에 감옥에서부터 나온 창백한 얼굴을 하고 급하게 보내와 몸에도 잘 맞지 않는 옷을 걸친 젊은 요셉이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표정은 살피볼 만했을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기질과 야망에 따라 놀라움, 선망, 두려움, 분개, 질투, 감사, 의심들이 모두 거기에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얼굴에는 따뜻한 환영의 미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리로 오거라, 요셉!, 궁중 예복 책임자는 어디에 있느냐? 요셉을 위하여 좋은 아마포와 금으로 된 목걸이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봐라, 보디발, 요셉의 손에 이 반지를 끼우라. 이 자가 요셉이니라. 내가 그에게 애급 전역을 다스리도록 하였노라.”

이처럼 우리 주께서도, 수난을 받으신 후에 높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문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렸고, 천군천사들이 경이로이 바라보는 가운데 개선(凱旋)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룹(cherubim)과 스랍(seraphim)과 천사장(the highest archangels)들의 얼굴에 영광과 숭고한 경외와 놀라움과 경배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높임을 받았고, 또한 높이 찬양받았습니다. “Pharaoh called Joseph’s name Zaphnath-paaneah—파라오는 요셉의 이름

을 사브낫바네아라 부르고.” 그들은 그 앞에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릎을 꿇어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방대한 전 애굽의 고관들, 호위병들, 사령관들, 군주들, 궁중의 귀부인들, 시종들, 무희들, 지위 고하를 막론한 귀족들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그들의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방대한 청중석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치 숲의 나뭇잎들이 저녁 산들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같이 나지막하게 사브낫 바네아(Zaphnath-paaneah)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굽인들에게 그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the savior of the world)라는 의미였고,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 이름은 “비밀을 드러내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에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존재를 의미해 주던 것이고, 앞으로 다가 올 날들에서는 그가 아스낫에게 드러낼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당연히, 요셉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만을 알면 됩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震怒)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비밀을 드러내주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좀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펼쳐서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열두 제자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과 같이, 그리고 다소의 사울이 시나이의 광야에서 그분을 알게 된 것과 같이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숙녀에게 무례했습니다. 우리는 온(On)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에게 너무 오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혼자서 있게 했고, 또 오늘이 그녀의 결혼일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본론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자리가 은혜

받은 자리라는 것을 제대로 살피기 위한 까닭에서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파라오는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되어 그에게 속한 그 높은 권력의 자리를 함께 나눌 신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And he[Pharaoh] gave him to wife Asenath the daughter of Poti-pherah priest of On—그리고 그[파라오]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는 불러 들여졌고, 요셉에게 시집가서, 그가 누리는 지위를 함께 누리도록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그녀의 은혜 받은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깨닫도록 했습니다. “to the praise of his glory…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e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in his kindness toward us through Christ Jesus…that now un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in heavenly places might be known by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고…이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넘치게 풍요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니…이는 이제 교회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함이니”(에베소서 1:12; 2:7; 3:10).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권능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리고 그분의 비범하심을 온 우주로 하여금 탄복하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것입니다.

B. 잊힌 과거(41:45)

아스낫에 대해서는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아버지의 직업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태양신에게 받은”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보디베라(Photihera)였습니다. 그는 델타에 있는 멪

피스에서 북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한, 훗날 헬리오폴리스(태양신의 도시)라고 불린 애급의 거대한 도시, 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애급의 과학의 중심도시였고, 고대 애급의 종교적 수도였으며, 그 땅의 4대 주요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는 태양신을 경배하기 위한 축제들이 매년 거기에서 열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현재 인간으로 육화된 태양신이 파라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스낫의 아버지는 애급에서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온(On)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스낫 그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나잇(Naith)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바로 델타의 땅의 어머니인 고대 애급의 여신 나잇의 여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잇은 아이시스(Isis), 호루스(Horus), 그리고 애급의 신전에서 셋 중의 우두머리 신인 오시리스(Osiris)의 어머니라고 전해집니다. 나잇은 신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신들이 와서 상담하는 여신으로, 지혜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아스낫이 각광을 차지하도록 소개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파라오가 세상을 구하게 될 사람에게 부여하는 높은 영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이방 여제사장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분명히 둘은 구름 한 점 없는 애급의 하늘로부터 빛나는 별들이 내려다보는 그들의 집 베란다에서 수많은 긴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태양신(R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스낫이 물었을 것입니다. “땅의 어머니인 나잇은요? 요셉, 또 우리의 모든 위대하고 유명한 신들은 어떤가요? 그 신들에 대해 전혀 아무 생각도 없나요? 애급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일 강의 신 오시리스는요? 하늘의 여신인 헤더는요? 오시리스의 아내인 여마법사 아이시스는요? 그리고 오시리스의 암살자 셋은요? 호루스, 하마기스, 그리고 또 도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라오 그 앞에서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요셉이 그녀에게 지적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는 모르오.” 요셉이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어리석음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소. 애굽은 피라미드를 건축하거나 스프링크스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다스리는 데 아주 뛰어나오. 그런데 애굽은 소와 악어와 고양이를 숭배하고 있소! 도트는 따오기 머리를,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소. 나는 이것을 어리석다고 밖에는 할 수 없소. 당신들은 애굽의 천문학, 의학, 의술, 기하학, 정치과학 그리고 제국의 정책들에 뛰어나지 않소. 그런데 미이라가 된 고양이와 뱀을 경배하고 황소 앞에 절을 하고 있소!”

아스낫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매는 하늘을 날고, 자칼은 사막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령처럼 휙휙 날아가듯 지나가며, 무시무시한 악어는 그 분주한 나일 강에 잠복해 있지요. 이 동물들은 인간이 가진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몸으로 드러내지요. 이 동물들은 우리와 다르다고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의 소유자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숭배되어야 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요셉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오. 엘로힘(Elohim)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아버지 야곱의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소. 우리의 전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ight be! And light was—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과 깊음의 표면 위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셉,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처럼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져요. 더 말해주세요” 라고 아스낫이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은 실로 아스낫에게 비밀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낫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를 지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애굽 종교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그녀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그녀의 바람이나 결정에 대해서, 그녀의 구원받지 않은 시절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책에 그것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요셉에게 불러 왔고, 그녀의 삶이 그의 삶과 함께 엮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올바르게 그 장면을 꼭 채웁니다. 그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그분 자신이나 그분이 주시는 은사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캐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애정을 그리스도와 엮이게 하는 것입니다.

C. 그녀의 신실한 본분(41:50-52)

아스낫의 본분은 그의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unto Joseph were born two sons before the years of famine came, which Asenath the daughter of Poti-pherah priest of On bare unto him—그리고 요셉에게 기근의 해가 이르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

에게 낳았더라.” 진실하신 하늘의 요셉 역시 이 세대 안에 택하신 가족을 모으실 것이고, 이 일들이 완성되면 “야곱의 고난의 때”인 기근의 시기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예전의 기근이 요셉의 형제들을 그에게로 몰고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예수께로 몰아오는 데에 쓰일 것입니다.

두 아들이 요셉에게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인데, 그의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this do in remembrance of me—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나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령받고 있습니다.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네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하라.”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Pray without ceasing—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듣고 있고, “God loveth a cheerful giver—하나님께서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습니까? 더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므낫세에 의해서 던지시 제시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까? 있단니요!

에브라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풍성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도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Herein is my Father glorified, that ye bear much fruit—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married to another, even to him who is raised from the dead, that we should bring forth fruit unto God—다른 분,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게 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함과 절제니”(갈라디아서 5:22).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세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거나 열매 맺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므낫세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입니까?

VIII. 요셉의 형제들(41:53~47:10)

A. 불가사의한 국면(41:53~44:34)

성경에 13차례나 기근(饑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기근은 그 선택받은 집안을 요셉에게로 몰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대환난의 극한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의 형제들을 다루는 요셉의 긴 이야기는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다루는 데에 불가사의한 국면이 있습니다(41:53~44:34). 그 국면에서 그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 매우 당황해 했으며, 수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들에 대한 양심

의 가책을 느꼈었습니다. 위엄의 국면이 있습니다(45:1-24). 그 국면에서 요셉은 지금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 가운데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사역의 국면이 있습니다(45:25~47:10). 이 국면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그 형제들의 관심을 설명하고, 그와 함께 있게 하여, 가장 좋은 땅에 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 세 국면은 모두 상징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앞으로 다루실 국면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실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 얼마나 요셉 형제들이 걱정해 짓눌렸었는가(41:53~42:34)

그 이야기는 분명히 이미 예고된 기근으로 시작됩니다(41:53-57). 그 가혹함이 먼저 기록됩니다. “And the seven years of plenteousness, that was in the land of Egypt, were ended. And the seven years of dearth began to come, according as Joseph had said: and the dearth was in all lands; but in all the land of Egypt there was bread—그리고 애급 땅에 있던 풍년의 일곱 해가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기근의 일곱 해가 들기 시작하니, 그 기근이 모든 땅에 들었으나, 애급의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더라.”

한때 미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황진(黃塵)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는 이것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한 문학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오클라호마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 옥수수 밭에 너울거리며 내리 쬐었고 그곳에 높이 자랐던 옥수수들은 말라 죽고 잡초들마저 그 열기에 맥없이 시들었습니다. 행여 마차라도 지나갈 때면 울타리 위까지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감질나게 하는 빗방울이 하늘에 나

타나 고통 받는 땅을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따가운 논밭에 거세게 한 두 방울 떨어뜨리고는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그렸습니다. 그는 바람이 땅바닥의 흙을 쓸어 날리고는 다시 먼지로 만들어 떨어뜨려 땅을 담요처럼 덮었으며 분가루처럼 울타리 기둥과 말라비틀어진 옥수수 위에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근이 미국의 중부 지역에 찾아 왔고, 또 이와 같이 애급과 주변 지역에도 왔었습니다.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것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파라오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애급에서 나일 강이 말랐습니다. 나일 강이 마르면 애급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매년 멀리 청나일의 강물은 에디오피아로부터 엄청나게 흘러 내려와 “리빙 스톤의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백나일의 강물과 합류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고지대로부터 내린 물이 불어나 거세진 나일 강은 매년 비옥한 진흙을 날라 그 땅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애급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남쪽 누비아가 끝이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기적적인 생명을 주는 범람은 라(Ra)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나일 강을 따라 테베(Thebes)와 주변 지역에서는 매년 제사장들이 그들의 계량기로 범람한 물의 양을 재고 다른 해의 기록들과 그들의 조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좋은 해에는 강물이 8월부터 수위가 오르기 시작했고 애급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감사하는 상류 나일 강 축제를 열었습니다. 9월에 강물이 최고점에 다다르고 나서 10월 말까지 강물은 빠졌습니다. 파종은 11월에 시작했습니다.

7년이라는 길고 풍성한 기간 동안 애급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나일 강을 기뻐했습니다. 이제껏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매우 풍요로워서 곡물의 20퍼센트가 요셉에 의해 조세로 징수되어 파라오의 곡간에 비축되었습니다. 그 비축된 것은 기근에 시달리는 일곱 해 동안 애급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아 고통 받는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팔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드디어 일곱 해의 가뭄이 왔습니다. 언제나 넘치던 나일 강은 범람하지 않았고, 생명을 주는 토양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했으며,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해 지나, 기나긴 일곱 해 동안, 나일 강의 관측자들은 똑같이 “또 다른 나쁜 나일”로 우울한 보고를 보내 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4,000 마일(6,400 킬로미터) 떨어진 나일 강의 원천이 있는 신비의 샘들에서 호수들과 지류들을 먹이던 호수가 그친 것이었습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뿐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when all the land of Egypt was famished, the people cried to Pharaoh for bread: and Pharaoh said unto all the Egyptians, Go unto Joseph; what he saith to you, do. And the famine was over all the face of the earth: and Joseph opened all the storehouses, and sold unto the Egyptians; and the famine waxed sore in the land of Egypt. And all countries came into Egypt to Joseph for to buy corn; because that the famine was so sore in all lands—온 애굽 땅이 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파라오에게 양식을 구하니, 파라오가 온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 기근이 온 지면을 덮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고, 애굽 땅은 기근으로 심히 찼더라. 그리고 모든 나라가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로 오니, 이는 기근이 온 땅에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었던더라.”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셉! 요셉! 요셉! 기근의 이면에 깔린 목적은 사람들을 요셉에게로, 특히 이스라엘의 자손인 그의 친족들을 요셉에게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집안을 보십시오(42:1-5). 관심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집안은 온 세상을 덮친 재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세상에 닥치

는 홍수, 기근, 맹렬한 회오리바람(the tornadoes), 지진, 그리고 전쟁과 폭동의 공포로부터 확실히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 시기만을 바란 채 뒤로 물러 앉아 두 손을 쥐어뜯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구조될 방도를 주변에서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When Jacob saw that there was corn in Egypt, Jacob said unto his sons, Why do ye look one upon another?...I have heard that there is corn in Egypt: get you down thither—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내가 듣기로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라”(42:1-2).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처사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 선택받은 집안은 점점 길어지고 극심해지는 가뭄 앞에서 당황하게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나안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복종하여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은 거지들,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가없는 수많은 송장들을 의구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들은 곧 그 까닭을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던, 즉 오래 덮여 놔두었던 그들 자신의 죄가 이제 곧 드러나 대서특필(大書特筆)되어 전 세계가 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손가락이 지시하는 점을 말해줍니다(42:6-34). 하나님의 손가락이 계속해서 이들의 양심과 동시에 요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단순한 무지 가운데 예고되었던 것처럼, 그 형제들은 그렇게 먼저 요셉을 인정하였습니다(42:6-9). 그들은 자신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And Joseph’s brethren came, and bowed down

themselves before him with their faces to the earth. And Joseph saw his brethren, and he knew them, but made himself strange unto them...and Joseph knew his brethren, but they knew not him. And Joseph remembered the dreams—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르는 체하고...그런데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 꿈들을 기억하니라.”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국경지대에서 애굽 외무국의 국가주요자원의 대외 수출부서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요셉에게 회부되었고, 그의 위엄에 압도되어,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손가락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눈먼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손가락은 예수님을 계속 가리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분에게서 그들의 오랜 염원인 메시야시고, 구원자시며,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무지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로마서 11:25).

그때 그들은 미묘하게 연루되면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45:10-17).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Nay, my lord, but to buy food are thy servants come. We are all one man's sons; we are true men, thy servants are no spies—내 주여, 아니니이다. 단지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은 그에 대하여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다시 첩자로 몰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Thy servants are twelve brethren, the sons of one man in the land of Canaan; and, behold, the youngest is this day with our father, and one is not—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열두 형제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소서, 막내아들은 지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바로 이것이었습시다! 미묘하게 연루되면서 요셉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그의 이름을 올리거나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언급해야 했기에, 가능한 한 간단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에게 언급하고자 했습시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즉 그를 거부했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요셉은 그들이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난처한 사실이었습시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그렇게 떠나게 할 의사가 없었습시다. 그는 세 번째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내몰았고 3일 동안 감옥에 두었습시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습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 신비스러운 애급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했습시다. 그리고 역경의 처지에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시다.

그들은 스스로 죄를 시인함으로써 세 번째로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습시다(42:18-23). 3일 후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석방했습시다. “I am going to put you to the test—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고 요셉이 말했습시다. “You say you have a younger brother at home? Then go and bring him here! True men are you? We’ll see!—너희가 말하기를 집에 어린 동생이 있다고 하지않았느냐? 그래서 가서 그를 여기로 데려오라! 너희들이 진실한지 우리가 지켜보리라” 그리고 그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시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히브리말을 이해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시다. 이제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그들을 찾아내었습시다. 그들은 스스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오래 전에 요셉에게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시다. 그러고는 드

디어 그들의 참회가 나왔습니다!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We are verily guilty concerning our brother [conscience at work], in that we saw the anguish of his soul, when he besought us, and we would not hear [memory at work]; therefore is this distress come upon us [reason at work]—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동생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양심의 역사].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음으로[기억의 역사],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이성의 역사] 하니라.” 양심, 기억, 그리고 이성, 즉 하나님의 이 세 위대한 사냥개들이 혼의 문전에서 짖어댔습니다.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요셉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드디어 그들은 그에게 저지른 무서운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한 일을 시인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위협 아래 그들은 네 번째로 요셉에 대해 인정했습니다(42:24-34). 그들로 인해 마음이 몹시 아파서, 요셉은 얼굴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체로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광 가운데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굵은 양심이 더 각성되도록 그들은 더 모진 역경을 맞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시므온을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시므온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당하는 곤경이 다른 형제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인질로 억류된 시므온을 뺀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루는 옥수수로 가득 찼지만, 생각은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끝날까?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첫 번째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쉬면서 먹으려고 멈추었고, 자신들의 자루를 열어 보았습니다. 공포에 공포가 닥쳤습니다! 그들의 자루 안에는 그들이 갖고 간 돈이, 즉 옥수수를 사고 판매원에게 지불했던 그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 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그들은 그 동전을 막 새로 나온 돈처럼 집어서 세고 또 세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혼에 그 돈에 대한 혐오감이 밀어닥쳤습니다. 돈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며 최악의 문젯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동일 인물들이 몇 해 전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를 거부했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행복하게도 경제적으로 번성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 그 돈의 혐오스러운 면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아버지의 귀에 쏟아 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몇 년 전에 요셉을 배반한 것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빼놓았습니다. 그들끼리는 그 이야기를 작은 소리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직 아버지에게는 가슴 속에 담긴 그 사실을 모조리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음은 인정하고 있었지만(“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요셉에 대해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충분히 쏟아 놓을 정도로 낮아지지는 못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멀리 나아 갑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내려가서 유대 백성들과 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미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그분을 집요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의 역사가학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깁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실존했다는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서둘러 그분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거짓 메시아 중의 하나로 여김으로써 논란을 가볍고 무례하게

결말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히브리 족속의 자랑스러움까지 인정할 것입니다. 단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순간도 그들은 그분께 그분의 정당한 자리를 내어 드리려고 하거나, 기독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 작가들은 기독교를 통렬하게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의 죄 때문에 몇 세기에 걸쳐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마이다스(Midas)의 손을 가진 그들은 항상 정착지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에서, 전문 분야에서,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번영을 지긋지긋해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은 그들에게 세상의 중요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들의 길고도 비극적인 역사에서 셀 수도 없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 알려진 두려운 시간에 끊어터질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형제들처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What is this that God hath done unto us?—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붙들린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리키는 손가락은 예수님과 그분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2. 얼마나 요셉의 형제들이 당황했겠는가(42:35~43:34)

그 다음의 이야기는 야곱, 유다, 그리고 요셉,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그들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법이,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a. 야곱의 곤경(42:35-38)

그 노인은 그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시므온은 어디 있던 말인가? 다음에 그들이 갈 때에 베나민을 데려간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그의 이 아들들은 그에게는 슬픔과 걱정의 근원일 뿐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들이 요셉의 겹옷을 들고 왔을 때에 그는 그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것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It is my son's coat; an evil beast hath devoured him; Joseph is without doubt rent in pieces—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틀림없이 요셉이 조각조각 뜯겼도다"라고 그가 말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틈없고 늙은 야곱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편애에 다른 아들들이 늘 보인 시기와 미움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므온 없이 그 앞에 서서 다음에는 그가 사랑하는 베나민을 애급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Open your sacks—보따리들을 열어 보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확실히 거기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입증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함이라." 그의 믿음이 깨어지면서 그는 신음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그가 알기만이라도 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요셉은 지극히 높여져 모든 일이 그를 위하여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이미 빌하와 관계된 비밀스러운 그의 죄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Slay my two sons, if I bring him not to thee: deliver him into my hand, and I will bring him to thee again—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야

굽은 시큰둥하게 그를 보면서 “My son shall not go down with you—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b. 유다의 서약(43:1-15)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져 갔고, 새로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은 가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맹세의 타당성(43:1-8)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베냐민이 가든지, 아니면 모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맹세의 성실성을 봅니다(43:9-10). 그는 루우벤이 제안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볼모로 잡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I will be surety for him…if I bring him not unto thee…let me bear the blame for ever—내가 그에 대해서 담보가 되리니…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내게 영원히 그 책임을 지우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여인과 결혼했고, 홀아비가 되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고, 믿음의 조상의 가족의 교제 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쌍둥이의 탄생이 그에게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요셉의 앞으로 불려나갔고,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그 사람의 능력과 선(善)함을 느꼈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마음을 지닌 새 유다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서약의 성공을 봅니다(43:11-15). 늙은 야곱은 설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베냐민이 가야 한다면 그가 친절하

게 맞아들이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 두려운 권력자에게는 격식에 맞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흉년이 든 땅에서 난 가장 좋은 과실들, 향료와 꿀, 몰약과 향신료, 견과류와 아몬드 등의 선물이 준비되었고, 이상하게 자루에 들어있던 돌려주어야 할 돈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베냐민도 가야만 했습니다.

c. 요셉의 계획(43:16-34)

이야기는 다시 애급으로 돌아와 요셉의 계획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제 계획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여덟 단계에 걸쳐 다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분한 잔치였습니다(43:16-17). “And when Joseph saw Benjamin with them, he said to the ruler of his house, Bring these men home, and slay, and make ready; for these men shall dine with me at noon. And the man did as Joseph bade; and the man brought the men into Joseph’s house—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다스리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는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정찬(正餐)을 들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라.”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고, 그 비용을 다 담당했으며, 그 잔치에 합당한 희생물을 관리하고서 “그의 집을 관리하는 자”에게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맡겼습니다. 얼마나 복음과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43:18). “And the men were afraid, because they were brought into Joseph’s house—그러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들어갔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생소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농사꾼이었고, 거친 사람들이었으며, 숲과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저택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유함, 그의 장대함과 호화로움, 모든 문명 세계로부터 수집한 이국적인 공예품들, 무한한 재력과 막강한 권력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혼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Because of the money that was returned in our sacks at the first time are we brought in—처음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되돌려진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 왔도다”라고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주의도 덧붙였습니다. “That he may seek occasion against us, and fall upon us, and take us for bondmen, and our asses—그가 기회를 보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덮쳐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그것은 진실과 아주 동떨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알지 못하는 낯선 이의 인격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들의 방법 또한 그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죄의식과 불안감이 일어나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안내되는 것은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전적으로 낯선 다른 세계로 그를 데려가 교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외계인이고 낯선 자이며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종종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덧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지 못하며, 더구나 그분의 은혜는 이해조차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발견입니다(43:19-24). 공포에 휩싸인 형제들은 요셉의 집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들의 자루에 있었던 돈에 대해 그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다시 가져왔다는 것도 확인시켰습니다. 그 집사의 답변은 안심을 주는 것이었지만, 실상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eace be to you, fear not: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father, hath given you treasure in your sacks: I had your money—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시므온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집사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믿음을 진전시키며,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아직도 요셉이 누구인지 짐작조차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즉 그들이 세상적이고 사악한 길을 걸으며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하나님, 그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등장을 주목하게 하는 이해할 수 있는 격식(understandable formality)이 기록되어 있습니다(43:25-28). 정오가 되자, 틀림없이 그들이 없는 동안에 시므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해 열심히 물으며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은 그 땅의 미지의 통치자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준비 태세를 하고, 그에게 절을 하고, 선물을 바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연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끔찍한 죄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무서운 범죄를 이미 오래 전에 용서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가 간절히 베풀기 원하는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주께서 한 영혼들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며, 인색(吝嗇)하게 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성급하게 하도록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죄의 자각에 이르도록 철저한 작업을 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단계에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단지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정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감정에 대해 기록합니다(43:29-31). “And Joseph lifted up his eyes, and saw his brother Benjamin, his mother’s son…and he said, God be gracious unto thee, my son. And Joseph made haste; for his bowels [being] did yearn upon his brother: and he sought where to weep; and he entered into his chamber, and wept there. And he washed his face, and went out, and refrained himself—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니라. 그리고 요셉이 급히 서두르니, 이는 동생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애절하여 통곡할 곳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방에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과 같습니까! 주께서는 얼마나 자주 한 영혼을 동정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방해하고 압도하려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그분은 강제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단지 사랑으로 호소하시려고 합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서서서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시던 바로 그 날, 거기에서 그분은 자신의 군대를 하늘에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까. 천사장의 지휘 아래 도시로 행진하여 로마를 무너뜨리고 막강한 이 땅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사람들을 거둬나게 하지 못한 채 단지 사태를 영속시키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영광의 빛이 환하게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얼마나 쉬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억지로 재촉하는 것이고, 현혹시키는 것이고, 위압하는 것이며,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지금은혜의 세대에 그분이 행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들 모두와 함께한 낯선 통치자의 불가사의한 친근함에 관한 기록입니다(43:32-33). “And they set on for him by himself…and for the Egyptians…and they sat before him, the firstborn according to his birthright, and the youngest according to his youth: and the men marvelled one at another—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그리고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장자는 태어난 권리에 따라, 막내는 그 태어난 순서대로 앉혔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그들의 순서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식탁의 머리에 르우벤이 앉았고, 그 옆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 순서를 따라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이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인가? 죄를 깨닫게 하는 화살이 점점 깊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베냐민에게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43:34a). 음식이 들어와 각자의 몫대로 분배되었고, 빵은 넉넉하게 나누어졌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섯 사람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베냐민의 몫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몫은 르우벤이나 유다나 갓의 것보다도 다섯 배나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명백한 암시였습

니까! 그 낯선 통치자는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없었기에 그들은 몇 가지 사건으로도 추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토록 최대한의 몫을 주고, 그것도 나이든 사람들에게 경멸감을 쌓게 만들면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였겠습니까? 오래 전에 바로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를 팔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질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은 막내에게 보인 편애에 눈곱만큼의 분노나 질투를 보이지 않았기에 요셉의 처사(處事)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는 두려움이 극복된 거리낌 없는 교제에 대하여 말해줍니다(43:34b). “And they drank, and were merry with him— 그리고 그들은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다루심이 전부 어둡고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자주 그분은 햇볕도 내려주시고, 가끔 폭풍우의 구름에 무지개 색을 입혀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무거웠던 마음에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지금 그들은 처음 요셉의 손 안으로 들어왔을 때처럼 완악하고 무분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다루는 은밀한 단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3.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이 깨어졌는가(44:1-34)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모험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실제로 다루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지를 거울에 비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다루는 국면은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a. 음모(44:1-3)

그 형제들은 한때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음모를 꾸밈니다. 그는 그들의 탐욕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44:1). “And he commanded the steward of his house, saying, Fill the men’s sacks with food, as much as they can carry, and put every man’s money in his sack’s mouth—그리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말하기를, 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으로 그들의 자루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들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 그들은 한때 그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돈을 보기조차 싫어하게 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큼 돈을 버는 데 성공적인 사람은 드뭅니다. 인종적으로 그들은 부자가 되는 본능적인 재능이 있는 듯합니다. 그 뛰어난 재능은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근면과 민감한 사업수완과 상호협력과 결합되어 유대인들을 세계적인 금융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들은 박해로 물려난 모든 나라에서 변함없이 신속하게 부와 권력의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왕, 황제, 교황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여러 번 그들에게 재정적 원조를 호소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매력적인 재물들을 일단 획득하면, 그 재물로 인해 이웃들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국제적인 시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를 매수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들의 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다룬 후에, 요셉은 그 다음으로 그들의 악의를 다룹니다(44:2-3). “And put my cup, the silver cup, in the sack’s mouth of the youngest, and his corn money—그리고 내 잔인, 그

은잔을 그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대금(代金)도 함께 넣으라” 고 그는 그의 집사에게 명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손쉽게 꾸밀 수 있는 음모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재물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려운 책임성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형제들이 마지막 국경선을 넘기 전에 터질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요셉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아니면 그렇게 그들이 상상했던 것이겠지만) 베냐민도 그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b. 대면(44:4-15)

요셉의 형제들이 시나이 사막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요셉의 집사와 무장한 호위병들이 뒤따라 왔습니다. “Wherefore have ye rewarded evil for good?—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집사가 말의 고삐를 당겨 세우고 호위병들에게 형제들을 포위하도록 손짓하면서 말했습니다. “Where is my lord’s cup, the cup he uses in his divining arts?—내 주인의 잔은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이 점칠 때 사용하는 그 잔 말이다.” 고대 애굽에서 잔은 종종 영들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금이나 은 조각과 귀중한 원석을 함께 적당한 주문을 외우면서 잔속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잔은 심령술에 쓰이는 점판(Ouija board)의 일종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잔에 물을 채우고서 햇빛에 두어 그 깊이와 그림자가 컵에 드리워지는 것으로 점을 쳤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이들이 컵 속의 차 앞으로 점을 치듯이 말입니다. 요셉이 이런 것들에 심취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마법사들은 이러한 방

법으로 점을 쳤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미 요셉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그들의 자루 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그 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엄청난 맹세를 했습니다. “With whomsoever of thy servants it be found, both let him die, and we also will be my lord’s bondmen—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집사는 잔인하게 웃으며 그들의 자루를 열 것을 명했습니다. 한 명씩 형제들은 검사를 통과했고 마침내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컵이 베냐민의 자루를 열자 나왔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교차로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때 요셉을 친구령 속에 던졌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사악함을 조성하여 베냐민을 이리페에게 던져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냐민의 편에 서겠습니까? 흥미롭게 사태를 바라보던 그 집사가 사막의 모래사장 위에서 펼쳐진 게임의 결과를 알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형제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 하는 데에 그들의 주사위를 던졌고, 그에게 앞으로 닥칠 운명이 무엇이든지 함께 나눌 각오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행동은 운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육신을 따라서는 주님의 친족인 유대인들이 고통의 용광로 속에 넣어져서, 불로 정결케 되어, 시종일관 그들의 일에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영광중에 그들에게 드러내실 것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날을 미리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분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요셉이 그들 앞에서 베일을 벗게 될 “계시”의 순간에 대한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혼이 난 후에, 그들은 동양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피와 교만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변한 모습으로 요셉에게 나와 그 앞에서 자신들을 내던졌습니다.

곧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위대함과 그의 권능을 현실로 직면하게 합니다. “What deed is this that ye have done?—너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그는 추궁했습니다. “Wot ye not that such a man as I can certainly divine?—나 같은 사람이 반드시 점을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는 그들이 전에 인정했던 것보다 자신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도록 그들을 밀어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그분을 생각하도록 유대인들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에 상관없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함으로써 빌라도의 손을 재촉한 죄 중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His blood be on us and upon our children—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 오리이다”라고 그들은 외치며, 그들의 죄에 왕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난은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자긍심을 철저히 박살 낼 것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최후로 완전하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c. 회개(44:16-34)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사죄하던 그가 이제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홀로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What shall we say unto my lord? what shall we speak? or how shall we clear ourselves? God hath found out the iniquity of thy servants—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어라고 고(告)하리이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나이다.” 유다는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방식으로 오래 전에 요셉을 거부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었지만 아직도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베냐민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겠다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베냐민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실상 그 컵을 베냐민이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Behold, we are my lord’s servants, both we, and he also with whom the cup is found—보소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것은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제안을 즉석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God forbid that I should do so: but the man in whose hand the cup is found, he shall be my servant; and as for you, get you up in peace unto your father—요셉이 이르기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단지 그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올라가도록 할 것이니라.” 그는 그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위기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중보기도 중의 한 간청으로 훌륭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간청은 그의 뛰어난 도덕성과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간청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최종적으로 유다에게로 자리 잡게 되었

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간청의 결과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요셉의 모든 장벽은 제거되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간청에서 다른 모든 형제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한 그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낮선 통치자에게 인내를 호소했습니다(44:18). “Oh my lord, let thy servant, I pray thee, speak a word in my lord’s ears, and let not thine anger burn against thy servant: for thou art even as Pharaoh—내 주여 칭하옵건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께서 마치 파라오와 같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요셉의 합당한 지위를 인정했으며, 그에게 은혜의 바탕 위에서 호소했습니다. 그 낮선 통치자의 결심에 호소했습니다(44:19-23). 그는 요셉에게 기근이 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다른 모든 일들을 열거하면서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주어야만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낮선 통치자에게 오직 베냐민을 통해서만 교섭에 응하겠다는 완강한 그의 요구를 상기시켰습니다. 베냐민이 가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큰 슬픔이었음을 그에게 말함으로써 그는 그 낮선 통치자의 동정에 호소했습니다(44:24-31). “And thy servant my father said unto us, Ye know that my wife bare me two sons: and the one went out from me, and I said, Surely he is torn in pieces; and I saw him not since: and if ye take this also from me, and mischief befall him, ye shall bring down my gray hairs with sorrow to the grave—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가, 내가 말하기를, 정녕 그는 찢겨서 조각나 죽었다 하였고, 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 하니, 만일 잘못된 일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로 하여금 슬피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

리라 하였나이다.”

이 간청이 얼마나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아버지의 혼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상한 심령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북받쳤습니다.

여기에 중보기도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그분의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그분께 갈보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갈보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분께 갈보리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그런 슬픔은 영원토록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간청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간청을 마무리 지으면서, 유다는 이 낮선 통치자의 능력에 호소했습니다(44:32-34). 베냐민 없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건달 수 없는 일이며, 최후의 저주로 떨어질 일이었습니다. 죽는 편이 그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뜨겁게 녹이고 눈물이 쏟아지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간청이었습니다. 불가사의했던 국면은 지나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룸에서 영광의 국면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 영광의 국면(45:1-24)

창세기 45장은 주께서 대환난을 마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완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몸소 드러내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는, 즉 그 자신의 계속되는 드라마를 우리에게 연대순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45:1-16)

a. 자신의 실상을 드러냄(45:1-3)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인식은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자칭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분을 동정녀 마리아의 팔에 안긴 한 아기로, 즉 한 여인의 그늘에 가려진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소개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아직까지도 매달려 있는 한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 발상 모두 연약함에 처한 모습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요람 안에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 아들이십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드러냄은 갑작스러운 의외의 일이었습니다(45:1). “Then Joseph could not refrain himself before all them that stood by him; and he cried, Cause every man to go out from me. And there stood no man with him, while Joseph made himself known unto his brethren—그러자 요셉이 그의 옆에서 있는 모든 자 앞에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니,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하니라.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사이에, 아무도 그의 옆에서 있는 자가 없었더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순간 그들의 눈은 그를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는데, 다음 순간 그는

그들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혼속에서 죄의 기억들이 갑자기 얼마나 무섭게 요동쳤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단지 세상의 구원자요 애급의 위대하고도 무서운 통치자인 사브낫-바네아(Zaphnath-paaneah)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를 요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난이 끝나게 될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구약의 이름으로 그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홀연히 그분은 오셔서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들은 구약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심을 한 육신 안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처럼, 또 오늘날 깨어난 수많은 죄인들처럼, 갑자기 깨우친 유대인들은 이렇게 증거할 것입니다. “나는 한때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도다! 이분에 관한 진리에 대해 어떻게 우리는 여태껏 몰랐었을 수가 있었던 말인가?” 이것이 그들의 놀라운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계시일 뿐 아니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계시이기도 합니다(45:2). “And he wept aloud: and the Egyptians and the house of Pharaoh heard—요셉이 소리내어 우니, 애급 사람들과 파라오의 궁중에 들리더라.” 계시의 처음 순간은 감격으로 가득 찼고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 소식은 왕좌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또한 앞으로 다가올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경우에도 있게 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대하고 마침내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틀림없이 거기에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보좌에 전해졌을 때, 천국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는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that repenteth—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누가복음 15:10). 요셉

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형제들간의 긴 불화가 끝나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언제나 그 영향력이 세상에서 감지(感知)되는 것처럼, 그 소식은 빠르게 그 땅에 퍼졌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또한 간단한 계시였습니다(45:3a). “And Joseph said unto his brethren, I am Joseph; doth my father yet live?—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나는 요셉이니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 역시 그 본질은 어린아이이라도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지 여러 세기가 지나서, 한 과격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를 따라 북쪽으로 낙타를 가능한 신속히 몰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장 호위병들도 그의 뒤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감히 선언하고 있는 배교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날 다소의 사울은 낙타를 재촉하며 그 위험한 사교(邪教)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마스쿠스의 이단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산헤드린의 공식 관원으로서 서둘러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빛에 다소의 사울은 낙타에서 떨어져 땅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Who art thou, Lord?—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간단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I am Jesus—나는 예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순간 사울은 죄인이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 순간 그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이었으나, 다음 순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나는 예수라.” 우리는 종종 대화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사

영리, 논쟁, 그 외의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로 스스로를 무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라.” 시간이 무르익으면, 성령께서 죄인의 혼에 그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계시는 성공적인 계시(45:3b)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제들에게 죄의식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배척했고, 팔았으며, 그를 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괴로워하였으니”(troubled)라는 말은 “두려워 떨었으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너무도 지독하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자의 손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요셉과 대비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죄를 가슴깊이 자각하게 될 때, 즉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로서 자신의 죄의 엄청난, 갈보리에서의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거부한 죄악을 깨닫게 될 때, 틀림없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환난의 끝에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죄의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혼에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일입니다(요한복음 16:7-11). 구원은 기도모임에서 손을 들거나 예배실의 의자 사이로 걸어 나오는 일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삶에서 나타난 개인적 죄악에 대해 맞대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자각 없이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의 형제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45:4-16)

그가 용서하는 목적이 즉시 드러났습니다(45:4-5). 그는 충격을 받은 그의 형제들이 한 순간이라도 자신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도록 했습니다. “Come near to me, I pray you. And they came near. And he said, I am Joseph your brother, whom ye sold into Egypt—원컨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이니이다.”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어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압시도 없지만, 분명히 그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단호한 명령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초청이 있었습니다. “Now therefore be not grieved, nor angry with yourselves, that ye sold me hither: for God did send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베푼 것은 용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용서는 그들의 그 사악함을 축복의 수단처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팔았으나…하나님께서서는 보내셨으니.”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뒤집으시고 사람의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바꾸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심은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갈보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함에서 가장 큰 비극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목적은 예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45:6-12). 그는 그들에게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There are five years, in the which there shall neither be earing nor harvest—다섯 해가 있으니, 이삭이 패지도 추수하지도 못할 것이니이다.”⁶ 그의 형제들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 놓여 있는 암담한 날들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을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줄 것이라고 그들을 확신시켰습니다. “God did send me before you to preserve you a posterity in the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 앞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신의 애급에서의 지위에 관해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God hath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of all his house, and a ruler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안의 주(主)로, 그리고 애급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5:8)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요셉의 이야기에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거부당하시는 모습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어서 가장 높은 우주의 권좌까지 높임 받으신 것에 이르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사실은 한 분이 천국에 계시며, 그분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요셉과 화해가 이루어졌음은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소원해져 있던 그들이 아버지와도 화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6. 요셉이 파라오 왕의 오른팔로 높임을 받은 이래로 9년이 지났다.

이기도 했습니다. “Haste ye, and go up to my father, and say unto him, Thus saith thy son Joseph, God hath made me lord of all Egypt: come down unto me, tarry not—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씀드리소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전 애굽의 주(主)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요셉은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면서 용서와 회복과 더불어 자신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어 그분의 아들에 대해 그분께 고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거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Thou shalt dwell in the land of Goshen—고센 땅에 거하소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There will I nourish thee…lest thou, and thy household, and all that thou hast, come to poverty—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家屬)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의 은혜는 그들의 육신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향한 목적 중에는 용서와 예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13). “And ye shall tell my father of all my glory in Egypt, and of all that ye have seen; and ye shall haste and bring down my father hither—그리고 당신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나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경배에 대하여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표현을 찾

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고하십시오.” 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당신이 사랑하던 아이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전에 먼저 고백할 것이 있는데, 한때 우리가 그를 미워하여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를 거부했으며, 그를 노예로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의 슬픔과 고통을 보고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아,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그의 발아래 있고, 그는 모든 것을 통치하며 사람들은 땅 끝에서부터 그를 보러 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전적으로 훌륭하고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알았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그 범죄 행위를 그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는 그가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우리일 것입니다.

요셉의 목적은 가까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45:14-16). 그는 그의 형제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그들을 위해서도 그와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만이 아니고 친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형제들을 그의 곁에 두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He fell upon his brother Benjamin’s neck, and wept; and Benjamin wept upon his neck. Moreover he kissed all his brethren, and wept upon them: and after that his brethren

talked with him—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을 하니라. 자기 동생 베나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나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가 결국 원했던 것은 그들과의 교제였습니다. 그의 용서와 예비의 약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었지만, 요셉이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길을 열어놓은 후에야 그들은 그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의 결핍이나 필요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부인과 아이들에 대하여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종 소소한 이야기들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지 평범한 이야기들을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가 마음으로부터 알기를 원하는 소중한 것들이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주인이 그들의 조그맣고 편협한 삶에서 일어나는 단조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작은 일들이 그가 가장 알기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즉 바람 빠진 타이어, 부엌에서 화냈던 일, 늦게 온 버스와 같은 일에 대하여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2. 요셉의 재원(財源)(45:17-23)

요셉은 이미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쓸 수 있는 방대한 재원(財源)에 대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출처를 강조하십니다(45:16-20). “And the fame thereof was heard in Pharaoh’s house, saying, Joseph’s brethren are come: and it pleased Pharaoh well,

and his servants. And Pharaoh said unto Joseph, Say unto thy brethren, This do ye; lade your beasts, and go, get you unto the land of Canaan; And take your father and your households, and come unto me: and I will give you the good of the land of Egypt, and ye shall eat the fat of the land...Also regard not your stuff; for the good of all the land of Egypt is yours—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말하는 그러한 소문이 파라오의 궁에 들리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형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급 땅의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그 땅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또한 너희 물건에 신경 쓰지 말라. 이는 온 애급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라.”

요셉은 파라오에게 형제들의 죄와 나쁜 행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잊었고 머릿속에서 지워져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처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친족관계가 그의 마음에 차지해 있었습니다.

요셉의 재원은 왕권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은혜로 약속한 것을 파라오가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왕가(王家)의 재원이 요셉을 위해 그의 발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물건”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너희 물건에 신경 쓰지 말라”고 파라오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너희 물건에 신경 쓰지 말라”고 파라오는 말합니다. 그들과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명한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 사무실에 와서 공동 관심사에 관해 논했습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크게 쓰

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시계를 차고 있던 그는 대화중에 나에게 “혹시 시계 필요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난 이미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형제님들 중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겠습니까?”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어떤 분이 수 백 달러나 되는 이 시계를 제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런 시계 같은 물건들을 줍니다. 조만간 저는 시계가 필요한 다른 성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저는 그에게 제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제가 시계가 없는 것을 보고 또 다른 하나를 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목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임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요셉이 가진 재원의 원천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풍요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45:21-23). 요셉은 형제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과 시대에 항상 부의 척도가 되었던 마차와 갈아입을 의복을 주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은(銀) 300개와 갈아입을 옷 다섯 벌을 더 주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으나, 그들은 너무도 변하여 그들보다 베냐민이 더 많이 가졌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수나귀 열 마리에는 애급의 귀한 물건을, 또 암나귀 열 마리에는 빵, 고기, 옥수수 등을 실어 보냅니다. 이 전체 목록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아낌없이 주려고 했는지 설명됩니다. 요셉은 결국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여정에서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3. 요셉의 부탁(45:24)

“So he sent his brethren away, and they departed: and he said

unto them, See that ye fall not out by the way—이와 같이 그는 그의 형제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났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당신들은 도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하니라.” 그들은 고향 길에 옵니다. 멀고 지루한 여정이 될 것이고, 아마 형제간의 다툼이나 심지어 베냐민이 받은 특별한 선물에 대해 질투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 모두가 요셉의 은혜와 선의와 선물을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고향에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성미를 억제하고, 그들의 간증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중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좋은 작별할 때의 충고입니다.

C. 사역의 국면(45:25~47:10)

다음으로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애굽으로의 이주와 고센 땅에서의 정착에 대해 다룹니다. 예언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화해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총 가운데 다가올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섬기게 될 그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 번성, 준비, 그리고 알현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제안(提案)(45:25~46:7)

이 부분은 야곱의 두려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의 모습과 또한 시므온의 귀환에 안심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식을 침착하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Joseph is yet alive!—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나이다!”라고 그들은 불쑥 말했습니다. “and he is governor over all the land of Egypt—그리고 그는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나이다.” 야곱은 거의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을 받았고, 진정된 후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난 믿을 수 없구나! 정말로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는 숨이 차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한 개인에게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귀는 종교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너무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거짓말들을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즉시 그 진리를 모른 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리 베이커 에디(Mary Baker Eddy)가 고통과 죽음은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생각에서 나온 오류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모든 상식적인 증거에 상반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Joseph Smith)는 천사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애급 상형문자를 읽을 수 있는 마법의 안경을 받아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가짜 킹 제임스 번역관을 만들었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황 우르반(Urban) 8세는 교황의 무류성(無謬性)의 이름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심지어 갈릴레오가 그 교리의 허위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셉이 살아 있다고 들었을 때의 야곱처럼,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그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And they told him all the words of Joseph, which he had said unto them: and when he saw the wagons which Joseph had sent...the spirit of Jacob their father revived: and Israel said, It is enough; Joseph my son is yet alive: I will go and see him before I die—그러자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한 모든 말을 그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그들의 아비 야곱

의 영이 소생하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제 충분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하니라.” 인간의 본성에 얼마나 잘 맞는 모습입니까. 요셉의 말은 야곱을 확신시키지 못했지만 요셉의 수레들은 그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믿기 전에 표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심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omas, because thou hast seen me, thou hast believed: blessed are they that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도다.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요한복음 20:29)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야곱의 믿음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46:1-7). 진리에 대해 일단 그의 눈이 열리게 되자, 그 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When he saw the wagons the spirit of Jacob revived and Israel said, It is enough… and Israel took his journey—그가 수레를 보았을 때 야곱의 영은 다시 살아났고 이스라엘로서 말합니다, 족하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즉석에서 움직여, 남쪽을 향해 출발했고,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멈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딛는 걸음은 아닌가 하여 감히 발걸음을 더 내디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나안의 남단에서 그는 “offered sacrifices unto the God of his father Isaac—그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46:1).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단지 무엇인가 옳을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단지 모든 환경이 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욕망이 확실히 움직이도록 이끌기 때문에, 단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분께 여쭙어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And God spake unto Israel in the visions of the night, and said, Jacob, Jacob. And he said, Here am I. And he said, I am God, the God of thy father: fear not to go down into Egypt; for I will there make of thee a great nation—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네게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아들이 지금 그 땅의 가장 위대한 지배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애급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애급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고(26:2), 그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파선(破船)했었습니다. 단순히 본성적인 애착이 결정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기 원하는 것, 본성적인 욕망에 따르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걷는 삶은 항상 싫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로마서 12:2),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편애(偏愛)나 정당한 욕구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Jacob rose up from Beer-sheba...and came into Egypt, Jacob, and all his seed with him—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나니...

그리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왔더라.”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는 즉각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일가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대한 백성을 이룰 때까지 4세기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2. 번성(46:8-30)

야곱의 집안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미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씨는 이삭에게 한정되었습니다. 이삭에게서는 야곱에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그 씨가 이미 칠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가계는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가족은 야곱과 그의 부인들, 열두 아들과 딸 하나, 오십 두 명의 손자들, 그리고 네 명의 증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은 자녀가 가장 적었고(오직 아들 한 명만 두었습니다), 베냐민은 가장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아들 열 명을 두었습니다. 베냐민을 단지 어린 아이로만 여겼던 생각을 일소해주는 사실입니다.)

그 연대기 편자(모세는 여러 가지 주석을 붙입니다. 시므온의 첫 다섯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And Shauls, the son of a Canaanitish woman—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을 덧붙였습니다. 저주받은 족속의 일원과 결혼했음은 시므온의 영적 완악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와는 달리 계속해서 그의 죄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시므온의 육신적인 다른 면을 조명하여 그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아마도 “가나안의 여인”은 세겜에서 약탈할 때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들의 계보는 이와 같습니다. “And the sons of Judah; Er, and Onan, and Shelah, and Pharez, and Zarah: but Er and

Onan died in the land of Canaan. And the sons of Pharez were Hezron and Hamul—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이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46:12). 유다의 첫 번째 두 아들의 사악함은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갔고, 그들의 어머니가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사실은 무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말과의 마지막 두 아들의 출생의 배경에 대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구속받았으며, 가능하다면 죄를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로 향해서, 미래에 오실 왕의 진군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베레스로, 그리고 그로부터 헤스론까지 넘어가십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의 계보는(46:21)는 끝없이 계속되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이 믿듯이 베냐민이 이주할 당시 22세 정도였다면 그는 매우 젊어서 결혼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그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의 아내는 다산했을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아들 열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그 당시의 아들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 연로한 야곱은 베냐민의 가족 규모에 놀랐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또한 놀랐을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이 계속 늘어났다면, 베냐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파의 죄로 인해 처음의 전도유망함은 몰락하였고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잇사갈에게서 잠시 멈추어서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셋째 아들의 이름이 즉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And the sons of Issachar; Tola, and Phuvah, and Job, and Shimron—잇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46:13)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성경의 한 권 전체를 그의 고통과 시련에 할애할 정도로 고통을 감내했던 욥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⁷ 원치 않았던 아내였던 레아의 손자인

욥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의 주인공인,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욥이라는 가능성이 어쨌든 있습니다.

야곱 아들들의 아내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스낫(Asenath)만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내들은 남편들의 정체성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는 믿음의 조상의 가족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세상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의 지체가 되어 인류에게 축복이 된, 이름 없는 수많은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대판식의 날에 인정받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할 때, 이야기는 유다가 어떻게 요셉에게 왔고 요셉이 어떻게 야곱에게 왔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야곱이 총애하는 사람들에게 기울이도록 이끕니다(46:28-30). 이와 같이 유다와 요셉이라는 두 위대한 이름이 의미심장하게 함께 등장합니다.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큰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구약의 역사를 지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유다에 대한 상당한 질투는 항상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슬픈 사건의 전개는 장래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나머지 친족들이 곧 도착할 것에 대비해 요셉을 살피러 앞장을 서서 서두르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
7. 욥의 친구들은 모두 예서의 자손들이며 잇사갈의 아들 욥과 동시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들 중의 두 사람에게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엘리바스는 예서의 아들이었다. 그는 데만 사람이라고 불리웠는데, 그것은 예서가 새로 입양되어 들어간 본고장인 에돔(Idumea)에 있는 데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엘리바스의 아들이 데만이었고, 아마도 주변 국가들이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재회하는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 땅에서 그의 고통의 연(年)수를 끝내고 하늘나라에서 그의 아버지와 재회할 때, 그 하늘에서 벌어질 더욱 위대한 재회의 광경을 감지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재회했을 때 야곱과 요셉사이에 깊게 흐르는 감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역이 완성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나실 때 우리는 기쁨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준비(46:31-34)

요셉은 이제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

그 이름을 따서 붙였을 것이다(창세기 36:10-11). 데만이라는 나라는 후일 그곳의 현인들에 걸맞는 우화로 꾸며졌다.

수아 사람 빌닷은 그두라에 의한 아브라함의 여섯 번째 아들이었고(창세기 25:2), 그는 에서, 에돔, 데만과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다(예레미야 49:8).

잇사갈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 대략 사십 명 정도였다. 그의 아들 욥은 스물 남짓되었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140년을 더 살게 하시면서 그가 잃어버린 모든 소유를 두 배로 회복시켜 주셨다. 물론 생존하는 시간까지 두 배의 복을 받았을 것이고 만일 그가 70에 두 배의 복을 받았다면 그는 21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태어났고 요셉이 사망했을 당시 91세였을 것이었다.

아마 욥은 애굽을 떠나 우스(Uz)에서 살았을 것이다. 모세는 욥이 사망했을 당시 55세였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에서 15년 동안 지냈을 때였다. 그래서 모세는 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욥기에 기록된 사건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모세가 욥기의 저자였을 수도 있다.

니다. 그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디에 그들이 정착하느냐가 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 거할지라도 애굽에 속하지 않도록 거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형제들을 위해 파라오 앞에 선 성공적인 중재자로서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46:31-32). “And Joseph said unto his brethren, and unto his father’s house, I will go up, and shew Pharaoh, and say unto him, My brethren, and my father’s house, which were in the land of Canaan, are come unto me—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내게로 왔나이다 하리니.”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의 소유로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좌 앞에서 우리의 유익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서 형제들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And the men are shepherds, for their trade hath been to feed cattle; and they have brought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l that they have—그리고 그들은 목자라, 목축을 업으로 삼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라고 그는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의도는 얼마 후, 그의 형제들을 준비시켜 파라오와 만나도록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라오도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神) 같은 파라오와 보잘것없는 농부 사이에는 참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현격한 차이를 매우는 중재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된 요셉으로서는, 그들과 한 지체이기에, 그들의 생활방식, 그들의 본성, 강점, 약점,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편으로는 그들을 알 수 있었고, 궁전의 화려함과 호화로움에 익숙한 파라오의 오른팔인 사브넛-바네아

(Zaphnath-paaneah)로서 그는 다른 한 편으로는 파라오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완벽한 중재자였습니다. 요셉 없이는, 그의 형제들은 왕좌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그곳으로 접근할 방법도 없었으며, 파라오에게 성공적으로 간청할 희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였으며, 그와 함께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중재자이신 분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對應)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공적으로 섬기는 자로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46:33-34). 그는 형제들에게 파라오의 오른팔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설명하면서 섬기기 시작했고, 이 일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협력해야 했고, 제멋대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말한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장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애급에서 어떤 함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를 그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지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기에 왕좌 앞에서 그들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대응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명확한 지시에 주목합니다(46:33-34a).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Pharaoh shall call you, and shall say, What is your occupation? That ye shall say, Thy servants' trade hath been about cattle from our youth even until now, both we, and also our fathers—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

희의 업이 무엇이나고 물을 것이니, 당신들은 고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이 다 그러하니이라고 하소서.” 바꾸어 말해서, 형제들은 파라오에게 목자의 특성에 대해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그의 화려한 궁전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목자들은 어느 한 곳에 깊이 뿌리내려 살지 못하고 항상 움직이며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목자의 특성을 견지(堅持)하고 있지 못하다면, 순례자의 특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명백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46:34b). “That ye may dwell in the land of Goshen; for every shepherd is an abomination unto the Egyptians—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하소서. 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목자가 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는 선택된 가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한 경계선이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땅에 살아야 할지라도 고센 땅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분리해서 살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땅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함은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에 더 쉬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그들 사회의 일곱 계층 중의 하나인 소를 치는 사람들이나 그에 속하는 조합원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애굽 사람들에서 멸시를 받아, 사원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들의 계층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애굽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에게 목자의 특성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요셉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배나 결혼의 문제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매력적인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며, 세상의 종교적 체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4. 알현(謁見)(47:1-10)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섬김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와 그의 궁정 앞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And he took some of his brethren, even five men, and presented them unto Pharaoh—그가 그의 형제 중 몇 사람, 즉 다섯 사람을 데리고 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니라.” 선택된 자들 중에서 또 선발했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이 파라오 앞에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섯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은혜의 숫자를 말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끈 것은 구원의 은혜였고, 그 중에서 몇몇이 파라오 앞에서 유례없는 방식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를 사랑받는 아들(the Beloved)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넘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유례없는 특별한 의식(意識)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고, 왕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왕국의 시대에 위대한 영예와 책임이 따르는 지위가 부여될 것입니다. 비록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근거로 선발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으로서는, 형제들 중에서 잘 생기거나, 튼튼하거나, 총명하거나, 유복한 형제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항목이 그의 선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열한 명 중에서 다섯 명 만이, 말하자면 요셉에게서 “잘 했다!” 라는 말을 들을 특별한 영예에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If thou knowest any men of activity among them—만일 내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파라오는 요셉의 형제들을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make them rulers over my cattle—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는 자로 삼으라”(47:6). “활동력 있는 자”라는 말은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문구는 “끈다”(강하고 믿을 만한 밧줄을 만들기 위해 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는 의미의 어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 스스로 증명한 자들은 파라오의 왕국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지금 “활동력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파라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가장 빛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준 것이었습니다(47:7-10). 더구나 그는 파라오를 두 번이나 축복해주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유명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허세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에 비해서 부족하며, 그의 순례의 길 또한 고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힘들게 산 삶이 그의 얼굴에 깊이 주름져서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온갖 풍상으로 늙은 목자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마련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야곱을 그려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어색하게 걸쳐 입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와 대조되게 왕의 접견실에서 고귀하고 세련된 귀족적인 궁중대신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복을 입은 황제의 호위병들과 인상적인 예복을 입은 관리들, 그리고 고귀한 태생의 사람같이 궁중의상을 입고 파라오 앞에서 있는 요셉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늙은 야곱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궁중의 허세부리는 아름다운 장식품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호위병들과 관원들이 길게 도열한 가운데 넓적다리를 절면서 그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파라오의 왕좌까지 나아가 거기서, 놀랍게도 그의 햇볕에 그을린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Without all contradiction, the less is blessed of the better—보다 적은 자가 보다 나은 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히브리서 7:7). 그래서,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은 사람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셨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셨나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자이고, 하늘에 권세를 갖고 있나이다. 그래서 당신보다 더 큰 자로서 나는 당신 파라오에게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마도 그의 임종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야곱은 그보다 더 높이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교훈입니까! 우리는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리를 뜰 때, 우리는 축복을 뒤에 남기고 떠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자이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입니까? 야곱은 그랬습니다.

IX. 요셉의 시혜(施惠)(47:11-26)

창세기 47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그 날을 예시합니다. 이 장은 주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모든 나라들을 다루시는 것을 예언적으로 힐끗 보게 해줍니다. 요셉은 애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혜자(施惠者)였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봉건 제도의 권력을 제거하고, 그 왕국에 오직 한 주인과 한 사람의 통치자를 세움으로써 왕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래 직접 세상의 왕국을 두시고, 진정한 신정(神政) 체제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 자신은 통치자가 되셔서 반역하고 독립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주권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A. 요셉의 은혜(47:11-12)

먼저 요셉이 은혜의 원칙으로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들은 그가 형제들에게 준 지위에 대해 듣습니다. “And Joseph placed his father and his brethren...in the land of Egypt—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애굽 땅에 정착시키니라.” 우리는 창세기 46:34에서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고, 나중에 그곳이 라암셋으로 불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센이란 이름은 “가까이 끌어당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형제들이 요셉과 근접해 있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시키는 천둥”이라는 이름의 라암셋은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요셉의 곁에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장면은 예수께서 통치하시게 될 그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특별히 가까운 자 중의 하나로 특권을 누리는 지위가 주어지게 될 그 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천둥같이 이 땅 위에 울릴

그 날을 예시합니다. 유대 백성은 그분 곁에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며, 땅 끝까지 그분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들로 세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칙령은 천둥과 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준 소유에 대해 듣습니다. “And Joseph…gave them a possession in the land of Egypt, in the best of the land, in the land of Rameses, as Pharaoh had commanded—그래서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의 땅을 주었더라.” 그는 그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권과 협력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요셉이 결코 독립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운했던 그 옛날 그에게 최악으로 대했던 그의 형제들은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은혜로 높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준 몫에 주목합니다(47:12). “And Joseph nourished his father, and his brethren, and all his father’s household, with bread, according to their families—그리고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을 그들의 가족에 따라 양식으로 부양하니라.” 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고, 가장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을 보살피주었습니다. 단 하나의 필요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farthings,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 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6).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farthing? and one of them shall not fall on the ground without your Father—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

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10:29). 한 앓사리온에 참새가 두 마리입니다. 두 앓사리온에 참새가 다섯 마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흥정을 위해서 두 앓사리온에 참새 한 마리를 거저 던져 주는 것입니다. 그 참새 한 마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참새 한 마리, 장사꾼이 매상(賣上)을 위해서 던져주려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모르게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마지막까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살핌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B. 요셉의 통치(47:13-22)

이제 초점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다루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기근이 극도로 심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떠나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그들로 어떤 희생과 조건을 감수 하더라도 요셉에게 기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막바지에 몰립니다. 애굽은 파산되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셉 없이는 장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다.

이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 썩버리고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파탄에 빠진 지구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묘사된 끔찍한 생태학적인 재앙이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지진, 전쟁, 기근, 역병, 전 세계적인 거대한 자연 재해 등이 세상으로부터 그 자원들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짐승(the beast)의 박해로 인해 세계 인구는 대폭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쯤이면, 이 땅은 그 자체가 완전히 고갈되고, 사람들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땅에서 절대적인 법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자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혹독할 것이며, 철권의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극한적인 상황은 극한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애급의 재난에 대한 요셉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장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왕의 권위 아래로 옮겼습니다. 먼저, 애급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47:13-14). “And there was no bread in all the land; for the famine was very sore, so that the land of Egypt and all the land of Canaan fainted by reason of the famine. And Joseph gathered up all the money that was found in the land of Egypt, and in the land of Canaan, for the corn which they bought: and Joseph brought the money into Pharaoh’s house—그리고 온 땅에 양식이 없었으니, 이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애급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지쳤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요셉이 애급 땅과 가나안 땅에서 눈에 띄는 돈은 모두 거두어들이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사감이라.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 돈을 가져왔더라.” 사람들은 더 이상 돈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단지 그들이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돈을 사랑함이 그들에게서 치워진 것이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땅의 경제가 오직 파라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동안 추구하실 통화 정책에 관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완전하고 균등하며 탁월한 정책이 될 것인데,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재산을 숨기는 외국의 비밀 은행 구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금전만능사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죄 많은 인

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재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편은 최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 왕권에 의해 모든 사람의 복과 이익을 위해서 분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소유물을 요구합니다(47:15-17). “And when money failed in the land of Egypt, and in the land of Canaan, all the Egyptians came unto Joseph, and said, Give us bread: for why should we die in thy presence? for the money faileth. And Joseph said, Give your cattle; and I will give you for your cattle, if money fail. And they brought their cattle unto Joseph—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이 나자, 온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이는 우리가 어찌 당신 면전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이는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니 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내 놓으라. 돈이 떨어졌으면,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고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니라.” 그것은 납득이 가는 조치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유동 자산으로 물물교환을 한다면 통화 구조를 통제하고 중앙집권화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유동 자산들을 왕권의 통제 아래로 집중시켰습니다. 매우 부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오래 견딜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굴복하게 되고, 왕권은 강화되어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소유지를 요구합니다(47:18-20). “When that year was ended, they came unto him the second year, and said unto him, We will not hide it from my lord, how that our money is spent; my lord also hath our herds of cattle; there is not ought left in the sight of my lord, but our bodies, and our lands…”

and Joseph bought all the land of Egypt—그 해가 끝나자, 그 다음 해에도 그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찌 우리가 우리 돈을 다 썼는지 내 주께 감추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내 주께서 우리의 가축 때도 가지셨으니, 내 주의 눈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단지 우리의 몸과 땅 뿐이니이다…그러자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샀더라.” 유동 자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고정자산도 요셉의 손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 스스로 막바지로 몰아갔습니다. 즉 조건 없는 전적인 신뢰를 요셉에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아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날에는, 권세의 모든 근원이 능력 있고 친절한 예수님의 손 안에 집중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권세를 휘두르는 손들이 예수님이나 요셉의 손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겠지만, 그 손들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분열된 충성심과 인간의 경쟁심에 종지부를 찍고, 선을 행하고 효율적이며 집권적인 통치의 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에 결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경중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더 탐욕스런 손이 고삐를 쥐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권한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인류에게는 영원히 안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들 개개인을 통제합니다(47:21). “And as for the people, he removed them to cities from one end of the borders of Egypt even to the other—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애굽의 이 지경 끝에서 저 지경 끝까지 그들을 도시들로 옮겼더라.” 그는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 땅의 인구를 재배치하여 그 땅의 인적 자원들이 장래에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활용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빈민굴들을 정리했고, 도시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당장은 물론 나중에도 잘 살 수 있도록 재정착시켰습니다. 주님의 천년 통치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대환난기의 심판들과 여

호사밭 계곡의 심판 후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살 곳을 정해주실 것입니다. 바벨에서 명령하시고 세계 인구의 분배를 강력히 실행하실 때,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의 막강한 권세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Only the land of the priests bought he not; for the priests had a portion assigned them of Pharaoh, and did eat their portion which Pharaoh gave them: wherefore they sold not their lands—오직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배정해준 몫을 가졌기 때문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몫을 먹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아니하였더라”(47:22). 파라오에게는 애급 전역에 걸친 제사장들의 엄청난 권력을 분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요셉의 권한은 파라오의 나약함이나 그 땅의 성직제도에 기우는 파라오의 마음으로 인하여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서는 약한 왕권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 배후의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주님께서서는 모든 거짓 종교를 멸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사탄의 강령이 더 이상 사람의 혼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세워지고 잘못된 것을 보급하는 데에 바쳐진 사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사고(思考)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거대한 사원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C. 요셉의 선(善)함(47:23-26)

요셉은 밝아오는 새 시대의 기본 법령을 애급에 선포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원칙이 설명됩니다(47:23-25).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 말

해집니다(47:23-24). “Then Joseph said unto the people, Behold, I have bought you this day and your land for Pharaoh: lo, here is seed for you, and ye shall sow the land.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increase, that ye shall give the fifth part unto Pharaoh, and four parts shall be your own… for your food, and for them of your households, and for food for your little ones—그러자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늘어난 소출에서 너희는 오분의 일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남은 넷은 네 것이 되리니… 너희 식량으로, 너희 집안사람들과 너희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권력을 왕좌로 집중시킨 것은 억압의 수단이 아닌, 축복의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급의 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풍년이 드는 시기에 지주들에게 그들 소산의 오분지 일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필요한 때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중앙 집권적 행정을 지원할 재정을 위하여 그 세법을 영구적인 제도로 그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선함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농노의 신분으로 추락시켰지만, 그 대신에 그는 그들을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선함으로 관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원칙은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And they said, Thou hast saved our lives: let us find grace in the sight of my lord, and we will be Pharaoh’s servants—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 우리는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천년왕국의 세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친히 구원받고, 주님께 노

예로 매인 자 됨을 기뻐하며, 그들의 장래가 약속되고 행복이 보장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은혜로 다스리는 세상이 이 땅에 온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미 설명된 그 기본 원칙이 세워집니다(47:25). “And Joseph made it a law—그리고 요셉이 이를 애급의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여”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원칙이 법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가 결합되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Thou hast saved our lives: let us find grace in the sight of my lord, and we will be Pharaoh’s servants—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 우리는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일 년간의 수입에서 왕국을 위해 20퍼센트를 바친다는 원칙이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주님께 10퍼센트를 약속했었고(창세기28:22), 요셉에 의해 구제되어 생명을 부지하게 된 애급 사람들은 20퍼센트를 바쳤고(창세기 47:24), 구원받은 세리 삭개오는 50퍼센트를 약속했으며(누가복음 19:8), 과부는 그녀의 2렘돈 전부를 드렸습니다(마가복음 12:41-44).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지닌 구원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람과 사역을 위해 감사의 표시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9장
결론
(47:27~50:26)

I. 야곱의 죽음(47:27~50:21)

- A. 야곱의 예지(47:27~49:27)
 - 1. 선택한 총애하는 자(47:27~48:22)
 - 2. 택함 받은 가족(49:1-27)
- B. 야곱의 장례식(49:28~50:21)
 - 1. 서약(49:28-33)
 - 2. 준비(50:1-3)
 - 3. 허락(50:4-6)
 - 4. 장례행렬(50:7-14)
 - 5. 용서(50:15-21)

II. 요셉의 죽음(50:22-26)

- A. 요셉의 거처(50:22)
- B. 요셉의 후손들(50:23)
- C. 요셉의 통찰력(50:24)
- D. 요셉의 요청(50:25)
- E. 요셉의 사망(50:26)

제9장 결론

I. 야곱의 죽음(47:27~50:21)

A. 야곱의 예지(47:27~49:27)

이제 창세기의 길은 그 마지막 굽이를 돌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좌에 있습니다. 그가 배척받던 날들은 끝나고, 오랜 영광의 날들이 도래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잘 끝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원고를 들여다 볼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에게 부록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록은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의 죽음, 즉 야곱의 죽음(47:27~50:21)과 요셉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50:22-26)

창세기는 하나의 거대한 묘지이고, 하나의 장례식 설교의 위대한 매뉴얼(manual)이며, 한 편의 긴 부고(訃告)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훼손(毀損)된 시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5장(章)에서 출생과 사망의 등기부(登記簿)를 읽었고, 대 홍수에서 인류의 매장(埋葬)에 참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라헬의 무덤에서 야곱과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워합니다. 리브가는 어디 있지? 데라는? 롯은? 그런데 늘 나오는 대답은 “그들은 죽었노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마지막 남은 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단계로 살펴 보는데, 그의 예지(47:27~49:27)와 그의 장례식(49:28~50:21)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언의 영께서 야곱

에게 내려오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의 장래를 매우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예언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상세한 것들에 속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들에서 아들로 그의 눈이 옮겨가면서 야곱의 입술에서 시적이면서도 예언적인 운율에 맞춘 절(節)들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의 예지는 우선 그가 선택한 총애하는 자에게로 맞추어지고(47:27~48:22), 그리고 나서 택함 받은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49:1-27)

1. 선택한 총애하는 자(47:27~48:22)

야곱이 선택한 총애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자랑이자 즐거움이었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에 없었습니다. 베냐민까지도 라헬의 죽음에 대한 슬픈 기억을 그에게 불러일으켰지만, 요셉은 행복함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했고, 르우벤은 경멸할 만했고, 유다는 육신적이었으며,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범했습니다. 젊은이로서 요셉은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서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즉 지배자로서 요셉은 야곱이 생각했거나 그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a. 야곱의 장례(47:27-31)

우리는 처음부터 야곱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And Israel dwelt in the land of Egypt, in the country of Goshen; and they had possessions therein, and grew, and multiplied exceedingly. And Jacob lived in the land of Egypt seventeen

years: so the whole age of Jacob was an hundred forty and seven years—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였으니, 그들은 거기서 소유를 갖고 자라서 심히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일백사십칠 년이더라.” 17년간 그는 애굽의 가장 위대한 지배자의 아버지로 존경받으며 호화로움과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그의 앞에 놓인 유혹의 세상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머물렀던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즉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장래에 있을 민족을 그렇게 불렀다면 그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주목합니다. “And the time drew nigh that Israel must die: and he called his son Joseph, and said…Bury me not, I pray thee, in Egypt: But I will lie with my fathers, and thou shalt carry me out of Egypt, and bury me in their buryingplace—이스라엘이 죽어야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원컨대,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 그러나 나는 나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리니, 너는 나를 애굽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47:29-31). 야곱은 애굽에 17년간 머물렀지만, 한 순간도 애굽은 그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살아야만 했다면, 그가 마음에 간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세상 일들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b. 야곱의 머리말(48:1-6)

어느 날 요셉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편찮으시도다.” 즉시 국정은 한 편으로 미루어졌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끌고 서둘러 그 믿음의 조상을 보러 떠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침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Israel strengthened himself—이스라엘이 힘을 내어”라고 읽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앞에 놓인 일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 일은 그 후의 지파들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침실에 들어서서 그 존경스런 늙은 목자를 응시했습니다. 요셉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거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틀림없이 애굽의 궁중의 신하처럼 옷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키워진 그들은 외모, 예의범절, 교육, 그리고 사고방식에서 히브리 사람보다는 애굽 사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요셉이 그들을 데려온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의 임종 앞에서 그들이 그 막중한 가치를 느끼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기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응시하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And Jacob said unto Joseph, God Almighty appeared unto me at Luz in the land of Canaan, and blessed me—그러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를 복 주셨느니라” (48:3-4).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야곱 자신이 이삭을 속인 후에 에서의 분노가 아직 췌가에 울리고 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세겜에서의 재앙 이후에 모든 가나안의 분노가 그의 췌가를 울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28:10-19; 35:6-13). 두 번 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들을 야곱에게 재확인하셨습니다.

다. 아마도 야곱이 그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두 사건들을 모두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현재에 관해서 말합니다. “And now thy two sons, Ephraim and Manasseh, which were born unto thee in the land of Egypt before I came unto thee into Egypt, are mine; as Reuben and Simeon, they shall be mine—그래서 이제 네 두 아들, 즉 내가 애굽으로 네게 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네게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야곱은 공식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가족에 입양시켜 그의 아들들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신의 열두 아들과 같은 지위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¹

c. 야곱의 사별(48:7)

“And as for me, when I came from Padan, Rachel died by me in the land of Canaan in the way… and I buried her there in the way of Ephrath—그리고 나로 말하면, 내가 밧단에서 내려올 때, 가나안 땅에서 도중에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느니라…내가 거기에서 에브라임 가는 길에서 그녀를 묻었노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충격은 완화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생각한 것이 그들의 할머니인 라헬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상황이 그토록 힘들지만 앓았더라면, 야곱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른 어떤 여인들과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헬은 그가 아내로 바랐던 전부였습니다. 만약 야곱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었다면 그의 아들들은 모두 라헬의 소생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헬의 장자인 요셉에게 장자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온전한 아들들로 받아들여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이

것은 사라지지 않는 추억에 대해 그가 마지막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d. 눈이 먼 야곱(48:8-12)

“And Israel beheld Joseph’s sons, and said, Who are these?—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냐 하니.”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방안에 조용히 서 있는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희미하게 보여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48:10).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려는 야곱의 결정은 그의 방에 불쑥 나타난 그들의 존재로 인한 순간적인 충동으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인도 하심에 따라 미리 고려된 신중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I had not thought to see thy face!—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도다!” 그 노인은 밝게 미소 지으며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And, lo, God hath shewed me also thy seed—보라, 하나님께서 네 소생까지도 내게 보여주셨도다.” 요셉이 그의 침대 곁으로 그들을 데려오자 그는 두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e. 야곱의 축복(48:13-16)

이제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지금 막 양자 삼은 두 아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1. 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록에서도 12라는 수를 계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당연히 13지파를 의미한다.

다. 요셉은 맏아들이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원했으므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일부러 손을 바꾸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에브라임으로부터 나올 지파가 므낫세로부터 나올 지파보다 더 우월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선호(選好)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f. 야곱의 처신(48:17-20)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에 동요되었습니다. “Not so—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Not so, my father: for this is the firstborn; put thy right hand upon his head—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은 야곱의 행동이 그의 나쁜 시력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분명 아버지가 자신의 선호대로 먼저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장자였고, 모든 자연적인 기준에 의해서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야곱이 주려고 하는 가장 좋은 몫을 므낫세가 차지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I know it, my son, I know it—아노라, 아들이, 내가 아노라”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육신의 뜻을 극복했듯이, 그렇게 야곱의 믿음은 인간의 뜻(요셉의 뜻)을 극복했습니다. “And he blessed them that day, saying, In thee shall Israel bless, saying, God make thee as Ephraim and as Manasseh: and he set Ephraim before Manasseh—그리고 그가 그 날 그들을 축복하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네 안에서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그리고 므낫세처럼 만드시리라고 하며,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놓으니라.”

그것은 단순히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하기만 하는 노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호가 아닌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예언자였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는 두 지파 중에서 더 큰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강력한 지배세력이 되어,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 경쟁할 왕국을 세울 때에, 그 반란을 이끈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열왕기상 11:26). 세월이 지나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g. 야곱의 신념(48:21-22)

“And Israel said unto Joseph, Behold, I die: but God shall be with you, and bring you again unto the land of your fathers. Moreover I have given to thee one portion above thy brethren, which I took out of the hand of the Amorite with my sword and

2. 야곱의 인생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향해 어떤 식의 원정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분명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 의해 세겜 족속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정의로운 혼이 그 수치스러운 행위의 모든 기억들로 인해 공포로 움츠러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예언적인 말이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손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었다. 야곱의 믿음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있었다(창세기 15:13-16). “thy seed shall be a stranger in a land that is not theirs—네 씨가 자기 것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예언은 가나안이 그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가나안에 대해 언급한 것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것은 애굽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야곱은 살아서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았다). “and they shall afflict them four

with my bow—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니,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 가시리라. 게다가 내가 네게 너의 형제들보다 한 묶을 더 주었으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고 하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 두 배의 묶은 확인되었지만, 그 성취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한 말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영이 여전히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한 민족이 구현(具現)된 것으로 말하며, 미래에 대해서 마치 과거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치 가나안의 정복과 아모리 족속의 살육이 이미 성취된 사실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²

2. 택함받은 가족(49:1-27)

이제,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다니엘서 11장에 견줄 만한 광범위하

hundred years...in the fourth generation they shall come hither again: for the iniquity of the Amorites is not yet full—그들이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그들은 네 세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불법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것을 믿었다. 그는 예언의 최종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 요셉도 그렇지 못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 또한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손자들은 그 성취를 볼 수 있었다. 야곱은 이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 에브라임의 손자 대에 아모리 족속들의 불법은 넘쳐났고, 그때 그(야곱은 민족을 대표하므로)는 칼과 활로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취할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완전함이다.

고 상세한 예언이 공표되는 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길고 복잡하게 얽힌 예언적 선언은 세대주의적으로나 지파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경륜들이 야곱에 의해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의 백성에 대해 직접 관련되는 범위의 경륜들이었습니다.³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 예언을 지파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질적 특징들이 지파로서 그들의 운명에 대한 단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들들을 면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력,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의 성품에 따른 미래의 진로(進路)를 내다볼 수 있게 하였고, 지파로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는 확장되고 널리 퍼지며 그들의 조상에게서 보인 기질적 특징을 대물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a. 예언의 시작(49:1-2)

“And Jacob called unto his sons, and said, Gather yourselves together, that I may tell you that which shall befall you in the last days. Gather yourselves together, and hear, ye sons of Jacob; and

3.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메시아의 초림에 이르는 민족의 역사를 제공한다. 유다는 메시아의 출현과 거부당하심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준다. 스불론과 잇사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며 이방인에게 오래도록 정복될 것을 나타낸다. 단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출현을 예시한다.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는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자들의 도덕적 성품, 즉 승리하며, 귀하게 양육되며 그리고 증인이 되는 성품을 그린다. 요셉과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재림과 승리를 예시한다.

hearken unto Israel your father—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함께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 구약성경에서 14번 사용된 “마지막 날들”(the last days)이라는 표현이 이곳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항상 랍비들이 메시아를 언급할 때 사용했습니다. 또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니엘 12:4, 9의 “마지막 때”(the end time)를 언급하는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에서, 야곱의 예언은 모든 역사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인 세대의 정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말하는 야곱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예언이 메시아의 때를 언급하고 있지만, 야곱이 이미 예언적으로 언급했던 사건, 즉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는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침상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심판석의 광경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표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회부되어 재조명되고, 질책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 심판받게 되고, 공개된 것은 칭찬이나 벌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이 왕국에서 문제가 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비추어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투는 일반적인 대화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연설이었으며, 경외와 두려움과 각자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기대로 깊은 침묵을 불러일으키는 영탄(詠嘆)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심판석이었습니다.

b. 르우벤(49:3-4)

야곱이 쇠약한 눈으로 르우벤의 얼굴을 응시했을 때, 그는 교만,

나약함, 정욕, 그리고 거기에 비친 죄, 어떻게든 우위(優位)를 차지해보려는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르우벤의 특별한 지위에 대한 말로 시작했습니다(49:3). “Reuben, thou art my firstborn, my might, and the beginning of my strength, the excellency of dignity, and the excellency of power—르우벤, 너는 나의 맏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르우벤은 한때 아버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첫 말을 듣자 가슴은 퍼졌고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초조하고 시달리던 표정은 사라지고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권리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 맏아들!” 그는 소유의 두 묶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 버리려고 했을 때에 그가 요셉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약속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그는 탁월함 또한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 즉 지배하는 지파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세주가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틀림없이 그가 제사장직을 얻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탁월함, 제사장직과 함께 그 땅은 그의 이름을 따라 불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르우벤”이라고 부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특별한 지위이며, 그의 장자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습니다. 르우벤의 어깨는 뒤로 젖혀졌고 그의 머리는 치켜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르우벤의 불안정한 성격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49:4a) “Unstable as water, thou shalt not excel—물처럼 불안정

해서 너는 뛰어나지 못하리라.” 그의 혼은 찬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불안정해서, 물과 같이!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언제든지 자신의 수준을 찾아가려는 물처럼, 한 번 땅에 쏟아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말입니다. “너는 뛰어나지 못하리라.” 모든 르우벤의 장미빛 백일몽(白日夢)은 그의 얼굴에서 깨어졌습니다. 그의 성품에는 그가 지파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용기도 부족했고 신념도 모자랐고, 그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 족속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다스린 자가 나오지 않았었고, 부정적인 일 외에는 탁월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 중에서 단 한 명도 르우벤 지파 사람은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상속분을 첫 번째로 요구했고, 그 경솔했던 결과로 성급하게 요르단의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르우벤은 최선을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민수기 32장). 제사장 직분의 길이 가로막히자 르우벤 족속들은 고라(Korah)라는 불만을 품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에게 거절된 것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일에 함께하여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족속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최초로 사로잡혀 끌려간 지파가 되었습니다(역대기상 5:26). 르우벤 지파는 탁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망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거기 서 있는 르우벤은 채찍으로 내려치는 듯한 야곱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르우벤의 파렴치한 욕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49:4b). “Thou wentest up to thy father’s bed; then defiledst thou it: he went up to my couch—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도다.”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전혀 김새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르우벤

의 머리 위에서 보이지 않게 맴돌고 있던 도끼가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의 무게에 눌려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회개하고 고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22년, 그리고 애굽에서 17년간,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슬픔과 부끄러움을 울며 고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지났습니다. 단지 매번 빌하나 야곱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커다란 은폐와 눈속임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은 그가 뿌린 것을 거두었습니다. 이곳 심판석에서 자백되지 않은 죄는 드러나고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남겨 놓지 못했던 르우벤은 그의 발바닥 아래에 깨어져 조각난 그의 영광의 소망을 들고 다가오는 왕국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c. 시므온과 레위(49:5-7)

늙은 야곱은 그의 침대 옆에서 있는 두 아들을 응시할 때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지 않으신 것을 지금 그가 산산이 쪼개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시선에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심판석에서는 가리지 않고 축복을 거저 해주는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유령처럼 그들의 과거가 잊힌 기억의 무덤에서 일어나자,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과거에 대하여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재빠르게 그의 불쾌함과 그들의 행동과는 자신이 무관함을 표명했었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결코 그들의 사악함과 잘못된 행동을 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는 공개적으로 재검토되고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둘을 하나로 보면서 그들의 돈독한 형제관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49:5a). “Simeon and Levi are brethren—시므

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형제!” 그 말은 교제와 더 없는 행복을 일궈냈습니다. 그 형제들은 서로의 표정을 몰래 훑쳐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믿음의 조상은 세겜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 듯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여동생의 수치를 보복함으로써, 단지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형제”라고 부른 것은 아주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49:5b-6). “Simeon and Levi…instruments of cruelty are in their habitations. O my soul, come not thou into their secret; unto their assembly, mine honour, be not thou united: for in their anger they slew a man, and in their selfwill they digged down a wall—시므온과 레위는…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숨겨진 일에 들어오지 말며, 내 명예여,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 멋대로 벽을 파서 넘어뜨렸음이다.” 그들의 죄는 르우벤의 죄처럼 유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사악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그들의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의 교활함과 잔인함 그리고 세겜의 약탈, 어느 것에도 연루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징벌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점점 긴장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침실은 법정이 되었고, 임종을 맞고 있는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의 침상은 진정으로 심판석이 되었습니다. 그 빈틈없는 노인의 모든 의식은 성령님에 의해서 조율되고 고무되어 그의 아들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지위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품과 이력(履歷)이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매우 중

요한 일들이 오래 전에 역사 속에 이미 두드러 박아 넣은 행위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어지는 말은 시므온과 레위의 지속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49:7). 그들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얼버무리고 용서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위에 따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쳤습니다. “Cursed be their anger, for it was fierce; and their wrath, for it was cruel: I will divide them in Jacob, and scatter them in Israel—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맹렬하기 때문이요,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죄에 대해서 야곱은 저주를 내렸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치유를 주었습니다. 다가올 왕국에서 그들의 자리가 정해져서 왕국시대 동안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두 형제 중의 하나인, 레위는 그 심판으로 득을 보았고, 그의 지파들은 명성을 높였습니다.

모든 지파들 가운데 시므온만이 그 땅에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Out of the part of the children of Judah was the inheritance of the children of Simeon—시므온 자손의 상속은 유다 자손의 몫 중에서 취하였으니”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여호수아 19:9). 그마저도 시므온 마을 중의 일부는 유다에게로 돌려졌는데, 브엘세바(Beersheba)가 유다에 속한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열왕기상 19:3). 그 지파 자체는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그돌(Gedor) 지역으로 이주했고, 나머지는 세일 산 쪽에서 돌아다니며 거했습니다(역대기상 4:39-43). 요시아 왕 시절에 시므온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사람들과 함께 계수되었습니다(역대기하 34:6). 실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나뉘고 흩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 때에, 시므온 족속은 가장 작은 족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민수

기 26:14). 이러한 사실은 틀림없이 시므온이 가나안에서 아주 미미한 상속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형제 유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약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시므온은 왕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평결(評決)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파들을 축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레위에 대한 야곱의 판결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에 대해서 그는 침묵으로 아무 말 없이 넘겼습니다.(신명기 33장)

흩어지고 나뉜 것은 레위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출애굽기 32장). 모세가 그의 기치(旗幟)를 올리며 외치기를 “Who is on the Lord’s side?—주의 편에 속한 자가 누구냐?” 고 했을 때, 반응한 것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에서 실질적인 영토의 양도를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지파들이 거한 왕국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사지가 절단되는 판결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인해 제사장직과 그 민족의 종교적 업무를 주관하는 일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들의 바로 그 흩어짐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왕국의 모든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d. 유다(49:8-12)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늘진 과거가 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눈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감지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 진정으로 우려되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심판석에서 이제 야곱은 그가 결혼한 이방 여인에 대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부모의 역할을 태만하게 한 결과로 오난과 엘이 타락하게 된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말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비열한 거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주 흥미롭게도 야곱은 이 일들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 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회개했으므로 잊힌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대신할 담보로 그의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요셉 앞에서 자신의 혼을 쏟아 놓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충분히 모두 밝혔었습니다. 야곱의 심판석은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소집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지도자를 보았습니다(49:8). “Judah, thou art he whom thy brethren shall praise: thy hand shall be in the neck of thine enemies; thy father’s children shall bow down before thee—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이며,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에 가 있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자손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승리했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그의 형제들, 그의 대적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자손들에 대한 지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유다를 넘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곧 주 예수님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육신적으로 그분의 친족인), 이방인들(그들의 종말에 그분 자신께 대해 대적할), 그리고 교회(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자(the lion)를 보았습니다(49:9). “Judah is a lion’s whelp: from the prey, my son, thou art gone up: he stooped down, he couched as a lion, and as an old lion; who shall rouse him up?—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도다. 그는 사자같이, 늙은 사자같이, 몸을 구부리고 웅크렸으니, 누가 그를 자극 하리요?” 사자가 금수의 왕이듯이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권력을 잡는 날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마치 포획물로부터 굳센 머리를 쳐드는 젊은 사자나 자신의 힘에 대한 희열을 처음 느끼는 단순한 새끼 같은, 혹은 자기의 동굴에서 평화롭게 기지개를 켜는 늙

은 사자와 같은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자연적인 추리로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리라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르우벤이 30분간 기록하지 못한 욕정에 빠져 내던져버린 주권은 이제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왕국에서 그는 다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직 유다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주님을 뵈었습니다(49:10). “The sceptre shall not depart from Judah, nor a lawgiver from between his feet, until Shiloh come; and unto him shall the gathering of the people be—홀(笏)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로다.” 실로(Shiloh)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shalom)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히브리어입니다. 야곱의 예언에서 그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진정한 화평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절대자의 홀과 우주 통치권이 머지않아 쥐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의 계보에서 나올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보다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줌으로써 야곱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 안의 자연인(natural man)은 그 주권을 요셉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지만, 그 안의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은 그것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아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은 땅을 보았습니다(49:11-12). 그 땅은 유다로부터 나오실 사자(Judah's Lion)가 다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올 천년왕국의 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Binding his foal unto the vine, and his ass's colt unto the choice vine; he washed his garments in wine, and his clothes in the blood of grapes—그의 망아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의 나귀 새끼를 가려 뽑은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이 모든 시적인 표현방식은 평화와 풍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에서 그 위대하고 무서운 통치자 앞에 서서 요셉임을 모르면서 베나민의 사정을 간청했을 때, 이토록 지나칠 정도의 많은 칭찬과 보상이 어느 날 그의 것이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야곱의 심판석에서 잊힌 채 지나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취한 태도가 왕국에서 계수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잘못과 실패들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심판대에서 계수될 일입니다.

e. 스블론(49:13)

스블론은 레아의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가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암울하고 거둬나지 않은 시절에 모든 형제에게 공통된 범죄였습니다. 스블론은 침대 다리 옆에, 그의 강력한 형 유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소 조용하고, 평범했으며, 암전하고 개성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처럼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던 적도, 르우벤처럼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멀리 내다보는 예언의 눈으로 스블론의 미래의 해안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았습니다. “Zebulun shall dwell at the haven of the sea—스블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라.” 왕국에서 스블론에게 할당된 정확한 지역은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지역의 경계가 실제로 갈릴리나 지중해 연안에 닿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난 왕국 시대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앞으로 올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스블론의 연안지역에 대한 관심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상업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And he shall be an haven of ships—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니라.” 그 성취여부는 모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대부분의 지도들이 보여주는 범위에서, 스블론이 왕국에서 받은 토지는 지중해까지 닿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연안까지 닿아 있을 수는 있으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연안지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야곱의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결코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호수를 따라서 얻는 작은 규모의 어업의 이권이나 그곳 무역항로의 교류로 주어지는 이익은 야곱이 본 것의 단지 작은 규모의 성취였던 듯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스블론의 대륙에 대한 관심을 설명합니다. “And his border shall be unto Zidon—그의 지경이 시돈에 까지 미치리로다.” 다시 한 번, 스블론의 경계가 그렇게까지 멀리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이 예언은 확실히 스블론의 엄청난 확장과 광대한 대륙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시돈은 지구 끝까지 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도시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막강한 두로의 모체(母體)였고, 고대의 가장 위대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야곱의 말의 궁극적인 성취는 틀림없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한 야곱의 설명에서 그 의미를 다 논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신비스러운 설명이 있습니다. 스블론 지파가 상속받은 지역에는 나사렛과 갈릴리의 가나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상하게 되는 곳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종종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렛은 그분이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청년으로 성장하셨으며 의자에 앉아서 일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신약 시

대에 스블론의 경계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수많은 위대한 기적들을 베푸신 곳은 은혜 받은 스블론 지역에서였습니다(마태복음 4:15-16). 이와 같이 스블론은 역사상 강력한 운동의 요람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에 교회가 출현되었고, 그 교회는 곧 그 이후로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스블론이 야곱의 심판석에 조용히 섰던 날에 얼마나 큰 영예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f. 잇사갈(49:14-15)

잇사갈 또한 레아의 아들 중의 하나였으며, 레아가 라헬로부터 야곱을 빌려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출생환경은 잇사갈의 성격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는 활동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못한 인물로 단지 비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매우 만족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잇사갈을 바라보며 그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49:14). 그는 “Issachar is a strong ass—잇사갈은 강한 당나귀”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의 특성이 묘사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마찬가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강하지만 좀 어리석은 동물 같다고 함은 추켜세운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사자 같고 납달리는 암사슴 같고 베나민은 늑대 같다고 했고 심지어 단조차도 뱀과 같다고 한 것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당나귀에 비유됨은 우매하고 보다 고상한 것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바로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유용성과 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것은 잇사갈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격정적인 지도력의 의미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의 의미에서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지만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다음으로 그의 만족에 대해 말했습니다(49:15a) “And he saw that rest was good, and the land that it was pleasant—그는 쉬는 것이 좋다고 여기며, 기분 좋은 땅을 보리라.” 잇사갈은 영광보다는 가정의 평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한 쪽의 길고 가느다란 매우 비옥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땅은 침략자들이 매우 탐냈던 요르단에 면한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잇사갈은 계속 밭을 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지파들이 대략적으로 이룬 업적들을 사사기(士師記)에서 다시 개괄할 때에도 잇사갈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사사기 1장). 그 지파는 군사적 노선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적어도 자기들의 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지파들과 협력해서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많이 내다보았습니다. 나태하고 태평스러운 잇사갈의 기질이 그의 노예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49:15b) “And he bowed his shoulder to bear and became a servant unto tribute—그리고 그가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진상품을 바치는 종이 되었다.” 거기에 비난은 없었고 단지 성취욕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보면 심판석은 후일에 왕국에서 유익한 결과를 얻게 했습니다. 결국 잇사갈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파들이 진영을 치거나 행군할 때에 잇사갈은 스블론 옆에 배치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유다가 배치되었습니다(민수기 10:15). 왕국의 원기 왕성한 지파들과의 연합은 굶픈 잇사갈을 고무시키기 위함 이었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잇사갈은 바락과 함께 싸우기 위해 전방으로 나왔고, 심지어 마차로 행군하여 전투의 선봉을 맡았습니다(사사기 5:15). “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드

보라는 마침내 게으른 잇사갈이 활약하도록 벌침으로 찢렸습니다. 나중에 잇사갈 지파에서 네 명의 북 왕조의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시대에 그 시대를 통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잇사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좌로 돌아오는 데에 환영하며 앞장섰습니다.(역대기상 12:32, 38-40)

g. 단(49:16-18)

단은 라헬을 대리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몸종인 빌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야곱에게 그 소년과 그와 가장 가까운 세 명의 형제들의 사악함에 대해 보고한 것 이외에는 단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일을 다시 꺼내겠습니까? 여종의 아들로써 열등감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단에 대해 야곱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그에게 뭐라고 말할겠습니까?

야곱이 처음 단을 응시하면서 본 것은 지위였습니다(49:16). “Dan shall judge his people,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우리는 단이 갑자기 똑바로 일어서서 그의 어깨를 당당하게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잇사갈처럼 당나귀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단 지파에서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의 업적이 그 땅에서 전설이 된 위대한 삼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있었습니다. 야곱은 단에 대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의 기질 중에서 심각한 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늑은 선지자가 단을 바라보면서 다음으로 본 것은 단이 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49:17). “Dan shall be a serpent by the way, an adder in the

path, that biteth the horse heels, so that his rider shall fall backward—단은 길가에 뱀이 되리니, 통로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뒤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왕국에서 단이 상속받은 곳은 지역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에 접해 있었고, 거대한 항구도시 옴바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지방에 맞대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들의 호전적인 이웃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단의 후손들은 그와 같은 지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라이스(Laish) 성읍을 습격하여 이스라엘의 먼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시리아와 같은 북방의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파의 종교적 정책으로 이스라엘 최초로 우상숭배를 도입한 것은 단이었고(사사기 18:30-31), 여로보암이 그의 금송아지 중의 하나를 세운 것도 단의 지역 내였습니다(열왕기상 12:2-30).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의 잔에는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심판석에서 그 밖의, 보다 더 나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49:18). “I have waited for thy salvation, O LORD—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그는 외쳤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내다보며, 단에 의해서 그의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다가오는 사건들에 흥미를 가지면서, 갑자기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은 멀리멀리 단과 그의 배반을 너머서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심지어 뱀과 같은 길로 들어선 단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역시 은혜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

다”라고 언급된 것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바로 첫 번째 언급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이 단과 연관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h. 갓(49:19)

갓은 레아의 여종에게서 난 첫 아들이었고, 우리가 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만큼이나 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역시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좋지 않은 보고에 아셀과 납달리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갓을 바라보며 두 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복당한 자로서 갓을 보았습니다. 그는 “Gad, a troop shall overcome him—갓,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갓을 또한 승리자로 보았습니다. “But he shall overcome at the last—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갓은 그의 상속으로 요르단의 먼 쪽을 택했습니다. 그의 지역은 사막으로부터 그의 땅으로 습격하는 호전적인 유목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요르단 동쪽에 정착한 모든 지파들은 취약했고, 실제로 아시리아 유목민들이 그곳으로 쳐들어 왔을 때에 첫 번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갓의 지파에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다(Jephthah), 사랑 받은 바르실래(Barzillai), 그리고 선지자 중의 으뜸인, 엘리야, 그들 모두가 갓 지파로부터 나왔습니다. 갓은 대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나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심판석에서 그가 인정받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따라서 행한 것을 평가받을 때에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i. 아셀(49:20)

아셀은 하찮아 보이는 다른 아들들과 같은, 그 여종들의 아들 중의 다른 하나였습니다. 야곱의 평범한 이 아들들은 대중들, 믿음의 구성원들, 구속된 자들의 모든 계층을 이루는 큰 무리를 대표합니다. 야곱의 심판석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 참석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었습니다. 그 심판석에서 다시 심리함은 죄나 성화의 문제에서 눈에 띄는 자들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함이었습니다. 아셀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다시 두 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삶에서의 일상적인 보상을 보았습니다. “Out of Asher his bread shall be fat—아셀에게서 나는 빵은 기름지겠고”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그는 삶의 최고의 풍요도 보았습니다. “and he shall yield royal dainties—그가 왕의 진찬(珍饌)을 마련하리로다.” 얼마나 아셀의 얼굴은 칭찬과 보상 그리고 앞으로 올 왕국에서의 보장된 명예에 관한 통고에 빛났었겠습니까.

아셀의 가나안에서의 상속은 갈멜의 기슭을 따라 두로를 지나서 지중해안에 이르기까지 놀랄 만큼 비옥한 긴 땅이었습니다. 아셀은 두로의 강인하고 끈질긴 페니키아인들을 쫓아낼 정도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느브갓네살이나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 당시 두로를 굴복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셀을 위해 두로를 뿌리 뽑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두로가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과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통치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탄의 실제적 본거지로서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아셀은 “dip his foot in oil—그의 발을 기름에 담그리로다.” 주석자들은 아셀의 지역에서 풍성하게 번성하여 풍부한 기름을 생산하는 올리브 숲들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올리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현대적인 항구인 하이파는 아셀의 지역에 있고, 어마어마한 이란 유전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송유관이 거

기 하이파에서 끝납니다. 아셀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 그의 발을 기름에 담근 것입니다.

j. 납달리(49:21)

남은 여종의 아들은 납달리였습니다. 야곱이 먼저 정확히 지적한 것은 그의 아들의 태생적인 야생성이었습니다. 그는 “Naphtali is a hind let loose—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말했습니다. 숲과 들에서 암사슴은 겁 많고 재빠르며 우아한 동물입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거듭나기 전에, 일찍이 납달리는 분명히 거칠고 억제할 수 없는 젊은이였고, 길들이기 어려우며, 자유와 무절제에 대한 열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유를 향한 사랑은 이제 좋은 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쪽이든지 더 나쁜 쪽이든지 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질적인 특색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타고난 특성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기질대로 절제하지 않고 본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기질을 제단 위에 가지고 나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에 넘기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고 더 고귀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활시켰습니까?

야곱은 또한 납달리에게서 탁월한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는 “Naphtali, giveth goodly words—납달리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그러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납달리가 먼저 아버지에게 베냐민과 함께 모두가 무사할 뿐 아니라 요셉도 살아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뛰어간 것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납달리를 보자 야곱은 그와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놓아진 암사슴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재빠른 발과 유창한 말

숨씨가 야곱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말씨가 무엇보다도 첫째로 따뜻한 칭찬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k. 요셉(49: 22-26)

이제 야곱의 시선은 요셉을 향했고, 그의 유창한 말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뛰어나게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대에서 가장 많이 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힘, 그리고 지혜,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바로 그 등근 천장을 울리게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야곱은 그의 생각을 네 영역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풍부한 결실이었습니다(49:22). “Joseph is a fruitful bough, even a fruitful bough by a well; whose branches run over the wall—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었도다.” 야곱은 요셉의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더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두 묶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해진 그 묶이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두 번째 인구 조사 결과, 이 두 지파는 합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가 많았습니다. 요셉은 열매 많은 가지였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은 그의 대적들에 대해 언급합니다(49:23). “The archers have sorely grieved him, and shot at him, and hated him—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도다.” 요셉의 형제들의 적대감은 미약한 모습으로, 단순한 형태일 뿐이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세상 속에서 직면해야만 했던 적대감은 보다 더 컸었습니다. 적(敵)들의 큰 세력에서 가나안을 빼앗은 위

대한 군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그 지파들에게 제공한 것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정복한 것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49:24). “But his bow abode in strength, and the arms of his hands were made strong by the hands of the mighty God of Jacob; (from thence is the shepherd, the stone of Israel) – 요셉의 활이 굳건하게 견디었으니, 야곱의 위대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손의 팔이 강해 졌으니 (거기로 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요셉은 그의 믿음의 힘으로 역경과 시험에서 승리했고, 온 애굽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난관을 극복해 가도록 이끈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진실이 예언적인 진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서 약속된 구세주의 모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자(그분의 초림에 관련되어)이시며 돌(그분의 재림에 관련되어)이십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예표가 되는, 두 차례나 오실 그리스도의 진리를 희미하게 납득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서 본 모든 복을 설명하기에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복”이란 말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줄줄이 이어지는 복은 그의 충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49:25-26). 야곱은 요셉을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음의 복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는 넉넉함과 안전과 주권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The blessings of thy father have prevailed above the blessings of my progenitors –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조상들의 축복을 뛰어 넘었노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능가하는 복을 받았고, 너는 나를 능가하는 복을 받게 되리라! “Blessings – 복들이”라고 그는 자신의 말에 감동되어 외쳤습니다. “Blessings unto the utmost bound of the everlasting hills: they shall be on the head of Joseph, and on the crown of the head of

him that was separate from his brethren—복들이 영원한 산들의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르리니,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머리 위의 왕관에 임하리도다.”

야곱의 말은 단순히 지파에 대한 축복을 넘어서 전체에 대한 축복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심판석에서의 요셉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즉 그 축복은 멀리 뻗어 나아가 개재(介在)하는 모든 왕국의 세대들을 넘어서 멀리 영원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밑물을 얻 것은 요셉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1. 베냐민(49:27)

베냐민은 라헬의 죽음과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야곱이 나이 들어 얻은 그의 오른팔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Benjamin shall ravine as a wolf—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리라.” 늑대는 개과의 가장 큰 종류로 종종 몸무게가 45킬로그램 정도 되는 힘 센 육식 동물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냐민에게서 본 특성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전투적인 지파가 될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에게 할당된 지역은 작았지만(단지 약 1,000평방킬로미터), 험하고 지역 전체를 방어하기에 가장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지역은 침략세력들에게 자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침략을 대비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에게 속한 땅이 만약 잇사갈에게 주어졌다면 큰 실수였을 것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을 당나귀가 아닌 늑대에게 방위하도록 맡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의 정복 또한 보았습니다. “In the morning he shall devour the prey, and at night he shall

divide the spoil—그가 아침에는 그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노획물을 나누리라.” 성경에서 두 명의 유명한 베냐민 사람을 발견합니다. 둘 다 사울로, 한 명은 구약성경에서, 다른 한 명은 신약성경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고, 저녁에 다소의 사울이 교회의 고삐를 붙들고 바로 로마의 성문을 두드리는 메시지를 들고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부를 열고 결산보고를 하자 아들들은 전부 그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심판은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적이었는데, 그의 침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예리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각자의 두드러진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고, 각자의 인생의 빛나는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적인 사람, 전체적인 지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산꼭대기를 내다보았습니다. 심판석의 경험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각 경우에 완벽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졌고, 심판에 편견이 없었음을 알았기에 한 마디의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왕국에서 직면할 각자의 미래를 향해 떼지어 그 방을 나서면서,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둠을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B. 야곱의 장례식(49:28~50:21)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을 보여 주시려고 그를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신 것과 같이, 야곱에게 그의 아들들의 미래의 역사와 애급으로부터 나올 민족의 운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의 죽음 직전에 야곱을 높은 영적 정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곱의 선견(先見)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

께서는 야곱의 장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 서약(49:28-33)

그의 가족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 야곱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습니다. “All these are the twelve tribes of Israel—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니라.” 모세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And this is it that their father spake unto them, and blessed them; every one according to his blessing he blessed them—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그들을 각자의 복에 따라 축복하였더라.” 그 생각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함에서 그들로부터 나올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확인된 위대한 씨의 언약이 지금 그의 아들들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가족은 고센에서 “매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47:27). 그래서 예언적으로 바로 그의 마지막 말에서, 야곱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49:29-32). “I am to be gathered unto my people: bury me with my fathers in the cave that is in the field of Ephron the Hittite—내가 내 백성들에게로 합쳐져야 하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으라.” 야곱은 애급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고, 거기에 눕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때, 죽었던 살았던 간에, 가나안에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시간에 예언자였으므로, 아마도 그는 또 무엇인가를 더 많이 짐작하고 있었는

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가나안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메시아께서 행하실 기적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⁴

야곱은 그의 유언에 관해서 또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신이 거기에 있었고, 사라의 시신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시신도 거기에 있었고, 리브가의 시신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레아도 다른 이들과 함께 거기에 묻혀 있었는데, 그녀의 죽음에 대한 첫 신고를 우리는 듣습니다. 야곱은 그의 유해가 그들과 함께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보게 될 사람들은 그들일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과 마지막 유언을 한 후에, 야곱은 그의 마지막 증거를 남겼습니다(49:33). “And when Jacob had made an end of commanding his sons, he gathered up his feet into the bed, and yielded up the ghost, and was gathered unto his people—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자, 그는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어, 그의 백성들에게

4. 마태복음 27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다. “The graves were opened: and many bodies of the saints which slept arose, and came out of their graves after his resurrection, and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unto many—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인가? 야곱이 그것을 알아채고 이 일이 일어날 곳에 있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있을 그 위대한 첫 열매의 축제에 무덤에서부터 들려 올라가는, 경이롭고 신비한 혼드는 단(wave-sheaf)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로 합쳐졌더라.”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묻히도록 지시했고, 마침내 그 자신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그는 남은 기력을 다해 침상으로 발을 끌어당기고, 지팡이를 놓아두고, 그리고 미소 지으며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호화로운 방의 금박을 입힌 그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림으로 장식된 벽들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목소리의 여운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의에 찬 눈으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신 사람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신은 이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는데, 늙고 풍파에 시달린 모습이었으나, 그의 고난은 끝났고, 그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었고, 할머니 사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레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천상의 기쁨, 즉 그는 라헬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2. 준비(50:1-3)

이제 야곱의 몸을 방부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And Joseph fell upon his father’s face, and wept upon him, and kissed him. And Joseph commanded his servants the physicians to embalm his father: and the physicians embalmed Israel—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비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 맞추고, 그의 수종(隨從)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버지를 향료로 방부처리하게 하니, 의사들이 이스라엘을 방부처리하더라.”⁵

야곱은 라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오래 전의 그 당시에 애굽에서 국장(國葬)으로 그의 날들을 마감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요셉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전 국토가 애도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실로 요셉의 애굽에

서의 권한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3. 허락(50:4-6)

“And when the days of his mourning were past, Joseph spake unto the house of Pharaoh, saying, If now I have found grace in your eyes, speak, I pray you, in the ears of Pharaoh, saying, My father made me swear, saying, Lo, I die: in my grave which I have digged for me in the land of Canaan, there shalt thou bury me. Now therefore let me go up, I pray thee, and bury my father, and I will come again. And Pharaoh said, Go—그리고 애곡하는 날들이 지나가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전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파놓은 내 무덤에, 거기에 너는 나를 묻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5.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애급에서 큰 사업이었다. 시체에 방부처리를 하고 관을 짜고 칠하고 장례가구를 만들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장인들 전체를 쉴 새 없이 바쁘게 하였다. 시체에 방부처리를 마치는 데에는 두 달 정도 걸렸다. 첫째로 콧구멍을 통해 두개골에서 뇌를 뽑아 내고, 그 후에 옆구리 절개를 통해 주요한 기관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야자주로 닦아내고 곱게 빻은 향으로 깨끗하게 했다. 파내어진 빈 몸통은 깨끗한 몰약과 계피로 된 향신료와 향수나 그와 비슷한 것들로 채워졌고 몇 주간 계속 나이트론(nitron)에 담가 두었다. 일정기간 충분히 담가 둔 후에 시체를 씻기고 좋고 가는 린넨 천으로 감싸고 애급인들이 폴로 사용하던 고무 진으로 칠했다. 이렇게 방부처리를 마친 후에 시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나무 관에 넣어 무덤에 옮겨 놓았다.

아비를 묻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기를 올라가라 하니라.”

요셉은 타고난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기근의 날들이 지나갔지만 그는 자신이 파라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와 그의 친족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떠난다면, 그로 인해 애굽인들은 불안하여 서둘러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위해서는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직접 나가야 했겠습니까? 그는 독재 군주의 변덕의 위험을 무릅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갖고 먼저 왕에게 나아가도록 요청했습니다. 파라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요셉의 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까.

4. 장례행렬(50:7-14)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자세히 장례행렬에 대해 설명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년에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던 유목민의 목자가 아니라 마치 애굽 군대 총사령관을 지냈었던 것처럼 온전히 예우를 갖춘 군장(軍葬)으로 장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애တွ해 하는 측근들과 군대의 호위가 따랐습니다. 요셉이 있었고 다른 형제들과 식솔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믿음의 증표로 남겨 두었거나 아니면 장례행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든지 간에 뒤에 두고 온 어린아이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고관들 또한 파라오를 대표해서 장례행렬에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보급품을 실은 수레들과 하인들과 습격에 대비해서 충분한 기병대가 따랐습니다.

장례노선은 후일의 출애굽 때에 택했던 노선과 흡사했습니다. 그

행렬은 홍해 길을 따라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힘차게 나아가 사해의 남쪽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사해의 동쪽 기슭을 따라 다시 요르단 강 위쪽에서 “아닷의 타작마당”까지 사해의 해안선을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큰 무리 전체가 7일 동안 천막을 쳤고 야곱을 위한 애곡 의식(哀哭儀式)을 치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When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e Canaanites, saw the mourning in the floor of Atad, they said, This is a grievous mourning to the Egyptians—그 땅의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기록에 덧붙였습니다. “Wherefore the name of it was called Abelmizraim—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아벨미스라임은 “애굽인들의 초원”이란 의미로 “애곡”이란 말에 대한 재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애도할 때에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걱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머리에 먼지와 흙을 뿌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탔버린 소리에 맞추어 장송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거주민들은 그것이 아주 지체 높은 애굽 고관의 장례식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애굽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야곱의 미라를 그의 아버지의 명에 따라 요르단 건너 막벨라 밭의 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약속한 대로 기다리고 있던 호위대에 다시 합류하여 돌아왔습니다.

5. 용서(50:15-21)

야곱의 죽음과 관련되어 한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when Joseph’s brethren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Joseph will peradventure hate us, and will certainly requite us all the evil which we did unto him—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는 것을 겪게 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어찌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틀림없이 다 갚게 하리라고 하니라” (50:15). 그들은 요셉이 베푼 모든 친절을 다 보았음에도 요셉의 인격을 얼마나 훼손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의 의심은 요셉의 혼에 화살이 되어 꽂혔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영광스런 주님을 똑같은 식으로 잘못 판단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不信)이 주님께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사건을 기각하십니다. 그때에 형제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솔직하고 완전한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넉지시 암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미안해하고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든지 아니면 자존심에서든지 간에 그들을 온전히 정직하지 못했고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자신들을 대표할 사자(使者)를 골랐는데, 아마도 베냐민 아니면 유다였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그 배반행위에 연관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고, 또 유다는 앞서 중보자로서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Forgive, I pray thee now, the trespass of thy brethren—내가 이제 네게 바라건대, 네 형들의 불법행위를 용서하라” 고 그 사자는 말했습니다. “and their sin; for they did unto thee evil: and now, we pray thee, forgive the trespas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thy father—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도다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청하건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불법행위를 용서해 주소서.”

그 간청이 요셉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는 말했습니다. “Fear not: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But as for you, ye though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unto good…Now therefore fear ye not: I will nourish you, and your little ones—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해칠 생각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게 작정하시어…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켰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음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저버리고 실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II. 요셉의 죽음(50:22-26)

요셉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이야기는 짧은 다섯 절(節)로 언급되고, 그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성령께서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뛰어 넘으면서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에 주시하셨습니다. 즉 요셉이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 말하고 그의 유골에 관해 명한 사실을 주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타오르는 한 인생에서 제일 위대하고 빛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A. 요셉의 거처(50:22)

“And Joseph dwelt in Egypt, he, and his father’s house: and Joseph lived an hundred and ten years—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거하니,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과 함께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백십년을 살았더라.”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은 56세였고, 나머지 54년도 높은 지위를 누리며 화려하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유골에 관한 명령은 결국 몇 백 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파라오 왕조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출애굽기 1:8)이 등장해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후에야 요셉의 명령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호화로운 삶을 보냈다는 것이 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었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와 궁전에서 함께한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무덤에 사용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하곤 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도 당신의 무덤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증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과 영향력, 위엄과 권력, 자녀들과 손자들, 지혜와 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삶과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결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무덤은 그가 치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훌륭한 것들을 어느 날 가나안에 있는 장막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은 애정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부와 권력을 맡기실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악의 근원은 돈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때 요셉은 애굽에 거했지만, 그는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B. 요셉의 후손들(50:23)

“And Joseph saw Ephraim’s children of the third generation: the children also of Machir the son Manasseh were brought up upon Joseph’s knees—그리고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을 삼 대까지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자랐더라.” 이제 요셉이 얼마나 즐거운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듯이, 할아버지로서 그의 무릎 위에 어린아이들을 앉힌 요셉을 그려볼 때, 왠지 요셉의 이야기에 기쁜 인간적 감동이 더해집니다.

요셉은 결국 아주 인간적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렇듯이 그는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또 주머니에서 깜짝 선물들을 꺼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아이들과 산책도 하고 마음대로 먹을 것을 주어 아이들이 저녁에 밥맛을 잃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아이들에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대홍수, 바벨탑에 대해서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의 땅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한때 파라오 앞에 섰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닿은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훗날 모세가 기록하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 담긴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손자들의 어린 마음을 채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들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단지 그들이 경험해온 과거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문턱에서 영원한 미래와 생생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C. 요셉의 통찰력(50:24)

그러고는 요셉이 백십 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일 강의 그의 저택으로 그의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I die—나는 죽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and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bring you out of this land unto the land which he swar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려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것은 그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외교관은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을 넘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다가올 환난의 날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발꿈치 아래에서 짓밟히고 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족이신 구속자가 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로 틀림없는 약속에 닿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적으로나 비유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의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을 “천국”이라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비한 환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냉철하고 엄격한 사실들을 다루었고, 요셉은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점치는 잔이나 마법사나 점쟁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실하게 의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D. 요셉의 요청(50:25)

“And Joseph took an oath of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ye shall carry up my bones from hence—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겠노라고 하라 하나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저 노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늘 복종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기의 가장 영예로웠던 기간에 그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들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그의 뒤에 남기고 이제 막 떠나려 하고 합니다. 그는 무엇인가 그의 형제들에게 애급에서 어찌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유산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의 뼈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유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열심히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나일 강가의 저택도 아니고, 아라비안 경주용 말의 마구간도 아니고, 무척 값나가는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곧 노예 신세로 떨어질 백성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애급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을 남겼는데, 그의 뼈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시신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그 유골 상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급하던 그 위대한 밤에 애급에 있던 모든 히브리인들은 뭔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것이 된 한 나라의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took the bones of Joseph with him—요셉의 유골을 그가 취하였으니”(출애급기 13:19).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시신

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이 유골들, 즉 기억해야 할 요셉의 시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시신은 모든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방향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이 그분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이, 요셉의 기억해야 할 시신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마지막이며 최종적인 암시입니다. 요셉은 그의 몸에 관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E. 요셉의 사망(50:26)

“So Joseph died, being an hundred and ten years old: and they embalmed him, and he was put in a coffin in Egypt—그리하여 요셉이 백십 세의 나이로 죽으니, 애굽에서 그들이 그를 향료로 방부처리하고 입관하니라.”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유골을 시나이의 그 사막 너머로 옮겼으며,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그 유골과 관련해서 끝을 맺고, 여호수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nd the bones of Joseph, which the children of Israel brought up out of Egypt, buried they in Shechem, in a parcel of ground which Jacob bought of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for an hundred pieces of silver: and it became the inheritance of the children of Joseph—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 낸 요셉의 유골을 그들이 세겜에 묻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산 땅으로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이 되었더라.”(여호수아 24:32)


요셉은 그의 앞서간 모든 애굽의 총리들과 같이 재산을 소비하며

반평생을 바쳐서 애굽에 무덤을 만들고 꾸미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십중팔구 그의 무덤은 훨씬 이전에 도굴꾼들에 의해서 약탈당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묻힐 것을 원했습니다.

요셉의 직계 자손의 한 사람인 여호수아가 사랑과 충성으로 요셉의 석관을 세겜 땅에 안장(安葬)했을 때, 만일 우리가 그 날 거기에서 있었다면 그 유골 상자로부터 꺾꺾 웃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유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데에는 신학이나 인류학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고 무릎뼈는 넓적다리뼈에, 등뼈는 목뼈에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찾으실 것이고, 여기에서 이 뼈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 땅으로 이끄시고, 가까운 어느 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그분의 땅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히 영광 받으며 들려질 것입니다!”

“So Joseph died, being an hundred and ten years old: and they embalmed him, and he was put in a coffin in Egypt—그리하여 요셉이 백십 세의 나이로 죽으니, 애굽에서 그들이 그를 향료로 방부처리하고 입관하니라.” 창세기는 이와 같이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관으로 끝마칩니다. 창세기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마칩니다. 창세기는 영원의 무한함으로 시작해서 시간의 짧음으로 끝마칩니다. 창세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한 죽은 사람으로 끝마칩니다. 창세기는 하늘의 눈부신 밝은 빛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과 비극에 관한 책으로 끝마칩니다. 그것은 “Thou shalt not surely die—너는 참으로 죽지 않으리라”는 마귀의 거짓을 최종적으로 폭로시킵니다. “So Joseph died—그리하여 요셉이 죽었으니”(요셉, 모든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었는데), “Joseph died… and they embalmed him, and he was put in a coffin in Egypt—요셉이 죽었으니… 애굽에서 그들이 그를 향료로 방부처리하고 입관하니라.”



“존 필립스는 열정과 명료함으로 집필하여, … 성경해석에 관련된 혼돈과 이단적 위험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John Phillips writes with enthusiasm and clarity, … cutting through the confusion and heretical dangers associated with Bible interpretation.”

Moody Magazine

“아주 전체적인 개요와 예증이 잘되어 있어서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설교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Well-outlined and illustrated… Will hold the interest of lay readers and will provide Sunday school teachers and preachers with much material.”

John Kohlenberger III

“성경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독특한 문체로 칭찬을 받아온 필립스 박사는… 읽기 쉬운 문체로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하는 성경적 주해를 다루고 있다.”

“In the style that has commended him to numbers of Bible-loving people, [Dr.]Phillips deals with… biblical exposition in a Christ-honoring, easily read style.”

The Baptist Bulletin



값 28,000원